

문제의 의도,
정답 해설과
오답 풀이를 제공하는



정답과 해설

1

문학의 본질과 양상

확인 문제

본문 8쪽

- 1 ④ 2 (1) ㉠ (2) ㉡ (3) ㉢ 3 (1) ○ (2) ○ (3) ○ (4) ○
4 (1) 형상화 (2) 사건, 갈등 (3) 대사, 행동 (4) 경험 5 ①
6 문학사적 맥락 7 (1) 작가 (2) 사회, 문화

(1) 문학의 가치

작품 1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본문 10쪽

- 01 ④ 02 ③ 03 ② 04 ② 05 ②

06 예시 답안 화자는 처음에는 복숭아나무 곁에 '가까이 가고 싶지 않다'며 멀리하지만 복숭아나무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 후 나무에 가까이 다가가 '복숭아나무 그늘'에서 저녁이 오는 소리를 가만히 들으며 그를 이해·공감하는 태도를 보여 준다.

- 01 이 시는 '~합니다'와 같은 경어체를 사용하여 복숭아나무의 참된 모습을 이해하게 되는 인식의 변화 과정을 독백적 어조로 담담하게 노래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1연에서는 흰꽃과 분홍꽃이라는 색채어를 사용하여 피상적으로 바라본 대상(복숭아나무)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중심 소재인 복숭아나무로 초점을 모으기 위해서 활용한 것은 '그'라는 지시어의 반복 사용이다.
② 이 시는 복숭아나무로 상징되는 대상(타인)과의 진정한 관계 형성 과정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자연과 인간사의 대비를 통해 정서를 심화하고 있지 않다.
③ 이 시에서 의인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를 통해 현실 체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화자는 대상에 대한 거리감으로 대상을 멀리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대상을 이해하게 된 후에는 공감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⑤ 이 시의 화자는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 02 화자는 복숭아나무가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래서 화자가 복숭아나무를 '멀리'하는 것이므로, ㉢은 화자가 복숭아나무의 진정한 모습을 파악하기 위한 의도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오답 풀이

- ① 복숭아나무의 본모습을 모르는 화자는 복숭아나무가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졌다면 복숭아나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② 화자가 바라본 복숭아나무는 '흰꽃과 분홍꽃'을 피우고 있다. 하지만 복숭아나무의 본모습을 발견하게 된 화자는 복숭아나무가 '수천의 빗갈'을 지니고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 그러므로 흰꽃과 분홍꽃으로만 인식한 복숭아나무는 피상적으로 바라본 대상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④ 복숭아나무는 피우고 싶은 꽃빛이 많았고 수천의 빗갈을 가지게 되었으나 화자가 복숭아나무를 피상적으로 바라보았던 것이다.
⑤ ㉠에서 '저녁이 오는 소리'를 듣는 화자의 행위는 대상을 진심으로 대하게 되는 성숙한 만남을 이룬 후 그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와 교감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03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것이라는 것은 복숭아나무에 대해 화자가 지니고 있었던 선입견, 편견이라 할 수 있으며 복숭아나무가 원래부터 지니고 있던 부정적 요소라고 할 수 없다.

오답 풀이

- ① 복숭아나무가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으로, 대상에 대한 거리감을 느끼게 된다.
③ 화자는 복숭아나무가 흰꽃과 분홍꽃만 가진 것으로 알았지만 후에 그 사이에 수천의 빗갈을 지니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 발견은 화자로 하여금 복숭아나무의 진정한 모습에 대해 재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④ 화자는 복숭아나무가 가진 수천의 빗갈을 발견한 뒤 복숭아나무가 지닌 '그 여러 겹의 마음'을 비로소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대상의 본질을 인식하게 된다.
⑤ '조금은 심심한 얼굴'은 화자가 복숭아나무를 재인식한 뒤 나무의 그늘 아래에서 바라본 복숭아나무의 모습이다. 따라서 대상에 대한 진정한 이해 및 관계 형성 이후에 바라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 04 이 시는 자신과 대상과의 차이를 알고 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에서 벗어나 대상의 본질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화자는 선입견으로 대상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했던 자신을 성찰하고 있다. 이처럼 자신이 어떤 대상에 대하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관념으로 대상을 바라보는 것은 대상의 본질을 이해하기 어렵게 한다.

③ 화자가 복숭아나무를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를 통해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대상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교감하는 바람직한 관계 맺음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④, ⑤ 대상을 제대로 바라보고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관적인 관점을 배제하고 대상이 지닌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05 이 시는 복숭아나무로 대변되는 대상의 참모습을 발견하는 과정을 통해 대상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보기>의 화자는 ‘숲’을 멀리서 보았을 때는 나무와 나무가 모여 서로 간에 거리낌 없이 친밀함으로만 살아가는 줄 알았으나 산불이 휩쓸고 지나간 숲에 들어가 본 후, 나무와 나무 사이에 필요한 간격이 있음을 알게 된다. 이를 통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적당한 간격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두 작품 모두 대상과의 합일과는 거리가 멀다.

06 화자는 처음에는 복숭아나무가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 ‘가까이 가고 싶지 않다’ ‘멀리로’만 지나쳤다고 고백하지만 복숭아나무가 가진 ‘수천의 빛깔’을 발견한 뒤 대상의 본질을 재인식하는 과정을 보여 준다.

| 채점 기준 | 배점 |
|---|----|
| 해당 시구를 인용하여 화자의 태도 변화 과정을 적절히 설명한 경우 | 5점 |
| 해당 시구를 인용하여 화자의 태도 변화 과정 중 변화 후의 모습만 설명한 경우 | 3점 |
| 화자의 태도만 간단히 언급한 경우 | 1점 |

작품 2 성난 풀잎

본문 13쪽

01 ⑤ **02** ② **03** ⑤ **04** ⑤ **05** ⑤ **06** ①
07 ① **08** ⑤ **09** 예시 답안 인간의 쓸모를 기준으로 잡
풀을 베어 내는 것은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고 해치는 행동이라
할 수 있다. ‘성난 풀잎’은 이러한 인간 중심적 사고에 대해 경고
하고 질책하는 존재를 의미한다.

01 이 글은 ‘자연의 본성에 대한 인식 제시 - 잡풀에 대한 농부와 글쓴이의 대조적 관점, 글쓴이가 풀독이 오른 경험 - 자연의 본성에 대한 깨달음’의 순서로 글을 구성하고 있다. 대상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 변화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여 주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1문단에서는 동양의 경전과 서양의 자연주의 작가의 말을 인용하여 ‘자연의 본성’이라는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② 1문단에서 점강법을 사용하여 약육강식의 속성을 지닌 자연의 먹이 사슬을 표현하고 있다.

③ 이 글은 글쓴이가 고추밭과 집터서리의 잡풀을 뽑고 베어 내다 풀독이 오른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

④ 이 글에서는 농부의 인간 중심적 관점과, 여기서 벗어난 글쓴이의 생태주의적인 관점을 대조적으로 제시하여 인간 중심주의적 사고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라는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02 인간들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럽다’라는 속성과 거리가 멀다. 자연스러운 것은 인위적인 어떤 것을 거치지 않고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자연물이나 인간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03 [C]에서 글쓴이는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풀은 잡풀, 원수로 대하는 농부의 태도에 대하여 ‘잡풀의 서러움’이라고 표현하는 등 농부의 이기적인 관점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A]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늙은 아비와 딸 이야기를 통해 자연의 섭리가 인간에게도 적용됨을 나타내고 있다.

② [A]에 제시된 자연의 속성은 어느 것을 편들거나 어느 것에도 치우치지 않는 ‘공평무사’이다. [B]에서는 이러한 자연의 속성에 대해 매몰스럽고 정나미가 떨어진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인간의 이기주의적 생각이라 하며 제시하고 있다.

③, ④ [B]에 제시된 자연에 대한 인간의 태도는 이기주의적인 것으로, 이와 같은 태도는 [C]에서 농부의 예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04 글쓴이는 잡풀을 제거하다 풀독이 오른 경험을 바탕으로 풀들이 자신을 해하려는 대상에게 대항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임을 깨닫는다. 글쓴이는 풀독이 오른 후 인간 중심적 관점에서 벗어나 모든 존재가 동등하다는 생태주의적 관점으로 인식의 변화를 보이며 자연의 본성을 확인하

므로 ⑤의 '자연의 본성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5 ㉔은 잡풀에게도 느낌이 있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자연인 잡풀도 인간과 동등하다는 생태주의적 관점에 해당하며, ㉕은 자연스럽다는 것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과는 무관하며 인위적 조작이 개입되지 않는다는 생태주의적 관점에 해당한다.

06 ① 약육강식(弱肉強食):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먹힌다는 뜻으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희생시켜서 번영하거나,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끝내는 멸망됨을 이르는 말.

오답 풀이

- ② 무위자연(無爲自然): 사람의 힘을 더하지 않은 그대로의 자연. 또는 그런 이상적인 경지.
- ③ 당랑거철(螳螂拒轍): 제 역량을 생각하지 않고, 강한 상대나 되지 않을 일에 덤벼드는 무모한 행동거지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중국 제나라 장공(莊公)이 사냥을 나가는데 사마귀가 앞발을 들고 수레바퀴를 멈추려 했다는 데서 유래한다.
- ④ 건곤일척(乾坤一擲): 천하를 두고 한번에 모든 것을 건다는 뜻으로, 운명을 걸고 단판결이로 승패를 겨룸을 이르는 말.
- ⑤ 경거망동(輕舉妄動): 명사 경솔하여 생각 없이 망령되게 행동함. 또는 그런 행동.

07 작물은 잡풀과 달리 인간이 소중히 여기고 공을 들여 키우는 존재이다. 작물의 입장에서 인간의 '발걸음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물을 주거나 해충을 없애 주는 등의 보살핌을 받는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작물에게 있어 농부의 '발걸음 소리'는 관심과 사랑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08 이 글은 인간과 식물 모두 동등한 자연의 일부라는 인식을 보여 주고 있으나, <보기>는 농촌 공동체의 모습을 그리고 있을 뿐 동식물이 공동체의 일부라는 인식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 ② 이 글은 시각적·촉각적 이미지, <보기>는 시각적 이미지와 후각적 이미지를 통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 준다.
- ③ 이 글은 '한갓 잡풀일망정 뽕히고 베일 때 왜 느낌이 없을 수 있겠는가. 느낌이 있다면 왜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자연스럽다는 것은 본디 인간의 뜻과 무관한 것이 아니었던가.'에서 설의적 표현이 나타난다. 이를 통해 잡풀

에게도 느낌이 있고, 자신을 해하려는 대상에게 대항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임을 드러내어 자연의 본성을 이야기하고 인간 중심적 관점에 대해 성찰하며 주제 의식을 강화하고 있다. <보기>에는 설의적 표현이 쓰이지 않았다.

④ <보기>는 '-지요', '-구요'와 같은 구어체 종결 표현을 사용하여 농촌 공동체의 따스하고 정감 어린 모습을 형상화한다.

09 인간은 자신에게 쓸모가 있고 없고를 기준으로 작물과 잡풀을 분류한 후 잡풀을 제거한다. 잡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는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행동이라 할 수 있다. 잡풀들은 자신을 제거하는 인간에게 풀독을 남기는데 이는 결국 인간 중심적 세계관에 대한 자연의 경고와 질책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 채점 기준 | 배점 |
|--|-----|
| 잡풀의 입장에서 인간의 행동의 의미와 '성난 풀잎'의 의미를 서술한 경우 | 5점 |
| '성난 풀잎'의 의미만 밝힌 경우 | 3점 |
| 위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였으나 글자 수를 지키지 못한 경우 | -1점 |

작품 3 다음에, 나머지 반도

본문 16쪽

01 ③ **02** ② **03** ① **04** ④ **05** ⑤

06 예시 답안 인물의 행동을 통해 성격을 제시하는 간접 제시법이 사용되었다. 꾸무럭대다 장사하기 좋은 자리를 놓치는 것으로 보아 게으른 성격임을 알 수 있고, 손님들의 근황을 궁금해하며 걱정하는 것으로 보아 인정이 많은 성격임을 알 수 있다.

01 김 주사는 사내의 말을 듣고 나름의 장사 수완을 발휘하여 사내에게 친근한 느낌을 주기 위해 그 지역 사투리로 바꾸어 말하고 있다. 김 주사가 자신과 같은 지역의 사투리를 쓰는 사내에게 먼저 친근감을 느낀 것이 아니다.

오답 풀이

- ① 김 주사는 마지막으로 사업을 벌여 보리라 작정하고 싸구려 의류를 떼다가 판매하는 것으로 장사의 품목을 바꾼다.
- ② 김 주사의 생각과 달리 장사는 잘되지 않았고, 김 주사는 옷에 관심을 보이는 사내에게 한 개라도 물건을 팔기 위해 신경전을 벌인다.
- ④ 김 주사와 사내의 신경전은 결국 사내의 뜻대로 티셔츠 하나만 파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⑤ 김 주사는 사내에게 ‘반쯤 없다’는 말을 하려고 하지만 단어를 떠올리지 못해 결국은 ‘반’으로 시작하는 ‘반동가리도 꼭 사 가’라는 엉뚱한 말을 건넨다.

02 이 글은 사투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현장감과 사실성을 부각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은 해학적 서술을 통해 선의의 웃음을 유발하고 인물에 대한 연민과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③ 이 글은 작품 밖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을 관통하며 사건의 전말을 서술하고 있다.

④ 시대의 변화에 뒤처지고 도시화 과정에서 주변부로 밀려난 김 주사를 연민과 공감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쌀쌀한 태도로 남을 업신여겨 비웃는 어조를 사용하고 있지 않고 이를 통해 세태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⑤ 이 글의 서술자는 김 주사의 말과 행동, 태도, 상황 등을 우스꽝스럽게 드러내면서도 김 주사라는 인물을 연민과 공감, 이해, 긍정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인물과 사건에 대해 권위적으로 논평하고 있지 않다.

03 [C]는 사내의 외양 묘사를 통해 사내의 빈곤한 처지가 주로 나타나고, [D]는 사내의 의도대로 옷을 팔고 엉뚱한 말을 건네는 모질지 못하고 어리숙한 김 주사의 모습이 주로 나타난다. 그러나 [C]와 [D]는 모두 상대에 대한 반감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② [D]는 사내의 의도대로 옷을 팔게 된 김 주사의 심정이 “그 옷, 그거 담 장날 가지고 와도 반, 반, 반...”이라는 말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③ [D]에서는 ‘반토막, 반쪽, ~ 초파리처럼 달려드는 바람에’와 같은 비유적 표현을 통해, 하려던 말 대신 엉뚱한 말만 떠오르고 있는 김 주사의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C]에서는 비유적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④ [C]는 사내가 입고 있는 옷에 대한 외양 묘사를 통해 사내가 김 주사와 같이 빈곤한 처지임을 드러내고 있다.

⑤ [C]에서는 새로운 사건을 발생시키는 인물인 사내가 등장하여 극적 긴장감을 절정으로 치닫게 하고 있다.

04 ‘건들거리는 걸음’은 사내의 걸음걸이에 대한 묘사로, 상대인 김 주사를 압도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행동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5 ㉠은 인터넷 쇼핑물, 편의점과 함께 시대의 변화를 나타내는 소재로, 이 소재들은 김 주사의 경쟁 상대이다. 하지만 김 주사는 시대의 흐름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고, 결국 이들과의 경쟁에서 밀려나고 있다.

06 [A]는 간접 제시의 방법으로 김 주사가 꾸무럭대다 장사하기 좋은 자리를 놓치는 것을 통해 눈치가 없고 게으른 성격임을 보여 주고, [B]도 간접 제시의 방법으로 손님들의 근황을 궁금해하고 걱정하는 모습을 통해 인정이 많은 성격임을 보여 준다.

| 채점 기준 | 배점 |
|---|----|
| 두 부분에 나타난 성격 제시 방법을 바르게 밝히고 해당 부분을 언급하며 성격을 정확하게 설명한 경우 | 5점 |
| 성격 제시 방법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해당 부분을 언급하며 성격을 정확하게 설명한 경우 | 3점 |
| 한 부분에 나타난 성격 제시 방법을 바르게 밝히고 해당 부분을 언급하며 성격을 정확하게 설명한 경우 | 2점 |
| 성격만 간단하게 언급한 경우 | 1점 |

(2) 문학의 갈래와 맥락

작품 1 길

본문 18쪽

01 ② **02** ⑤ **03** ③ **04** ⑤ **05** ② **06** ⑤
07 예시 답안 ‘ㄱ’, ‘ㄹ’의 음운을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01 어조의 전환은 시상이 전개되면서 어미 등의 변화를 통해 화자의 말투나 태도가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이 작품은 화자의 독백적 어조가 나타날 뿐 어조가 전환되는 장면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정서의 변화도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1연에서 ‘가마귀 가왓가와 울며’와 같이 청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갈 곳이 없는 화자의 불안한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③ 이 작품은 ‘-소’, ‘-오’와 같은 종결 어미를 반복하여 사용함으로써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④, ⑤ 5연과 6연에서 ‘여보소 공중에 / 저 기러기’를 반복하여 갈 길이 있는 존재인 기러기를 통해 갈 곳 없는 화자 자신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④). 또한, 말을 할 수 없는 자연물인 기러기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여 자신의 처지를 토로하고 싶은 화자의 답답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⑤).

02 ‘정주 광산’은 화자가 가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갈 수 없는 곳이기에 화자로 하여금 내적 갈등과 절망감, 상실감을 불러일으킨다.

오답 풀이

- ① ‘정주 광산’은 화자의 고향으로, 일제 강점기 상황에서 상실된 공간이다. 화자는 안식처로서의 집과 고향을 잃고 유랑하고 있다.
- ②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이다.
- ③ 화자에게는 상실된 공간이며, 기러기에게는 물리적으로 갈 수 있는 공간이다.
- ④ ‘차 가고 배 가는 곳이라오.’에서 알 수 있듯이, 물리적으로 막혀 있지 않지만 갈 수 없는 상태이다.

03 까닭이나 근거 따위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어’를 사용하여 오라는 곳이 없어 산으로도 들로도 못가는 까닭을 나타내고 있다.

04 김소월의 민요조 서정시의 문학사적 가치는 문학사적 맥락을 고려한 감상으로 볼 수 있다.

05 이 작품은 형식적인 면에서는 민요조의 율격을 바탕으로 반복과 변화, 변조를 통해 근대시 형식을 창조하고 있다. 정서적인 면에서는 고향을 잃고 떠도는 삶의 비애를 민족의 고유한 정서인 ‘한(恨)’의 정서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고상한 어휘나 유교적 세계관의 반영 등은 민요의 정서와 형식과는 관련이 없다.

06 1연의 ㉠ ‘가마귀’는 화자의 정서가 이입된 대상으로 ‘울며’ 밤을 새는 화자의 비애감을 심화시키는 대상이다. 5, 6연의 ㉢ ‘기러기’는 공중의 길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자연물로, 화자가 부러워하는 대상이다. ㉢ ‘기러기’는 갈 길이 있는 존재로 갈 곳이 없는 화자의 처지를 깨닫게 하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07 ‘갈래갈래 갈린 길’은 ‘ㄱ’, ‘ㄹ’의 음운을 반복하여 어떤 길로 갈 것인지 선택할 수 없는 화자의 절망적 상황을 음악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채점 기준 | 배점 |
|--|-------|
| 반복되는 음운인 ‘ㄱ’, ‘ㄹ’을 정확하게 밝히고, 이것이 운율을 형성함을 서술한 경우 | 2점 |
| 반복되는 음운만 밝히고, 이것이 운율을 형성함을 쓰지 않은 경우 | 1점 |
| 글자 수를 맞추지 못하였거나 완결된 문장으로 서술하지 못한 경우 | -0.5점 |

작품 2 엄마의 말뚝 2

본문 21쪽

- 01** ㉡ **02** ㉢ **03** ㉢ **04** 예시 답안 봉대 감긴 자기의 다리 **05** ① **06** ⑤ **07** ⑤ **08** 예시 답안 ㉢
- 는 국군이 근처에 포진해 다시 전투가 시작되는 상황으로, 인민군들은 상황이 자신들에게 불리해지자 적에 대한 경계와 전투에 대한 대비로 예민한 태도를 보인다. 이는 새로운 상황의 전개를 암시하며 극적 긴장감을 조성한다. **09** ⑤ **10** ② **11** ⑤
- 12** ⑤ **13** ⑤ **14** ④ **15** 예시 답안 ‘너무도 엄청난 것’은 분단 현실, ‘싸움’은 뺑가루를 북쪽으로 날려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는 죽어서 뺑가루가 되어서라도 북쪽을 향하여 가는 방법을 통해 분단의 현실에 맞서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01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작품 속 인물인 서술자가 주요 사건들과 그 의미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1인칭 관찰자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 ③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 ④ 3인칭 관찰자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 ⑤ 서술자가 바뀌지 않는다.

02 어머니는 환각 속에서 과거에 겪었던 오빠의 죽음과 관련된 사건을 다시 겪고 있다. 어머니에게는 인민군 군대에서 도망친 오빠의 정체가 인민군에게 발각되는 것이 자칫 오빠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라 할 수 있다.

03 ㉠에서 ‘그놈’이라는 호칭은 ㉢에서 ‘군관 동무’, ‘군관 선생님’으로 바뀐다. ㉠, ㉢의 대상은 모두 과거 아들을 죽인 인민군 군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은 자신의 아들을 해치려고 하는 군관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낸 것이고, ㉢은 군관의 의심을 피하고자 비위를 맞추려고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04 이 글에서 어머니는 과거 전쟁 중 보위부 군관이 집에 찾아와 아들의 상태를 추궁하고 위협하는 상황을 환각으로 보고 있다. ‘봉대 감긴 자기의 다리’는 과거 자신의 아들의 모습을 환기하게 하여 어머니의 마음속 상처를 자극하고 자신의 아들로 착각하게 만든다.

05 오빠는 의용군을 탈출하며 정신이 불안정한 상태로 집에 돌아온다. 집에 숨어 지내던 중 군관들이 들이닥쳤고 오빠

는 군관들만 나타나면 사색이 되어 떨어졌으며 인민군복을 보자마자 새로 실어증이 생겼다고 하였다. 이는 자신의 의용군에서 탈출한 것을 들킬까 봐 무섭고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실어증은 의용군을 탈출하면서 생긴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 ② ‘오빠는 으, 으, 으, 으, 같은 소리밖에 못냈다.’, ‘오빠의 실어증은 회복되지 않았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③ 보위군관은 어머니와 친근하게 지내다가도 오빠의 정체를 계속해서 의심해 인민군대에서 도주했는지, 국방군에서 낙오했는지를 캐물었다.
- ④ 어머니는 오빠를 지키기 위해 군관들의 비위를 맞추며 잘 지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 ⑤ ‘독사와 더불어 춤을 추는 것 같은 섬뜩하고 아슬아슬한 곡예로 하루하루를 넘겼다.’에서 ‘나’와 어머니는 오빠가 인민군대에서 탈출한 사실이 밝혀질까 봐 두려워하며 지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06** [B]에서 보위군관은 오빠에게 숨겨야 할 과거가 있고, 가족들이 숨겨 주고 있음을 눈치채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실대로 말하라며 강압적으로 어머니를 협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물증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 ① 보위군관은 어머니가 오빠의 과거를 말하도록 하기 위해 [A]에서는 회유, [B]에서는 협박하는 말하기를 하고 있다.
- ② [A]에서 보위군관은 오빠에 대해 ‘배 안의 병신은 아니지?’라며 자신의 추측을 바탕으로 어머니에게 딱하다며 동정을 보이며 설득하고 있다.
- ③ [A]에서 보위군관은 북쪽의 의술을 통해 오빠의 병을 고칠 수 있다며 어머니를 회유하고 있다.
- ④ [B]에서 보위군관은 ‘지금이라도 바른대로 대시오, 이래도 바른 소리를 못 하겠소?’라며 어머니를 강압적으로 협박하고 있다.

- 07** ⑤ ㉠을 통해 오빠를 잃은 원한을 잊을 순 없으나 ‘나’와 어머니의 고통을 어느 정도 덮어둘 수는 있었다고 하였다. 이를 두고 혈육을 잃은 고통과 한을 해소할 수 있었겠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08** ‘포성이 가까워’졌다는 것은 국군이 근처까지 왔다는 의미이고 ‘눈에 핏발이 서기 시작했다’는 것은 인민군들의 적에 대한 경계가 삼엄해지고 전황이 불리해져 예민해졌음을 표현한 것이다. 이는 새로운 상황이 벌어질 것임을 암시하며 극적 긴장감을 조성한다.

| 채점 기준 | 배점 |
|---------------------------------------|-----|
| ㉠의 의미와 사건 전개 양상에서의 서사 기능을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 5점 |
| ㉠의 의미나 사건 전개 양상에서의 기능 중 하나만 서술한 경우 | 3점 |
| 맞춤법이나 띄어쓰기가 잘못된 경우 | -1점 |

- 09** 다리 수술의 후유증을 겪으며 어머니가 ‘나’에게 자신을 화장해서 오빠를 뿌린 곳에 뿌려 달라고 당부하는 현재, 전쟁 중에 잃은 오빠를 화장해서 북쪽 고향 땅이 보이는 바다에 뿌린 과거, 어머니의 유언을 재차 당부하는 현재가 번갈아 제시되면서 어머니가 괴로워하는 원인이 아들의 죽음과 관련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어머니가 처한 상황은 이상(아들이 살아 있는 것)과 현실(아들의 죽음) 간의 부조화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런 내용이 반어적 상황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 ② ‘나’가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은 나타나지만 공간의 이동에 따라 인물의 심리가 변화한다고 보기 어렵다.
- ③ 유사한 사건들을 나열하는 방법이 사용되지 않았으며, 인물이 지닌 속물성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지도 않다.
- ④ 분단이라는 시대적 상황은 제시되고 있지만, 작품 속 인물의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제시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작품에는 계층 간의 갈등이 나타나지 않는다.

- 10** 어머니는 화장장이 정상화되자 오빠의 화장을 ‘나’에게 의논해 왔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무덤이라도 남겨줘야 한다고 공동묘지로나도 이장할 것을 주장하다가 어머니의 기세와 비통한 의지에 눌려 결국 순종하게 된 것은 ‘나’가 아닌 올케이다.

- 11** ‘나’의 가족이 서울에 올라온 것은 분단 이전으로, 분단 이후에 올라와 단단하게 자리를 잡았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12** 분단이 지속된 현실에서, 어머니는 아직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였다. 전쟁과 분단의 아픔은 개인이 이겨 내기가 쉽지 않음을 의미한다.

오답 풀이

- ① 어머니가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반응에 대하여 가족들은 ㉠처럼 생각한다. 이를 통해 가족들 역시

어머니를 문병 온 사람들처럼 어머니의 몸 상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② ‘알맞은 온기와 압력’은 어머니가 다시 기력을 회복한 것을 의미하고, 이는 ‘나’와 친구의 대화를 들은 어머니의 비통한 의지(사후에 화장해 줄 것)가 담겨 있는 것이기에 ‘나’는 놀라움과 서러움을 함께 느낀다.

③ ㉔은 고향과 가장 가까운 곳을 찾아간 것이다. 이는 고향을 눈앞에 두고도 갈 수 없는 분단의 현실을 보여 주는 것이다.

④ ‘그 짓을 또 한 번 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서 어머니가 시킨 짓을 ‘그 짓’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썩 마음이 내키지는 않지만 어머니의 말을 따를 것임을 알 수 있다.

13 ㉒는 자신의 시신을 화장해서 북쪽 고향 땅이 보이는 바닷가에 뿌려 달라는 것으로, 아들에게 어머니가 했던 일이다. 이는 오빠를 화장해서 뿌린 것과 마찬가지로 분단에 맞서는 어머니의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㉑는 바로 뒤의 내용으로 보아 죽어서 가족의 선영이 있는 개풍군에 묻히고 싶을 것이라는 어머니의 생각을 추측해서 어머니의 묘지를 미리 사 놓을 수 없었다는 의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나’의 추정일 뿐 어머니의 의지가 담긴 것은 아니다.

14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은 역사가 개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흘러간다는 것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다. 어머니가 분단으로 인해 자신의 아들이 희생되고, 고향으로 돌아가지도 못하는 현 상황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 어머니의 저항은 오빠를 화장하여 뿌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의 저항이 더 큰 상처로 돌아왔다는 것은 바른 감상으로 보기 어렵다.

15 어머니는 죽어서 뺏가루가 되어서라도 북쪽을 향하여 가는 방법을 통해 분단 현실에 맞서려는 태도를 지니고 있다. ‘너무도 엄청난 것’은 분단 현실, ‘싸움’의 방법은 뺏가루를 북쪽으로 날려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 채점 기준 | 배점 |
|--|----|
| ‘엄청난 것’, ‘싸움’의 의미를 각각 밝히고 어머니의 태도를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 5점 |
| ‘엄청난 것’, ‘싸움’의 의미 중 하나만 밝히고 어머니의 태도를 서술한 경우 | 3점 |
| 어머니의 태도를 단편적으로 언급한 경우 | 1점 |

작품 3 우리들의 블루스

본문 27쪽

01 ② 02 ⑤ 03 ③ 04 ④ 05 ⑤

06 예시 답안 ‘새’는 ‘영희’에 대한 비유적 표현으로, 새가 날개를 펼치고 자유롭게 날아간다는 것은 뛰어난 영희의 그림 실력이 세간의 인정을 받을 것이라는 의미이자 영희가 그림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정준의 바람을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07 ④ 08 ② 09 ⑤ 10 ⑤ 11 ④

01 이 글은 드라마 제작을 위한 시나리오로, 장면(S#)을 기본 단위로 하고 인물의 대사와 행동으로 사건을 전개하는 극 갈래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③ 희곡에 대한 설명이다.

④ 소설에 대한 설명이다.

⑤ 촬영에 필요한 특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시나리오의 특징이지만 사건이 눈앞에서 일어나듯 현재형으로 표현하는 것은 희곡의 특징이다. 희곡은 무대에서 상연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관객의 눈앞에서 사건이 벌어진다.

02 영희의 짐 중에 그림 도구와 뜨개질 도구가 많다는 얘기를 들은 영옥은 짐이 많다는 사실과 더불어 자신이 몰랐던 영희의 취미에 놀란 것이지 짐을 많이 챙겨온 것에 대해 질책하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② ‘너가 무슨 그림을 그려?’라는 질문을 통해 영옥은 영희가 그림을 그려 온 사실을 몰랐음을 알 수 있다.

③ 가방을 들어 주겠다는 영옥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으로 보아 영희가 씩씩하고 자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제법이다. 여길 혼자 다 오고.’라는 영옥의 대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03 ㉔은 영희가 다운 증후군이 있지만 타인에게 의존적이지 않고 자기 짐은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자립심 있는 성격을 지니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그림 도구가 망가질까 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으로 연기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4 영희가 그린 그림은 가족 간의 사랑을 확인하고, 영희와 영옥의 상처가 치유될 가능성과 화해의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가)에서 정준은 영희의 그림을 본 감동, 영옥을 그리
위하며 많은 그림을 그렸을 영희에 대한 안쓰러움으로 인
해 눈물을 흘린다.
- ② (가)에서 영희는 ‘외로우면 그랬지. 영옥이 보고 싶을
때마다.’라고 하며 창작의 원천이 그리움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 ③ (나)에서 그림에 제목이 없다는 정준의 말에 영희가 ‘영
옥이 모르게. 나중에 놀라게.’라고 답한 것에서 앞으로 영
옥을 위한 깜짝 이벤트가 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 ⑤ (다)에서 영희는 그림에 제목을 붙이는데, ‘대부분 사람
들의 이름’이다. 이는 영희가 그림을 통해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05 정준은 버스에 영희의 그림을 전시하여 영옥이 언니 영희
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길 바라고 있다. 영희와 영옥이 다
투어 사과를 주고받아야 할 상황은 아니다.

06 정준은 영희의 그림 실력에 놀라는 한편 영희가 앞으로 그
림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영희를 ‘새’에 빗대어 비유적으로 표현하였다.

| 채점 기준 | 배점 |
|--|----|
| ‘새’의 의미와 표현 방법을 정확하게 밝히고, 정준이 바 라는 영희의 삶의 모습을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 5점 |
| ‘새’의 의미와 표현 방법 중 하나를 밝히고, 정준이 바라 는 영희의 삶의 모습을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 3점 |
| ‘새’의 연관념만 단편적으로 언급한 경우 | 1점 |

07 ㉠, ㉡는 카메라가 영희의 그림을 다 보여 주지는 않도록
지시하고 있다. 이는 독자(시청자)의 호기심을 유발하여
(㉢) 영희의 그림에 주목하게 만들고, 영희의 그림이 후에
공개됐을 때의 감동을 더하기 위한 장치(㉣)이다.

08 <보기>에서는 ‘가슴이 저릿해졌다’를 통해 영희의 말을 들
은 정준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에 비해
[A]에서는 ‘(눈물을 살짝 닦고~)’와 같이 행동으로만 제
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보기>에서는 ‘스케치북을 넘기며 영희 그림을 한참 보
다가’와 같은 서술을 통해 인물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고,
[A]에서는 ‘(그림 보고 나서 다시 영희를 보며)’와 같이 지
시문을 통해 인물의 행동을 지시하고 있다.

③ [A]에서는 ‘(눈물을 살짝 닦고, 다시 영희의 얼굴을 보
다가, 다시 그림을 본다.)’와 같이 인물의 행동을 지시하고
있다. 인물의 심리를 묘사하고 있지 않다.

④ [A]에서는 인물의 내적 독백 장면이 드러나지 않는다.

⑤ [A]는 서술자가 없는 극 갈래이고, <보기>는 작품 외부
의 서술자에 의해서 사건이 서술되고 있다.

09 (다), (라)에는 영옥의 대사 효과음(E.)을 통해 영희가 영
옥에 대한 그리움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는 점, 그림을
통해 영옥이 알게 된 영희의 외로움 등을 전달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점프 컷을 통해 급격한 장면 전환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는 영옥의 감정 변화와 깨달음, 감동을 극적으로 보여
주고 독자(시청자)로 하여금 드라마에 몰입하게 만드는 역
할을 할 뿐 앞으로 벌어질 사건을 암시하고 있지는 않다.

② 제시된 장면에서 사용된 소품은 영희가 그린 그림이다. 영
희가 세상과 소통하는 매개체이자 영희와 영옥 사이의 화
해의 매개체로 갈등을 치유하는 기능을 하고 인물에게 감
정 변화를 겪게 하지만, 성격 변화 과정과는 관련이 없다.

③ (나)에서는 낮이라는 배경이 제시되고 어두운 버스 안
에서 스위치를 켜는 모습이 나타나긴 하지만 인물의 심리
적 갈등 상황이 부각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④ 제시된 장면은 인물의 대사보다는 지시문과 해설 중심
으로 구성되어 있다.

10 <보기>는 카메라의 시선(시청자가 보는 시선)이 특정 인
물의 시선과 일치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다. 영옥의 눈으로
는 영희의 그림을 볼 뿐, 버스 한쪽에 주저앉아 엉엉 우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없으므로, ㉡에서 시청자가 보게 되
는 화면은 영옥의 시야에 들어온 시각 정보와 일치하는 것
으로 볼 수 없다.

11 정준은 영옥이 영희의 그림을 혼자 보며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밖에서 기다린다. 이는 정준의 배
려의 자세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영옥은 영희의 외로움을 알게 되고 언니를 외롭게
둔 스스로를 자책한다.

③ 영옥이 마지막으로 보는 그림은 혼자 있는 자신의 모습
과 자신을 바라보는 영희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다. 영옥은
자신만을 생각하는 동생을 영희가 그리워하고 계속 사랑
해 왔음을 깨닫고 감동과 자책감에 오열하고 있다.

⑤ 영옥은 ‘영옥, 영희 없는 고독을 좋아하다’, ‘언니 영희, 내 동생 영옥을 사랑하다’와 같은 그림의 제목을 보며 자신에 대한 언니의 그리움과 사랑의 감정을 깨닫게 되어 미안함과 슬픔, 자책감 등을 느끼고 있다.

작품 4 파초

본문 32쪽

01 ② 02 ③ 03 ④ 04 ① 05 ③

06 예시 답안 기르던 소를 팔고 사 간 사람이 잡으면 그 고기를 사다 먹는 것이나, 정성껏 기르던 파초를 돈을 받고 파는 것 모두 대상과의 관계보다는 대상의 물질적 가치만을 중시하는 가치관을 보여 준다. 글쓴이는 이해타산보다는 자연물의 심미적 가치와 대상과의 정서적 관계를 더 중시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01 이 글은 자연물인 ‘파초’에 대한 친밀감을 바탕으로 이해타산을 초월한 문인의 풍류를 그리고 있다. 글쓴이가 파초를 좋아하는 이유도 파초로 인해 자연을 좀 더 가깝게 느낄 수 있기 때문이므로, 이 글은 자연과의 친밀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③ 이 글은 ‘파초’에 대한 ‘나’와 앞집 사람의 가치관 차이를 통해 세태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파초는 소재로서 기능을 할 뿐 글쓴이와 동일시되지 않으며, 글쓴이가 파초를 본받고자 하는 부분 또한 나타나 있지 않다.

④ 이 글은 덤덤하고 고백적인 문체를 통해 글쓴이의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글쓴이는 파초와 함께 지내고 싶은 것이지 세속을 떠나 이상을 추구하려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글쓴이는 파초를 키우며 자연을 즐기고자 할 뿐 글쓴이의 내면적 갈등이나 이에 대한 극복 의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02 이 글은 파초에 대한 글쓴이의 애정이 드러난 수필이다. (마)에서 ‘소를 길러 일을 시키고 늙으면 팔고 사 간 사람이 잡으면 그 고기를 사다 먹고 하는 우리의 습관’을 통해 물질적 가치를 우선하는 우리 세태를 안타깝게 바라보는 시선이 드러나기는 하지만, <보기>의 ㄴ에 제시된 수필의 특성과 관련하여 볼 때 수필 형식을 활용하여 세태에 대한 통렬한 비판을 목적으로 쓴 글이라기보다 일상에서 파초를 기르며 느낀 글쓴이의 생각을 솔직하게 특별한 형식 없이 써 내려간 글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은 파초를 기르며 겪은 글쓴이의 경험과 정서, 취미, 가치관 등이 글의 재료가 되고 있다.

②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폭염’이나 ‘비’가 이 글에서는 오히려 파초가 지닌 아름다움, 정취, 가치 등을 이끌어 내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에서 글쓴이의 개성을 느낄 수 있다.

④ 이 글은 파초를 사다 기르며 느낀 정취와 파초를 팔라고 온 앞집 사람과 있었던 일을 특별한 양식 없이 자연스럽게 쓴 글이다.

⑤ 이 글은 파초를 기르며 생긴 글쓴이의 일상의 평범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그 속에 파초와의 인연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과 물질적 가치보다는 인연과 정신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글쓴이의 철학이 담겨 있다.

03 이 글에서 글쓴이는 파초에 대한 애정이 깊어 곧 죽더라도 끝까지 키우겠다는 생각을 유지한다. 따라서 파초의 죽음에 대비하는 글쓴이의 모습은 이 글에 나타나 있지 않다. 또한 파초가 죽기 전에 오 원을 받아 챙기자는 앞집 사람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파초와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모습에서 현실의 이해타산을 초월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나’는 두 여름을 함께 보냈고 이제 꽃을 피운 파초를 팔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러한 태도에서 ‘파초’와의 교감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② ‘나’가 파초를 팔라는 ‘앞집 사람’의 제안을 거절한 것은, ‘오 원’의 경제적 이득을 포기하고 ‘파초’와의 정서적 교감을 선택했음을 의미하며, 이는 ‘파초에 대한 애정’이라는 주제를 드러내는 것이다.

③ 앞집 사람은 파초가 효용 가치를 다했으니 돈을 받고 파초가 죽기 전에 팔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통해 대상과의 관계보다는 이해타산을 중시하는 가치관을 지닌 인물임을 알 수 있다.

⑤ 파초 아래에서 파초의 원산지인 남국의 분위기를 느끼는 것은 <보기>의 심미적 감상의 태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04 (라)에서 글쓴이는 파초가 꽃을 피우고 나면 죽기 마련이니 팔라는 앞집 사람의 말에 ‘생각하면 고마운 말이다.’라며 앞집 사람이 자신을 위해 해 주는 말이라고 이해하고는

있으나 팔 마음이 들지 않아 거절한다. 반가운 기색을 보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05** ㉠과 ㉡은 글쓴이가 파초를 좋아하는 이유에 해당한다. 또한 ㉠과 ㉡ 모두 파초가 낭만적 분위기를 조성해 파초의 정취를 즐기는 글쓴이의 모습을 드러낸다. 따라서 ㉠과 ㉡은 모두 파초가 지닌 긍정적 속성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은 ‘파초’가 그들을 만드는 모습이 맞지만, ㉡은 앞 문장에서 빗방울을 통기어 소리를 낸다고 하였으므로, 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파초가 비 맞는 장면에 대한 묘사라고 봐야 한다.
- ② ㉡의 뒤 문장에서 글쓴이는 ‘폭염’이 아니라 자신을 서늘하게 해 주는 ‘비’를 기다린다고 하였으므로 ㉡을 ‘폭염’을 기다리는 이유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③ ㉠은 촉각과 시각이 연결되어 있고, ㉡은 시각과 촉각이 연결되어 있을 뿐 촉각이 시각으로 전이된 표현으로 볼 수 없다. 감각의 전이는 하나의 대상을 그 대상이 본래 가지고 있는 감각에서 다른 감각으로 바꾸어 표현하는 것이다.
- ④ ㉠은 파초를 통해 폭염 속에서도 푸르고 싱그러운 그들을 만나는 경험을, ㉡은 비에 젖지 않으면서 비가 내리는 정경을 만끽하는 경험을 통해 글쓴이의 행복감과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과 ㉡ 모두 감각적 경험이 정서를 자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06** 기르던 소를 팔거나 고기를 먹는 것, 정성껏 기르던 파초를 돈을 받고 파는 것 모두 대상과의 관계를 중시하기보다는 대상의 물질적·금전적 가치만을 중시하는 가치관을 보여 준다. 글쓴이는 이해타산보다는 자연물의 심미적 가치와 대상과의 정서적 관계를 더 중시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 채점 기준 | 배점 |
|---|----|
| ‘소’와 ‘파초’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의 공통점을 정확히 밝히고, 이와 비교하여 글쓴이의 가치관을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 5점 |
| 글쓴이의 가치관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 3점 |
| 글쓴이의 가치관을 단편적으로 언급한 경우 | 1점 |

대단원 평가 문제

본문 34쪽

- 01** ③ **02** ④ **03** ④ **04** ① **05** ② **06** ④
07 ⑤ **08** ③ **09** ① **10** 예시 답안 자연물에 화자의 감정을 불러넣는 감정 이입을 통해 갈 곳을 잃고 방황하는 화자의 슬픔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11** ④ **12** ②
13 ④ **14** ② **15** 예시 답안 • 육체적 측면: 어머니의 다친 다리가 아직 회복되지 않음. •정신적 측면: 어머니의 마음속 상처와 한이 치유되지 못함. **16** ⑤ **17** ③ **18** ②

- 01** (가)는 서정 갈래인 현대시로 시어의 선택과 배열로 운율을 드러내고, 다양한 표현 방식을 활용하여 이미지를 구체화함으로써 화자의 감정이나 정서를 표현한다. 그런데 (나)는 극 갈래인 드라마 대본으로 서술자의 개입 없이 인물의 대사와 행동으로 사건이 전개된다.

- 02** (가)의 화자는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아서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라고 하며 복숭아나무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하지만 이를 복숭아나무가 외로운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으로 인식하였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이라는 표현은 복숭아나무를 피상적으로 관찰한 것으로, 복숭아나무가 복잡한 내면을 가졌을 것이라는 부정적 선입견을 나타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 ② (가)의 화자는 ‘나는 웬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시다’라며 대상에 대한 거리감과 대상에 대한 선입견, 편견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가)에서 화자가 새롭게 인식한 것은 흰꽃과 분홍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으로,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아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이라며 대상의 본질, 참모습을 발견하고 있다.
- ⑤ 화자는 복숭아나무의 진정한 모습을 보고 대상(타인)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교감함으로써 대상과의 거리감이 사라짐을 보여 주고 있다.

- 03** 영옥에게 ‘영희의 그림들’은 언니인 영희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영희가 느꼈을 외로움을 알게 된 영옥에게 슬픔과 자책감, 미안함 등을 느끼게 한다. 영희의 그림에 담긴 추억들은 영희에게 소중한 순간으로, 영옥이 잊고자 했던 순간들이 아니다.

04 (가)에는 작물과 잡풀, (나)에는 큰 생물들(개, 소, 봉새 등)과 작은 생물들(이, 달팽이, 메추라기 등)이 대조적 소재로 사용되어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가)에는 풀독이 오른 이후의 인식 변화가 나타나 있으나 (나)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나)에만 해당하는 설명이다.

④ 소설에 해당하는 설명이며 (가), (나)는 수필이다.

⑤ (나)에서는 ‘열 손가락을 한번 깨물어 보’라는 행동을 요구함으로써 자신의 말을 이해시키려 한다. (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05 ‘아무 데나 나는 풀도 이름이 없는 풀은 없다고 한다.’를 통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는 저마다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06 [A]에서 글쓴이는 상대방의 인식의 문제점을 간파한 것일 뿐, 상대방의 의도를 간파한 것은 아니다. 또한 [B]에서 글쓴이가 ‘메추라기와 봉(鵬)새를 평등하게 보’라고 말한 것은 사물의 본질을 볼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B]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를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본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이다.

07 (가)의 ‘나’는 모든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고 동등하게 인식하는 생태주의적 관점을 지니고 있고(㉠), (나)의 ‘나’는 사물에 대하여 판단할 때 선입견을 버리고 본질을 생각해야 하며,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소중하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오답 풀이

㉠: 오직 인간에게 이로운지 해로운지만을 중심으로 어떤 상황이나 사태를 파악하는 인간 중심적 관점을 지니고 있다.

㉡: ‘이’가 ‘미물’, 즉 작고 변변치 않은 짐승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덩치가 큰 짐승’과 구별하고 있다.

08 (가)의 2연에서 ‘오늘은 / 또 몇 십 리 / 어디로 갈까.’와 같이 의문문 형태의 종결 표현을 통해 유랑하는 화자의 처지와 이러한 처지에서 느끼는 막막함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와 (나)는 모두 자신의 처지를 고백하고 있으며 시선의 이동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② (가)는 ‘새엣소’에서 과거형 시제가 사용되었으며 역동감과 거리가 멀다. (나)는 ‘하네’, ‘되라네’, ‘붙으라네’ 등에서 현재형 시제를 확인할 수 있지만 역시 역동감과 거리가 멀다.

④ (가)는 ‘나’와 대조적 처지의 대상(‘기러기’)이 드러나긴 하지만 이미지의 대비는 아니며, (나)에는 정착의 이미지, 유랑의 이미지를 가진 시어들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섹채어의 대비라고 보기는 어렵다.

⑤ 마지막 부분에서 시의 도입을 변주, 반복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나)이다.

09 ‘산’과 ‘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라서 떠도는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는 공간으로 이를 통해 고향을 상실한 화자의 비애가 나타나지만 화자가 타향살이를 강요당하는 현실이나 비판적인 태도는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② ㉠은 평안북도 정주군 곡산면이라는 실제 지명을 사용하고, 차도 가고 배도 가는 곳이라고 장소의 특징을 밝히고 있다. 즉 ㉠의 시적 공간은 물리적으로 갈 수는 있지만 화자가 가지 못하는 처지에 있음을 드러낸다.

③ ㉡은 어떤 길로 갈 것인지 선택할 수 없는 절망적 상황, 화자의 삶이 방향의 연속임을 드러내는 공간으로, 화자의 유랑민으로서의 삶의 비애가 드러난다.

④ ㉢에서 ‘뱃길이라 서울 사흘 목계 나루에 / 아흐레 나흘’ 장을 찾아가서 ‘박가분 파는’ ‘방물장수’에 대한 표현은 목계 장터의 공간적 속성을 암시하고, 정착할 수 없는 화자의 처지와 연결된다.

⑤ ㉣에서 ‘산 서리 맵차거든’, ‘물여울 모질거든’은 고달픈 현실을 의미하는 표현이다. 세상살이가 이렇더라도 화자는 ‘풀 속에 얼굴 묻고’, ‘바위 뒤에 붙으’려 하면서 운명에 순응하며 살아가겠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10 (가)의 화자는 ‘가마귀’가 ‘울며’ 밤을 새는 모습에 자신의 슬픈 심정을 이입하여 표현하고 있다.

| 채점 기준 | 배점 |
|---|-------|
| ‘감정 이입’이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고, 화자의 슬픔의 정서를 표현하기 위한 것임을 밝혀 쓴 경우 | 5점 |
| 화자의 슬픔의 정서를 표현하기 위한 것임을 밝혔으나 ‘감정 이입’이라는 용어를 포함하지 못한 경우 | 3점 |
| 맞춤법이나 띄어쓰기가 잘못된 경우 | -0.5점 |

- 11 ㉠은 공중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존재로 화자의 부러움의 대상이자 화자의 소망이 투영된 대상이며, ㉡는 방랑과 유랑의 이미지로 화자의 유랑의 삶을 상징하는 자연물이다.

오답 풀이

- ① ㉡는 화자를 부러워하는 존재가 아니다.
 ② ㉠은 화자가 말을 건네는 대상이고, ㉡는 화자가 말을 건네는 존재가 아니다.
 ③ ㉠은 갈 길이 있는 존재로 화자가 부러워한다는 점에서 지향하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는 방랑과 유랑의 이미지로 화자의 삶을 상징적으로 드러낼 뿐 성찰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다.
 ⑤ ㉡는 화자와 물아일체를 이루는 존재가 아니다. 화자로 하여금 떠돌이 삶의 숙명을 느끼게 하는 존재이다.

- 12 ‘방물장수’는 방랑하는 삶을 사는 존재로, ‘박가분’은 이러한 사람들이 목계 장터와 같은 곳을 돌아다니며 파는 물건이다. 따라서 두 시어가 대비된다는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나)는 ‘-하네’, ‘-라네’ 등의 어미를 반복 활용함으로써 운율을 형성하고 시상 전개에 리듬감과 생동감을 주고 있다.
 ③ (나)는 ‘~은 날더러 ~이 되라 하네’라는 유사한 통사 구조가 반복되면서 떠돌이 민중들의 고단한 삶과 방랑과 정착 사이의 갈등을 그려 내고 있다.
 ④ (나)는 4음보의 전통적 율격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으나 ‘민물 새우／끓어 넘는／토방 뿔마루’에서와 같이 3음보로 변주를 보이면서 민요의 전통적 율격을 계승하고 있다.
 ⑤ (나)는 토속적인 정감을 불러일으키는 시어를 통해서 우리 민중의 삶과 정서를 떠올리게 하고 있다.

- 13 이 글의 서술자인 ‘나’는, 어머니가 다리 수술의 후유증으로 인해 전쟁 때 죽은 아들에 대한 환각 증세로 괴로워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오빠의 죽음과 오빠의 화장과 관련한 이야기(과거)를 떠올리고 있다. 그리고 어머니가 자신을 화장하여 뿌려 줄 것을 당부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작품이 마무리되고 있다. 따라서 서술하는 시간과 서술되는 시간이 일치하지 않는(과거의 상황) 서술 방식이 드러나 있다.

오답 풀이

- ① 제시된 부분에서는 배경의 묘사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② 이 글에서 긴박한 분위기의 조성은 오빠의 죽음과 관련한 장면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오빠의 죽음이라는 하나의 사건이 나타날 뿐 유사한 사건들이 나열되고 있지는 않다.
 ③ 이 글은 주인공인 ‘나’가 자신의 내면 심리와 어머니를 관찰한 내용을 서술한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서술자가 이야기의 내부에 존재한다.
 ⑤ 어머니는 아들의 죽음과 관련하여 다양한 모습을 보여 주지만 이를 인물의 성격이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인물은 분단의 비극을 극복하고자 하고 있으므로 이를 무력한 모습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14 ㉠에서 ‘몹쓸 일’은 ‘아들이 눈앞에서 죽어 가는 상황을 보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은 과거에 눈앞에서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이를 환각으로 또 보는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한 ‘나’의 안타까움이 나타난 표현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이 글에서 어머니가 아들을 살리기 위해 국군에게 목숨을 빌었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 15 ㉠은 육체적 측면과 정신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육체적으로는 (가)에서 나타나는 다리 부상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황임을 의미하고, 정신적 측면으로는 민족의 비극적 전쟁으로 인해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한과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 채점 기준 | 배점 |
|------------------------------------|-------|
| 육체적 측면과 정신적 측면을 모두 바르게 서술한 경우 | 5점 |
| 육체적 측면과 정신적 측면의 둘 중 하나만 바르게 서술한 경우 | 3점 |
| 맞춤법이나 띄어쓰기가 잘못된 경우 | -0.5점 |

- 16 (나)는 ‘파초’와 관련한 경험과 이에 대한 깨달음을 다루고 있는 수필이다. 파초와 관련한 개인적 경험과 감상을 드러낼 뿐 비평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글의 목적이 우리의 문화를 개선하는 데 있다고 보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 17 모질지 못하고 인간적인 김 주사의 면모를 해학적으로 드러낸 부분이다. 비판적으로 드러내고 있지 않다.

- 18 <보기>는 '구름'에게 '어디에서 쉬리라던고,'라고 표현한 부분에서 '구름'을 사람에 비유하는 의인법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에서도 '화초들은 입을 다문 듯 우울할 때'에서 화초들을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으므로 <보기>에만 의인법이 쓰였다고 할 수 없다.

오답 풀이

- ① (나)에서는 '빗방울을 통기어', <보기>에서는 '후두기는' 이라고 하여 청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파초에 비가 내리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③ (나)에서 '소를 길러 일을 시키고 늙으면 팔고 사 간 사람이 잡으면 그 고기를 사다 먹고 하는 우리의 습관이라'고 하며 이해타산적 가치관에 따른 행위를 하는 것이 보편적인 세태임을 인정하면서도, 이와 같은 태도를 지닌 앞집 사람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 <보기>에는 화자의 성찰과 자연에 교감하는 모습이 나타날 뿐 세태에 대한 안타까움은 나타나 있지 않다.
- ④ 심미적 태도란 아름다움을 살피 감상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나)의 '은은히 빗방울을 통기어 주렴 안에 누웠으되 듣는 이의 마음 위에까지 비는 뿌리고도 남는다.'와 같은 파초에 대한 감각적 서술은 글쓴이의 자연물에 대한 심미적 감상 태도가 드러나는 부분이다. <보기>의 화자는 정처 없이 자연을 떠도는 사람으로, 1연에서 '어디에서 쉬리라던고'는 '구름'에게 묻고 있는 것이지만 화자 자신에 대한 물음으로 화자의 삶에 대한 성찰이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⑤ (나)에서는 파초가 내년에 죽더라도 끝까지 키우겠다는 글쓴이의 생각과 파초를 기르면서 느낀 정서적 교감을 드러내고 있고, <보기>에서는 파초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를 매개로 창을 열고 푸른 산을 마주하며 자연과 교감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2 문학 작품의 수용과 생산

★ **확인 문제**

본문 44쪽

- 1 ③ 2 (1) × (2) ○ (3) ○ 3 (1) 감상 (2) 비평 (3) 감상 (4) 비평
4 ④ 5 (1) ○ (2) × (3) ○ 6 ㉠, ㉡, ㉢, ㉣, ㉤

(1) 문학 작품의 내용과 형식

작품 1 속미인곡

본문 46쪽

- 01 ④ 02 ② 03 ② 04 ④ 05 ② 06 ⑤
07 ④ 08 ④ 09 ③ 10 예시 답안 '낙월'은 임에 대한 소극적 사랑을 상징하는 반면에 '구준비'는 임에 대한 적극적인 사랑을 상징한다. '범나비'도 임에 대한 소극적 사랑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낙월'과 상징적 의미가 유사하다.

- 01 '반기시는 늦비치 네와 었디 다투신고', '하늘히라 원망하며 사름이라 허물헨라'처럼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부정적 처지를 강조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이 작품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지만, 화자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지는 않는다.
- ⑤ 을녀가 임과 함께 했던 때를 회상하는 내용이 나오기는 하지만 임에 대한 을녀의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 02 ㉠은 작가의 처지를 대변하는 중심 화자이자, 주제 구현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하는 인물(을녀)이다. 또 ㉡의 질문에 응하여 하소연하면서 작품의 정서적 분위기를 주도한다. ㉢은 작품의 전개와 결말을 위한 기능적 역할을 하는 보조 인물(갑녀)로, ㉠에게 질문을 던져 하소연을 이끌어 내며, 을녀를 위로한다.

- 03 '이리야 교퓌야 어즈러이 호뎃편디'는 자신이 생각하는 임과 이별하게 된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임금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표현한 것은 아니다. 「속미인곡」은 임금에게 버림받은 불행한 여인을 화자로 설정하여, 임금과 이별한 자신의 비극적 심정과 임금을 그리워하는 정을 그리고 있다.

| 채점 기준 | 배점 |
|--|-------|
| '낙월'과 '구준비'의 상징적 의미를 차이점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범나비'의 상징적 의미도 서술한 경우 | 3점 |
| '낙월', '구준비', '범나비'의 상징적 의미를 두 가지만 서술한 경우 | 2점 |
| '낙월', '구준비', '범나비'의 상징적 의미를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 1점 |
| 문맥에 어긋나거나 맞춤법에 맞지 않은 경우 | -0.5점 |

작품 2 천변 풍경

본문 50쪽

01 ④ 02 ④ 03 ④ 04 예시 답안 서울 아이들로 인해 창수는 창피함과 모욕감을 느끼게 된다. 이로 인해 창수는 서울(천변)이라는 공간에 대해 지녔던 호기심을 잃고 서울 생활을 두렵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05 ② 06 ④ 07 ⑤ 08 ①

01 이 글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즉 작품 밖의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뿐 아니라 그의 내면까지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오답 풀이

- ① 인물 간의 대화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인물의 분열된 인식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 ② 인물이 과거에 했던 생각이 나타나기는 하지만(글 전체), 이를 통해 현재 사건의 원인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 ③ 섬표를 많이 쓴 비교적 긴 문장을 사용하여 사건의 상황과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⑤ 작품 속 특정 인물, 창수의 시선에서 관찰한 내용과 그의 내면을 서술하고 있다.

02 이 글은 '카메라의 눈'이라는 서술 기법이 쓰였는데, 이는 영화의 카메라가 풍경을 훑고 지나가는 것처럼 등장인물의 눈에 비친 풍경을 시선의 이동에 따라 그대로 전달하는 기법이다. [A]는 바로 이런 방식으로 서술된 부분으로, 이를 통해 창수의 눈에 비친 천변의 모습과 그곳에 사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압축하여 보여 주고 있다.

03 [B]의 장면은 창수가 서울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는 부분으로, 섬표를 빈번하게 사용한 긴 문장을 통해 그 상황을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섬표는 문장을 길게 만드는 데 활용된다. 그런데 이렇게 긴 문장은 호흡이 늘어지게 되므로, 상황의 긴박함을 드러내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
- ⑤ 이 장면에는 인물과 인물의 갈등이 나타날 뿐, 이들의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04 서울 아이들은 창수에게 서울 생활이 만만치 않음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창수에게 모욕감과 창피함을 줌으로써, 서울에 대한 창수의 호기심은 두려움으로 바뀌게 된다.

| 채점 기준 | 배점 |
|---|-------|
| 서울 아이들로 인해 창수가 어떤 심리를 갖게 되었는지, 이들로 인해 서울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정확히 밝힌 경우 | 5점 |
| 창수의 심리와 창수의 인식 변화 중 하나만 정확히 서술한 경우 | 3점 |
| 70자에서 ±10자 초과인 경우(띄어쓰기 제외) | -0.5점 |
| 문맥에 어긋나거나 맞춤법에 맞지 않은 경우 | -0.5점 |

05 시골에서는 한곳에서 비슷한 풍경만을 보아야 했으나, 서울에는 다양한 볼거리가 있다는 점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이는 도시에서 성공해 귀향하겠다는 창수의 생각을 드러낸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오답 풀이

- ① 창수는 천변을 오가는 사람들이 서울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잘나 보였는데, 이는 서울 사람들을 동경하는 창수의 태도를 나타낸 것이다.
- ③ 창수는 본 적 없는 '승강기'를 머릿속으로 떠올리고 있는데, 이는 도시 문물에 대한 창수의 호기심을 나타낸 것이다.
- ⑤ 창수는 아버지가 자신을 고향으로 데려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서울 생활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낸 것이다.

06 이 글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되고 있는데, 특히 창수에게 초점을 맞추어 그의 행동과 내면 심리를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07 창수는 '담배 심부름'을 잘못하여 난처해지고 주인 영감에게 꾸지람을 들으며 자신이 얼마나 어리숙한지 깨닫게 된다. 서울 생활이 녹록치 않음을 깨달은 창수는 부모님을 졸라 서울에 올라온 것을 후회하게 된다. 그러나 한약방 취직과 관련하여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지는 않다.

- 08 창수는 담배 심부름이 자신의 서울 생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긴장을 놓지 않고 그 일을 수행하였다. ㉠은 무사히 큰일을 치렀다는 안도감을 나타낸 것으로, 일을 잘못 처리했다는 불안감을 나타낸 것은 아니다.

(2) 문학 작품의 감상과 비평

작품 1 즐거운 편지

본문 53쪽

- 01 ④ 02 ④ 03 ⑤ 04 예시 답안 '그대'처럼 동일한 시어를 반복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진실로 진실로'처럼 같은 시어를 연이어 반복하고 있으며, '~을 믿는다'처럼 유사한 구조의 문장을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05 ① 06 ⑤ 07 ⑤

- 01 이 작품은 행을 나누지 않는 산문 형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는 마치 편지처럼 화자의 정서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화자는 자연 현상에 빗대어 화자의 사랑이 지닌 속성을 나타낼 뿐, 자연과 인간을 대비하고 있지는 않다.
② 화자의 사랑이 변함없음을 나타낼 뿐, 내적 갈등이나 그것의 해소 과정을 나타내지는 않고 있다.
⑤ 하강적 이미지를 활용해 기다림의 고통을 형상화하고 있으며, 사랑하는 이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 02 [A]에서는 그대를 사랑하는 일을 '사소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그대에 대한 사랑이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직유법)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것이어서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실은 매우 소중한 일임을 강조하기 위해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반어법). 김소월의 「먼 후일」의 화자는 겉으로는 그대를 잊었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당신을 결코 잊을 수 없었음을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역설적 표현을 통해 낙화가 오히려 새로운 결실을 가져온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② 역설과 도치의 표현을 통해 모란이 피기를 기다리는 간절한 화자의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③ 의인법과 은유법을 통해 눈이 사라진 사월 골짜기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⑤ 설의적 표현을 통해 가난한 사람이 겪는 외로움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03 '그 사소함'은 자신이 오랫동안 그대를 생각하고 사랑해왔음을 표현한 것으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무척 가치 있고 소중한 것임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는 '그대가 앉아 있는 배경'으로부터 화자를 벗어나게 하는 방법은 아니다.

- 04 이 작품은 산문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운율이 느껴진다. 이 운율은 반복을 통해 형성되는데, 이 시에서는 시어와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기 때문이다.

| 채점 기준 | 배점 |
|--|-------|
| 시어의 반복과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으로 운율이 형성됨을 밝힌 경우 | 5점 |
| 시어의 반복과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 중 한 가지만 명확하게 밝힌 경우 | 3점 |
| 50자에서 ±10자 초과인 경우(띄어쓰기 제외) | -0.5점 |
| 문맥에 어긋나거나 맞춤법에 맞지 않은 경우 | -0.5점 |

- 05 <보기>에서 작가는 이 시에 자신의 사랑이 언젠가 끝날 수 있음을 나타냈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내 나의 사랑을 한없이 잊닿은 그 기다림으로 바꾸어 버린 데 있었다.'는 유한한 사랑을 영원한 기다림으로 승화시키겠다는 의미를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06 ㉠의 자연 현상은 변치 않고 순환하는 자연의 섭리를 나타낸 것으로, 이처럼 자신의 사랑, 즉 그대를 기다리는 자세는 변함 없이 지속될 것임을 형상화한 것이다.

- 07 '다만'은 그대에 대한 나의 기다림의 자세를 강조하기 위해 활용한 시어로, 그대와 의 재회에 대한 화자의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 ① '항상'은 그대를 사랑하는 일이 늘 변함없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대에 대한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한 시어이다.
② '한없이'는 끝이 없다는 의미로, 그대의 괴로움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시어이다.
③ '진실로'는 그대에 대한 자신의 사랑 고백이 참임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시어이다.
④ '반드시'는 사랑도 언젠가는 끝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시어이다.

작품 2 엽박자 D

본문 56쪽

- 01 ⑤ 02 ② 03 ② 04 예시 답안 엽박자가 공연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공연의 재미를 더해 주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해서이다. 05 ① 06 예시 답안 획일화하지 않아도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 07 ⑤
08 ② 09 ⑤

01 고등학교 동창인 우리들은 엽박자 D에 대해 이야기를 자주 했는데, 엽박자 D를 재미있는 추억거리로만 여겼다. 이는 엽박자 D라는 별명으로 인해 고통받았을 친구의 처지를 공감하기는커녕 오히려 상처를 이야깃거리로 삼는 무심정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02 이 글은 1인칭 관찰자인 ‘나’가 고등학교 학창 시절에 있었던 사건을 회상하며, 엽박자 D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④ 과거 사건을 통해 현재 사건의 발생 원인을 드러내기는 하지만, 과거와 현재의 사건을 병치하고 있지는 않다.
⑤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행동뿐 아니라 심리까지 서술하고는 있지만, 이 서술자는 이야기 속에 있다.

03 엽박자 D의 노래는 독창을 할 때는 크게 이상하지 않았지만 합창을 할 때에는 다른 사람들의 노래와 어울리지 못하고 문제를 일으켰다. 엽박자 D가 자신의 노래가 독창보다 합창에 어울린다고 생각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04 엽박자 D는 학창 시절에 자신의 엽박자 때문에 축제의 공연을 엉망으로 만들었고, 이로 인해 음악 선생에게 크게 혼이 난다. 그런 엽박자 D가 현재 공연에서 엽박자 음악을 들려주는데 ④의 뒤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면 관객들이 그 공연을 보고 재미있어 한다. 따라서 엽박자 D가 ④와 같은 공연을 기획한 것은 엽박자의 긍정적 효과를 보여 주기 위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 채점 기준 | 배점 |
|-------------------------------------|-------|
| ‘엽박자’가 공연에 재미를 주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밝힌 경우 | 5점 |
| ‘엽박자’가 공연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만 언급한 경우 | 3점 |
| 문맥에 어긋나거나 맞춤법에 맞지 않은 경우 | -0.5점 |

05 ㉠은 엽박자의 공연을 재미있어 하던 관객들이 공연이 끝

나고 양코르곡을 기다리기 위해 조용히 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06 22명의 음치가 내는 합창 소리는 서로의 소리를 해치지 않고 노래를 망치지도 않았다. 이는 개개인이 저마다의 박자와 음을 내더라도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음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개개인의 다름이 지닌 가치, 즉 획일화하지 않아도 조화의 아름다움을 만들 수 있다는 주제 의식을 표현한 것이다.

| 채점 기준 | 배점 |
|--|-------|
| ‘획일화’와 ‘조화’라는 말을 활용하여 주제를 명확하게 나타낸 경우 | 5점 |
| 주제는 제대로 제시했지만, ‘획일화’나 ‘조화’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 3점 |
| 한 문장으로 서술하지 않은 경우 | -0.5점 |
| 문맥에 어긋나거나 맞춤법에 맞지 않은 경우 | -0.5점 |

07 엽박자 D는 공연을 통해 음치도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합창을 만들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 주려 하였을 뿐, 우리들이 오히려 음치일 수 있음을 알려 주려고 하지는 않았다.

08 우리들(과거의 합창 단원)은 20년 전 축제 때 불렀던 노래가 흘러나왔지만 노랫소리를 입 밖으로 내지 않고 립싱크만 하였다. 이는 음치들의 아름다운 합창을 들으며 과거에 음악 선생이 엽박자 D에게 입만 병긋거리게 한 것을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이제 자신들이 입만 병긋거림으로써 그에 대한 존중과 사과의 마음을 전달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09 ㉠에는 노래를 듣고 감동한 친구들의 반응이 나타나 있다. 이는 엽박자 D의 기획 의도, 즉 음치들이 부른 노래를 친구들에게 들려준 의도가 잘 구현되었음을 드러낸 것이다.

오답 풀이

- ① ㉠은 양코르 공연을 기획한 의도가 20년 전 친구들을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② ㉠은 양코르곡으로 나오는 합창이 음치이자 박치인 사람들이 부른 노래임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③ ㉠은 어둠 속에 들리는 음치들의 합창이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④ ㉡의 더블 더빙은 악기 연주가 노랫소리를 방해하지 않도록 노래 2절이 시작되자 연주를 멈추었는데, 이는 더블 더빙이 합창에 대한 정보를 이미 알고 있었음을 드러낸 것이다.

(3) 문학과 매체, 작품의 재구성·창작

작품 1 남한산성

본문 60쪽

- 01 ④ 02 ① 03 예시 답안 짧은 문장으로 속도감 있게 대화를 하도록 하여 두 인물의 갈등을 부각하도록 한다. / 클로즈업의 촬영 기법을 통해 인물의 대치 상황을 긴장감 넘치게 보여 준다. / 목소리의 강약, 표정 등으로 인물의 감정을 드러낸다.
- 04 ① 05 ① 06 ④

- 01 인조에게 임진년 명의 황제에게 받은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한 인물은 대제학이 아니라 부제학이다.

오답 풀이

- ① 인조는 S# 67에서 부제학이 말할 때 눈을 부릅뜨고, S# 73에서 김류가 말할 때도 화를 낸다.
- ② 상헌은 명길이를 왕을 적의 아가리 속으로 끌고 들어가려 한다고 말한다.
- ③ 명길이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청의 아가리 속이라도 들어갈 수 있다고 여긴다.
- ⑤ 김류는 나라가 인조의 것이므로, 항전과 화친의 결정은 인조가 해야 한다고 말한다.

- 02 [A]에서 화친을 할지 말지로 대답하는 상헌과 명길이는 모두 ‘눈물을 글썽이’고 있다. 이는 두 인물이 모두 진심을 다해 인조를 설득하고 있음을 드러내기 위한 행동 지시문이다.

- 03 원작과 [B]를 비교할 때, [B]는 원작과 달리 주고받는 말의 길이가 짧고, 인물의 얼굴을 클로즈업한 화면이 반복적으로 교차되고 있다. 또한 지시문을 통해 큰 목소리로 대사를 말하게 하고 눈을 감았다 뜨게 하는 등 발성과 표정까지 지시하고 있다. 이는 두 인물의 대립과 갈등, 격양된 감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이들 사이에 긴장된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한다.

| 채점 기준 | 배점 |
|-------------------------------------|-------|
| 원작을 각색할 때 고려한 점과 그 효과를 두 가지 제시한 경우 | 5점 |
| 원작을 각색할 때 고려한 점과 그 효과를 한 가지만 제시한 경우 | 3점 |
| 문맥에 어긋나거나 맞춤법에 맞지 않은 경우 | -0.5점 |

- 04 명길이는 칸이 삼전도에 오래 머물지 못할 것이므로, 서둘러 화친을 하지 않으면 문을 부수려 공격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상헌은 칸이 삼전도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떠날 것이므로, 먼저 화친을 제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두 사람은 모두 칸이 삼전도에 오래 머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로 삼고 있다.

- 05 ‘트래킹 샷’은 이동차나 레일을 따라 카메라를 움직이며 찍는 장면으로, 여기서는 서신의 내용이 칸의 목소리로 전달되는 화면에 서신에 가려졌던 인조의 옆모습이 서서히 보이도록 하고 있다. 이는 서신의 내용을 읽고 있는 인조의 표정을 극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활용한 촬영 기법이다.

- 06 ‘O.S.’는 서로 대치하는 두 인물 중, 한 인물의 어깨 너머로 상대 인물을 찍은 화면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기서는 신하들 어깨 너머에 비치는 인조의 모습을 화면에 나타내도록 한 것이다.

작품 2 흥보가

본문 63쪽

- 01 ② 02 ② 03 ① 04 ⑤ 05 ②는 가장 느린 장단으로, 별 기대 없이 박을 타는 흥보 부부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또 ④는 가장 빠른 장단으로, 신명나게 박을 타는 흥보 부부의 모습을 표현하여 긴장감과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 06 ④ 07 ⑤ 08 ③ 09 예시 답안 • 차이점: <보기>는 이 글의 내용과 달리 탐관오리에 의해 형제가 모두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 공통점: <보기>와 이 글 모두 ‘형제간 우애의 중요성’을 주제로 제시하고 있다.

- 01 이 글은 판소리로, 운문 투의 창과 산문 투의 아니리 부분이 교차되어 제시되고 있다. 또 구어 투와 사투리가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서민들이 사용하는 일상적 어투와 양반이 쓰는 한문 투 표현이 혼재되어 쓰이고 있으며 나열 등의 다양한 표현 방법으로 흥미를 더하고 있다. 이 글에는 박 속에서 동자 한 쌍이 나오는 등 전기적 요소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주인공(흥보)의 영웅적 면모를 부각하고 있지는 않다.

- 02 흥보는 아내에게 박 노래를 부르자고 제안하고, 아내가 부끄러워하자 노래의 뒷소리를 맡기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흥보는 굶고 있는 자식을 구급하기 위해 박을 타려 마음 먹었다.
- ③ 흥보는 박을 타서 박속을 끓여 먹고 바가지는 팔려고 하였다.

- ④ 홍보는 박 속에서 나온 동자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자 도망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 ⑤ 홍보는 고사를 인용해 강상에 뜬 배의 수천 석 쌀보다 자신이 지닌 박이 소중하다고 말했다.

03 ①은 박 노래를 부르려는 이유를 나타낸 것으로, 가난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맛을 내고 즐거움을 누리고 싶은 홍보의 마음을 드러낸 것이다.

04 ①은 복이 없는 사람을 이룰 때 쓰는 관용적 표현으로, 박을 타서 박속을 끓여 먹고 바가지는 팔 생각을 했는데, 박속이 기대와 달리 텅 비어 있어 크게 실망한 홍보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05 ㉡는 판소리 장단 중 가장 느린 장단으로, 별 기대를 지니지 않은 홍보 부부가 심드렁하게 천천히 박을 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는 판소리의 장단 중 가장 빠른 장단으로, 박을 탈수록 점차 신명이 난 홍보 부부의 모습을 나타내며 긴장감과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 채점 기준 | 배점 |
|--|-------|
| ㉡와 ㉣의 장단 속도를 바르게 밝힌 후,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정확히 밝힌 경우 | 5점 |
| ㉡와 ㉣ 중 한 부분의 장단 속도를 밝힌 후,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제시한 경우 | 3점 |
| 문맥에 어긋나거나 맞춤법에 맞지 않은 경우 | -0.5점 |

06 [A]에서 홍보는 장비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인 의리(형제애)를 강조하며, 형을 위해 기꺼이 대신 죽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이는 홍보가 장비의 마음을 움직여 놀보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한 말이다.

07 판소리의 '아니리'는 사건의 전개를 요약적으로 서술하고, 인물의 심리나 인물 간의 대화를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또 청중의 긴장을 완화하고, 창자가 호흡을 조절하면서 다음 창을 준비할 수 있게 해 준다. 다양한 장단을 통해 장면을 확대하거나 부연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은 창이다.

08 ㉠은 장비가 놀보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자세히 밝히기 위해서 한 말일 뿐, 놀보와 이미 만난 적이 있음을 알리려 한 말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은 박씨에 쓰인 글자는 제비가 놀보에게 하려는 말로, 놀보 부인은 이 글자를 보고 박 속에 좋지 않은 것이

있음을 직감한다.

② ㉠은 자신을 박 대신에 타라는 것으로, 절대 박을 타서는 안 된다고 여기는 놀보 부인의 생각을 드러낸 것이다.

④ ㉡는 놀보가 다리를 부러뜨린 제비를 장비가 사랑하고 있음과 놀보가 제비에게 해를 가한 내용을 나타낸 것으로, 장비가 놀보를 벌주려는 이유를 제시한 것이다.

09 <보기>는 고전 소설을 창의적으로 재구성한 「놀부연」으로, 원작과 마찬가지로 형제간의 우애라는 정신적 가치를 주제로 담고 있다. 그러나 결말 내용은 원작과 달리 형제가 모두 옥에 갇혀 고초를 겪는다.

| 채점 기준 | 배점 |
|--------------------------------------|-------|
| 내용상 차이점과 주제의 공통점을 모두 정확히 언급한 경우 | 5점 |
| 내용상 차이점과 주제의 공통점 중 한 가지만 정확하게 언급한 경우 | 3점 |
| 문맥에 어긋나거나 맞춤법에 맞지 않은 경우 | -0.5점 |

대단원 평가 문제

본문 66쪽

01 ⑤ **02** ④ **03** 예시 답안 [A]와 [B]에서 화자는 죽어 서라도 임을 만나는 상황을 가정하고, '범나비'와 '낙월'은 임을 사랑하는 화자의 분신을 의미한다. 이처럼 [A]와 [B]를 통해 화자는 임에 대한 간절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 **04** ⑤ **05** ⑤ **06** ④ **07** ② **08** ④ **09** ③ **10** 예시 답안 창수의 눈에 비친 천변의 다채로운 풍경을 실감 나게 재현하고, 당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사실적이고 생생하게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 **11** ⑤ **12** ③ **13** ③ **14** ④ **15** 예시 답안 명태는 우리 민족을, 고드름은 고통, 상처 등을 상징한다. 따라서 [A]는 우리 민족이 망국의 한으로 고통받고 있음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6** ④ **17** ③ **18** ③ **19** ② **20** 예시 답안 과거에 '나'는 음치가 합창을 망친다고 생각했으나, 지금은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울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다름과 차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전달한다. **21** ① **22** ③ **23** ⑤ **24** ③ **2** **5** 예시 답안 '서신'은 칸이 조선에 온 목적이 행복을 받아내기 위해 서임을 밝히는 역할을 하며, 이로 인해 인조는 서둘러 화친을 결정하게 된다. **26** ③ **27** ③ **28** ⑤ **29** ② **30** 예시 답안 <보기>는 원작과 마찬가지로, 가난으로 비참한 처지인 흥부 부부가 함께 박을 타는 것을 소재로 한다. 그러나 <보기>는 원작과 달리 흥부의 처가 신세를 한탄하지 않고 서로에 대한 연민과 사랑으로 가난한 삶을 극복하는 긍정적 삶의 태도를 보인다.

- 01 (가)의 화자는 자신이 천상계에 있는 ‘광한전’에서 입을 모시다가 ‘하계’ 즉 인간 세상에 내려왔다고 하였다. (나)의 중심 화자는 ‘턴상(天上) 백옥경(白玉京)’을 이별하였다고 하였으므로 천상계의 존재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가)의 화자와 (나)의 중심 화자(을녀) 모두 헤어진 입을 그리워하며 독수공방의 처지에 괴로워하고 있다.
 ② (가)와 (나) 모두 한 행을 네 마디로 끊어 읽는 4음보의 율격을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③ (가)는 화자가 혼잣말을 하는 방식으로, (나)는 중심 화자와 보조 화자가 말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시상이 전개된다.
 ④ (나)의 중심 화자는 ‘꿈’에서 사랑하는 입을 만나지만, (가)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

- 02 ‘강련’은 입의 소식을 기다리는 곳으로, ‘디논 히’는 입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하루가 다 지났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㉔은 화자의 괴로운 처지를 나타낼 뿐, 자연 속에서 평안함을 느끼는 상황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오답 풀이

- ① ‘삼 년’은 입과 헤어져 하계에 내려와 산 시간을 의미한다.
 ② 하루에 열두 때, 한 달에 삼십일 일은 화자가 입을 계속해서 그리워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③ ‘낮비치’ 달라졌다는 것은 화자를 대하는 입의 태도가 변하였음을 뜻한다.
 ⑤ ‘허사로다’는 입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깨달은 좌절감을 표현한 것이다.

- 03 [A]와 [B]에서 화자는 현실적으로 입을 만나기 어렵다고 생각하자 차라리 죽어서라도 입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죽어서 되겠다는 ‘범나비’와 ‘낙월’은 입을 사랑하는 화자를 상징하는 소재이다. 이처럼 [A]와 [B]에서 화자는 죽어서라도 입을 사랑할 정도로, 입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고 있다.

| 채점 기준 | 배점 |
|--|-------|
| [A]와 [B]가 가정하는 상황과 ‘범나비’와 ‘낙월’의 의미를 제시하고, 화자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를 밝힌 경우 | 5점 |
|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만 제시한 경우 | 3점 |
|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제시한 경우 | 2점 |
| 80자에서 ±10자 초과인 경우(띄어쓰기 제외) | -0.5점 |

- 04 ‘눈물이 바라 나니 말습인들 어이 흐며’는 꿈에서나마 입을 만났을 때 감격해하는 화자의 모습을 나타낸 것일 뿐, 언젠가 관직으로 복귀하리라는 작가의 확신을 나타낸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 ① ‘연지분은 화자가 여자임을 나타내는 소재로, 이것을 ‘눌 위흐야 고이 홀고’라고 하며 화자가 입과 떨어져 외로운 처지인 것으로 설정함으로써 자신의 입금에게서 내쳐진 처지와 심정을 가상의 여성을 통해 대리로 나타낸 것이다.
 ③ ‘내 몸의 지은 죄’는 자신이 정적에게 탄핵받은 일을 의미하며, ‘피그티 빠혀시니’는 그 죄에 대한 자신의 책임이 매우 크다는 점을 나타낸 것이다.
 ④ ‘모첩’은 화자가 지금 살고 있는 누추한 집으로, 관직에서 밀려난 작가가 현재 살고 있는 창평을 의미한다.

- 05 ‘그림재’는 입과 만나는 꿈에서 갠 화자의 외롭고 쓸쓸한 처지를 부각하는 소재로, 화자가 그리워하는 입을 상징하는 자연물은 아니다.

오답 풀이

- ① ‘염냥’은 더위와 추위를 의미하는 말로, 염냥이 갔다가 다시 온다는 것은 시간이 빠르게 흘렀음을 의미한다.
 ② ‘편작’은 옛날 중국의 전설적인 의사로, 그도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다는 것은 화자의 상사병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④ ‘계성’은 닭 울음소리로, 입과 만나는 행복한 꿈을 꾸던 화자는 이 소리에 잠에서 깬다.

- 06 이 글은 이야기 밖에 위치한 서술자, 즉 3인칭의 전지적 서술자가 창수의 시점에서 바라본 ‘서울’의 풍경과 서울 사람들의 모습을 자세히 묘사한다. 그리고 그러한 관찰을 하며 창수가 느끼거나 생각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 07 창수는 제 포래 아이들, 두세 살 된 갓난애조차 자신을 ‘시골 아이’라며 놀리자, 이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고 귀밀까지 새빨개진 채로 모욕감을 느끼며 위축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나는 그렇게도 오고 싶어 마지않았던 서울에’를 통해 알 수 있다.
 ③ 창수는 ‘고생이 되어도 좋다고, 어떠한 일이든지 하겠다고’, ‘서울로만 보내 달라고’ 졸랐던 것에 대해 뉘우치고 있다.

⑤ 창수 아버지는 창수를 서울에 홀로 남겨두고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 아들에 대한 애뜻한 마음과 믿음이 담긴 당부를 전하고 고향으로 내려간다.

08 ㉔은 반찬 가게 주인에게 거스름돈을 잘못 받은 일을 해결하지 못한 창수가 주인 영감에게 혼날까 봐 한약방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인 반응이다. 창수가 흘린 눈물은 도시 생활에 대한 두려움, 반찬 가게 주인에 대한 원망,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자책 등이 서러움의 감정으로 폭발한 것으로, 어려운 일을 처리한 후련함과는 관련이 없다.

09 창수가 ‘같이 집으로나 다시 내려갔으면, 그러면 펍 좋겠다고’ 한 것은 도시 아이들에게 무시를 당했기 때문이다. 즉 이런 생각은 도시 생활에 대한 두려움의 표현이지, 도시에서 성공해서 귀향하겠다는 창수의 의지를 드러낸 것은 아니다.

10 ‘카메라의 눈’ 기법은 카메라가 풍경을 훑고 지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으로, [A]에서는 창수의 눈에 비친 천변의 다채로운 풍경을 사실적이고 생생하게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

| 채점 기준 | 배점 |
|--|-------|
| 관찰의 주체와 대상을 밝혔고, 사실적이고 생생한 전달 효과가 있음을 제시한 경우 | 5점 |
| 관찰의 주체와 대상만 밝혔거나 전달 효과만 제시한 경우 | 3점 |
| 문맥에 어긋나거나 맞춤법에 맞지 않은 경우 | -0.5점 |

11 (다)에는 주로 시각적 이미지와 촉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의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전이시켜 표현하는 공감각적 이미지는 활용하지 않았다.

오답 풀이

- ① (가)는 ‘봄눈’, ‘느릅나무 / 속잎’, (나)는 ‘눈’, ‘꽃’, ‘낙엽’, (다)는 ‘고드름’처럼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를 활용해 주제를 나타내고 있다.
- ② (나)는 눈이 퍼붓는 자연 현상, (다)는 추운 겨울 꽁꽁 얼은 명태를 통해 화자의 처지를 나타내고 있다.
- ③ (가)는 ‘머언 산’, ‘기왓집’, ‘느릅나무’, ‘청노루 맑은 눈’, ‘(눈에 도는) 구름’처럼 원경에서 근경으로의 시선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④ (나)는 ‘진실로 진실로’처럼 시어의 반복과 ‘눈이 그치고 꽃이 피어나고 낙엽이 떨어지고’처럼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12 (나)의 ‘밤이 들면서 골짜기엔 눈이 퍼붓기 시작했다.’는 부재하는 그대를 기다리는 화자의 고통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3 (나)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은 그대를 사랑하는 일이 무척 가치 있고 소중한 일임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다)에서 ‘해가 저물고 날은 다 가고’는 화자가 처한 냉혹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14 (다)에서 명태는 화자가 자신과 동일시 하는 대상으로, 그러한 명태에 ‘길다란’ 고드름이 달렸다는 것은 화자의 괴로움이 매우 큼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길다란’은 ‘명태’의 놀라운 생명력과 관련이 없다.

오답 풀이

- ① ‘머언’은 시적 허용의 표현으로 청운사가 인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임을 강조하고 있다.
- ② ‘맑은 눈’은 순수한 ‘청노루’의 특징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 ③ ‘한없이 잇닿은’은 ‘기다림’의 속성을 나타낸 것으로, 그대를 지속적으로 기다리겠다는 화자의 태도를 나타낸 것이다.
- ⑤ ‘서러웁게’는 ‘명태’에 이입한 화자의 감정이다.

15 (다)를 시대적 상황과 연관지어 해석해 보면, ‘명태’는 ‘우리 민족’을 ‘고드름’은 상처나 고통 등을 상징한다. 따라서 [A]에서 ‘가슴에 길다란 고드름이 달렸다’는 것은 망국의 한을 지닌 우리 민족이 일제로 인해 고통받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 채점 기준 | 배점 |
|---|-------|
| ‘명태’와 ‘고드름’의 상징적 의미를 제시하고, [A]를 통해 작가가 전달하려는 바를 제시한 경우 | 5점 |
| ‘명태’와 ‘고드름’의 상징적 의미만 제시했거나, [A]를 통해 작가가 전달하려는 것만 제시한 경우 | 3점 |
| 문맥에 어긋나거나 맞춤법에 맞지 않은 경우 | -0.5점 |

16 이 글의 서술자인 ‘나’는 학창 시절에 ‘엇박자 D’와 연관된 경험을 회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금 ‘엇박자 D’가 음치들이 부른 합창곡을 앙코르곡으로 선정한 행동에 개인성을 부여하고 있다.

17 관객들은 무성 영화를 보고도 웃었고, 더블 더빙의 연주를 듣고도 웃었다. 이는 더블 더빙의 노래가 영화의 분위기와 일치해서가 아니라 영화 속 인물과 연주가 조금씩 엇박자였고 그걸 더 재미있어 했기 때문이다.

18 우리들은 학창 시절을 떠올릴 때 엇박자 D에 대해 이야기를 자주 했는데, 이때 엇박자 D는 재미있는 이야깃거리였을 뿐이다. ‘그가 보여 준 놀라운 엇박에 대한 감탄’은 엇박자 D를 비롯한 우리의 태도를 반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19 우리는 학창 시절 엇박자 D를 우리들의 합창을 방해했던 인물로 기억한다. 그리고 그에게 ‘D’라는 이니셜의 별명을 붙인 것도 ‘D’라는 문자에서 연상되는 부정적 느낌 때문이었다. 이처럼 ㉠은 우리가 엇박자 D를 부정적으로 인식했음을 나타낸 것이다.

20 이 글에서 ‘음치’는 다름과 차이를 상징하는 소재로, ‘나’는 이전에는 음치가 노래의 조화를 깨뜨린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느낌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작가는 이러한 ‘나’의 인식 변화를 통해 다름과 차이가 존중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다.

| 채점 기준 | 배점 |
|---|-------|
| 음치에 대한 인식 변화를 밝혔고, 이를 통해 작가가 전달하려는 깨달음을 모두 제시한 경우 | 5점 |
| 음치에 대한 인식 변화만 제시했거나, 작가가 독자에게 전달하려는 깨달음만 제시한 경우 | 3점 |
| 문맥에 어긋나거나 맞춤법에 맞지 않은 경우 | -0.5점 |

21 이 글은 영화 상영을 목적으로 창작된 시나리오로, 연극의 대본인 ‘희곡’과는 차이점도 있지만 공통점도 있다. 시나리오와 희곡은 모두 갈등의 문학으로, 등장인물의 대화와 행동을 통해 사건이 전개된다. 그런데 시나리오의 구성 단위는 ‘신(scene)’이고, 희곡의 구성 단위는 ‘막과 장’이다. 시나리오는 희곡에 비해 등장인물의 수에 제약을 받지 않고,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의 제한도 적다.

22 S# 73에서 김류는 화친과 전쟁 사이에서 고민하는 인조에게 결정을 독촉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어떤 결정을 내려도 따르겠다며 모든 결정과 책임을 인조에게 미루고 있을 뿐이다. 이를 통해 그가 주관이 뚜렷하지 않은 기회주의자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인조는 청과의 화친을 두고 갈등하는 상헌과 명길을 보며 그만둘 것을 명하고, 둘이 계속 언쟁을 벌이자 결국 자리를 박차고 나오며 못마땅함을 표시한다.

② 명길은 칸이 삼전도에 오래 머물지 않을 것이므로 서둘러 성문을 열어 화친을 청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④ 대제학은 칸을 오랑캐라 말하며 머리 숙이지 않아야 한다고 했고, 부제학도 명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⑤ 상헌은 칸이 삼전도를 곧 떠날 것이므로, 그때까지 화친하지 말고 버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3 [A]에서는 화면에 대립하고 있는 두 인물이 한 명씩 클로즈업되어 빠르게 번갈아 나타날 뿐, 한 화면에 두 인물을 나란히 배치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A]에서는 원작보다 대사의 길이가 짧은데, 이를 통해 상대방의 말을 끊으며 자기주장을 펼치는 인물들의 모습을 부각하고 있다.

② 원작에서는 ‘최명길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다.’라고 하고 있는데, [A]에서 상헌과 명길은 모두 ‘큰 목소리로’ 말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③ ‘E’는 화면 밖에서 음향이나 대사에 의한 효과음을 말하는 것으로, [A]에서는 명길의 얼굴이 나오는 화면에 상헌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상헌이 다음 화면에 나올 것을 짐작하도록 하고 있다.

④ ‘C.U.’는 인물의 특정 부위를 확대하여 촬영해 보여 주는 기법으로, [A]에서는 인물의 표정을 보여 줌으로써 그의 내면을 드러내는 데 활용되고 있다.

24 ㉠은 칸의 목소리가 화면 밖에서 흘러나오고 그 내용을 한글 자막으로 보여 주게 하고 있다. 그런데 이때 화면은 칸이 보낸 서신을 보는 인조의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어야 한다.

오답 풀이

- ① 'O.S.'은 한 인물의 어깨 너머로 다른 인물을 찍은 화면을 의미하고, 'F.S.'은 인물의 전체 모습을 찍은 화면을 의미한다.
- ② '트래킹 샷'은 이동차나 레일을 따라 카메라를 움직이며 찍는 장면으로, 연속된 장면을 보여 줄 때 효과적이다.
- ④ 'W.S.'은 인물의 허리 위부터 머리까지를 찍은 화면을 의미하고, 'C.U.'은 장면이나 인물의 특정 부분을 집중하여 확대한 화면을 의미한다.
- ⑤ 'B.S.'은 인물의 가슴 위 상반신만 찍은 화면을 의미하고, '줌 인'은 카메라의 위치를 고정한 채 렌즈의 초점 거리를 변화시켜 촬영물에 가까이 가는 것처럼 보이도록 촬영하는 방법이다.

- 25** 칸이 인조에게 보낸 서신은 성을 공격할 것을 예고함으로써 항복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 이는 칸이 직접 조선에 온 이유가 조선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임을 밝혀 위기 상황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이 서신은 칸의 의도대로 인조로 하여금 전쟁을 포기하고 화친을 선택하도록 만든다.

| 채점 기준 | 배점 |
|---|-------|
| 칸이 서신을 보낸 목적을 밝힌 후, 서신이 인조의 태도 변화에 미친 영향을 밝힌 경우 | 5점 |
| 칸이 서신을 보낸 목적만 밝혔거나, 서신이 인조의 태도 변화에 미친 영향만 밝힌 경우 | 3점 |
| 문맥에 어긋나거나 맞춤법에 맞지 않은 경우 | -0.5점 |

- 26** 이 글과 같은 판소리에서는 창자가 사설도 하고 창도 하며 사건을 청자에게 전달한다. 따라서 사건과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직접 평가가 나타나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이 글의 창자는 당대의 부조리한 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직접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 27** '자진모리'는 휘모리장단보다는 좀 느리고 중중모리장단보다는 좀 빠른 속도로, ㉠에서는 비교적 빠른 장단을 통해 갑자기 장비가 군사와 함께 등장하여 놀보를 위협하는 위협적 분위기를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중중모리'는 비교적 빠른 장단으로, 흥취를 돋우며 요란한 장면 등을 연출할 때 주로 쓰는 장단이다.
- ② '진양조'는 판소리 장단 중 가장 느린 속도로, 인물들의 느린 움직임을 표현할 때 효과적이다.

- ④ '아니리'는 창과 창 사이에 가락을 붙이지 않고 이야기 하듯 엮어 가는 사실 부분으로,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할 때 효과적이다.
- ⑤ '중모리'는 진양조보다는 조금 빠르고, 중중모리보다는 조금 느린, 중간 빠르기의 장단이다.

- 28** 놀보는 자신을 위협하던 장비가 사라지자, '이전에 지은 죄를 반성하겠으니 동생 형을 용서하소.'라고 말하며 자신이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한 반성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29** '평지에 지어도 절은 절이요, 성북 술에도 권주가 한다'는 관용적 표현으로, 홍보는 이를 통해 힘든 상황에서도 즐거운 마음을 갖겠다는 뜻을 표현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복덕방'은 방위를 나타내는 '개문방'과 '생문방'과 아무 관련 없이 '~방'으로 끝나는 단어를 끼워 넣기 위해 활용한 언어유희로, 이를 통해 해학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는 갑자기 등장한 장비의 모습을 과장되게 표현한 것으로, 놀보가 장비에게 느낄 공포심을 부각하고 있다.
- ⑤ ㉠에서 장비는 죽은 둘째 형(관우)을 떠올리며, 형제의 우애를 중시하는 홍보를 위해서 놀보를 죽이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 30** <보기>는 원작과 마찬가지로 가난한 홍부 부부가 박을 타는 장면이 나온다. 그런데 <보기>는 형제의 우애를 주제로 한 원작과 달리 서로에게 깊은 애정을 지닌 홍부 부부의 모습을 통해 정신적 가치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홍부의 처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으로 가난으로 인한 삶의 애환을 극복해 나가는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채점 기준 | 배점 |
|------------------------------------|-------|
| <보기>와 원작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한 가지씩 모두 밝힌 경우 | 2점 |
| <보기>와 원작의 차이점과 공통점 중 한 가지만 밝힌 경우 | 1점 |
| 문맥에 어긋나거나 맞춤법에 맞지 않은 경우 | -0.5점 |

3 한국 문학의 성격과 흐름

★ 확인 문제

본문 80쪽

- 1 ② 2 (1) ㉠ (2) ㉡ (3) ㉢ 3 (1) ○ (2) ○ (3) × 4 (1)
전설 (2) 신화 (3) 민담 5 ③ 6 (1) ○ (2) ○ (3) × (4) ×
7 (1) 분화 (2) 가면극 8 ⑤ 9 (1) ○ (2) ○ (3) × 10 (1)
가전 (2) 경기체가 (3) 문자 11 ⑤ 12 (1) ○ (2) × (3) ×
(4) ○

(1) 서정 갈래

작품 1 찬기파랑가

본문 84쪽

- 01 ④ 02 ⑤ 03 ③ 04 ② 05 예시 답안 '아
야'는 앞서 전개되어 온 기파랑에 대한 그리움과 흠모의 정서를
고조시켜 그를 찬양하고 추모하는 것으로 시상을 마무리할 수 있
도록 이끄는 역할을 한다. 06 ⑤ 07 ③

- 01 이 시는 기파랑이 지닌 숭고하고 고매한 인품을 '달', 'жат나무 가지'와 같은 자연물에 빗대어 형상화하고 예찬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이 시는 독백적 어조로 쓰인 작품으로, 대상과의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있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달, 흰 구름 등 자연물에 대한 화자의 관찰이 일부 나타나 있으나, 작품 전체적으로 대상에 대한 객관적 묘사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눈'이 시련과 역경의 함축적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화자가 대상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시켜 이를 비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⑤ 작품 전체의 시상 전개 방식을 고려할 때, 대상의 변화상을 시간 순서에 따라 서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02 시련과 역경을 의미하는 '눈'은 흰색, 기파랑의 높은 인품과 절개를 의미하는 'жат나무 가지'는 푸른색으로 색채 이미지가 선명하게 대비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눈으로도 덮을 수 없는 존재로서, 사계절 내내 푸른 잎을 지닌 'жат나무 가지'에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을 연결시켜 강조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대구법의 사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② '꽃가리여'와 같이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을 뿐, '~리라'와 같은 의지적 어조를 활용하여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반어적 진술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④ 처음과 끝의 형태를 같거나 유사하게 처리하는 수미쌍관의 기법은 나타나 있지 않다.

- 03 이 시는 10구체 향가 형식으로, 9~10행은 '기-서-결'의 3단 구성 중 마무리 단계인 '결'에 해당한다. '아아, жат나무 가지가 높아 / 눈이라도 덮지 못할 고갯이여.'와 같은 표현을 통해, 화자가 기파랑의 고결한 인품과 절개에 대해 품고 있는 예찬적 태도가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기파랑과 다시 만날 것이라는 재회에 대한 믿음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② 기파랑이 부재하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은 '기'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결'에서는 기파랑에 대한 예찬적 태도와 흠모의 심정이 나타나 있다.
④ 기파랑이 지니고 있던 종교적 믿음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화자가 기파랑과 함께 나누었던 과거 경험에 대한 회상의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 04 ㉠의 '달'은 달처럼 높이 우러러보는 밝고 고귀한 존재인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을, ㉡의 'жат나무 가지'는 곧고 높은 지조를 가진 기파랑의 고고한 절개, 드높은 기상을 형상화한 시어에 해당한다. 따라서 ㉠, ㉡은 모두 화자가 따르고 찬양하는 대상을 의미한다.

오답 풀이

- ① '달'과 'жат나무 가지'는 화자가 찬양하는 대상으로, 화자가 극복하고자 하는 대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③ '달'과 'жат나무 가지' 모두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에 해당하므로, '달'이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는 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④ 'жат나무 가지'뿐만 아니라 '달' 역시 기파랑을 형상화한 자연물로, 그가 지닌 높은 정신적 경지를 상징하고 있다.
⑤ '달'과 'жат나무 가지' 모두 화자에게 기파랑을 연상시키는 자연물로, 기파랑이 지닌 단순한 외양적 특성이 아닌, 그의 내면적 가치, 즉 고매한 인품을 함축하고 있다.

- 05 9행의 첫머리에 나타난 ‘아야’는 감탄사로서, 향가의 낙구는 시상 전개와 마무리 단계에서 시상을 고조하면서 집약하는 기능을 한다.

| 채점 기준 | 배점 |
|---|-------|
| 시상 전개의 어떤 단계에서 어떠한 시적 기능을 하고 있는지 모두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 5점 |
| 시상 전개의 어떤 단계에 해당하는지 밝히지 않은 채, 시적 기능만 서술한 경우 | 3점 |
| 60자에서 ±10자 초과인 경우(띄어쓰기 제외) | -0.5점 |
| 문맥에 어긋나거나 맞춤법에 맞지 않은 경우 | -0.5점 |

- 06 <보기>는 ‘넋7에 프른 버들’과 같은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말을 건네는 듯한 어투를 사용하고 있으나, 「찬기파랑가」의 경우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 ① 「찬기파랑가」와 <보기> 모두 독백체의 어조를 사용하여 각각 기파랑의 부재에 대한 안타까움과 이별한 임에 대한 화자의 슬픔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찬기파랑가」의 9행 ‘아야’와 <보기>의 종장 ‘어스버’는 모두 감탄사로, 두 작품 모두 감탄사를 활용하여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 ③ <보기>에서는 ‘또 잊지^ㅎ느다’, 즉 ‘어찌할 수 없다’와 같이 시상을 마무리함으로써, 대상과의 이별 상황에 대한 화자의 체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찬기파랑가」에서는 부재하는 대상에 대한 추모와 예찬의 태도가 드러나고 있을 뿐, 체념적 태도는 나타나지 않는다.
- ④ 「찬기파랑가」는 향찰로 표기된 10구체 향가이고, <보기>는 한글로 우리말 어순에 따라 표기된 평시조에 해당한다.

- 07 「찬기파랑가」와 <보기> 모두 부재하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슬픈 정서, 즉 애상적 정서를 공통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오답 풀이

- ① <보기>에서는 ‘대동강 물이야 언제나 마르려나’와 같이 설의적 표현을 통해 이별 상황에서 화자가 느끼는 안타까운 심정을 부각하고 있다. 하지만 「찬기파랑가」에서는 설의적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② 두 작품 모두 계절적 이미지의 순환을 통해 주제 의식을 형상화하고 있지는 않다.

- ④ <보기>에서 화자가 임과 이별하게 된 구체적 공간인 ‘남포’라는 지명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감상으로 볼 수 없다.
- ⑤ 두 작품 모두 명령형 어조는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적절한 감상으로 볼 수 없다.

작품 2 정석가

본문 86쪽

- 01 ① 02 ④ 03 ④ 04 ② 05 ③

06 예시 답안 1연은 나라의 태평성대를 기원하고 있는 데 반해, 나머지 연들은 개인적 차원의 임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

- 01 이 시는 구운 밤에 움이 돌아 싹이 나거나, 바위에 접붙인 옥으로 된 연꽃이 꽃을 피우거나, 무쇠로 재단하고 철사로 주름 박아 만든 옷이 다 헐거나, 무쇠로 만든 큰 소가 쇠로 된 나무가 있는 산에서 쇠로 된 풀을 뜯어 먹는 것과 같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때서야 임과 이별하겠다는 말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시의 화자는 임과의 영원한 사랑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 ② 화자가 임과 함께 했던 즐거운 추억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③ 임의 사랑을 얻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자신의 부족함을 한탄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④ 화자가 임과 이별했던 순간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⑤ 화자와 임 간의 재회를 방해하는 구체적 대상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 02 6연의 ‘긴히든 그츠리잇가’, ‘신(信)잇든 그츠리잇가’와 같은 표현에서 영탄적 어조가 일부 나타나 있지만 이를 통해 대상에 대한 경외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 ① ‘딩아 돌하 당금(當今)에 계샤이다’, ‘삭삭기 세물에 별헤 나논’ 등에서 같은 구절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2연의 ‘나논’과 같은 의미 없는 여음구를 통해 음률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이 시는 고려 속요로서 대체로 세 마디의 율격, 즉 3음보의 율격을 띠고 있다.

⑤ 6연의 '그즈리잇가'에서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간절한 심정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3 6연은 임을 향한 변함 없는 사랑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으로, 이상 세계에 대한 동경과는 무관한 내용이다.

오답 풀이

① <보기>의 '궁중 연향을 고려하여 특정한 부분이 덧붙여 지기도 했다. ~ 작품에 송축의 내용을 담은 것이 그것이다.'로 미루어 보아 적절하다.

③ <보기>의 '민중의 생활과 감정을 진솔하게 반영한 노래 가운데 인륜의 차원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 노래들은 통치 질서를 구현하기에 적합한 노래로 여겨져 궁중 음악으로 편입'되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적절하다.

⑤ <보기>의 '궁중 연향을 고려하여 특정한 부분이 덧붙여 지기도 했다.'로 미루어 보아 적절하다.

04 2연의 '삭삭기 세월에 별해'의 '별해'는 현대어 풀이로 '벼랑에'의 뜻에 해당하므로 ②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당금(當今)'에는 현대어 풀이로 '지금에'의 뜻에 해당한다.

③ '접두(接柱)호요이다'는 현대어 풀이로 '접을 붙입니다'의 뜻에 해당한다.

④ '삼동(三同)'에는 현대어 풀이로 '세 묶음'의 뜻에 해당한다.

⑤ '머거야'는 현대어 풀이로 '먹어야만'의 뜻에 해당한다.

05 이 시에는 의인법이 쓰이지 않았다. <보기>는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에서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는 의인법을 활용하여 산이 춤을 추는 듯한 역동적 이미지를 부각하여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시의 '딩아 돌하 당금에 계상이다', '삭삭기 세월에 별해 나눈' 등과 <보기>의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며'에서 두 작품 모두 동일한 시구를 반복함으로써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이 시와 <보기> 모두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불가능한 상황을 활용하여 화자가 염원하는 상황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④ <보기>에서는 '나는 밤하늘에 날으는 까마귀와 같이'의 '밤하늘'처럼 어둠의 이미지를 지닌 시간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시상을 실감 나게 전달하고 있는 반면, 이 시에서는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

⑤ 이 시의 '그즈리잇가', <보기>의 '남오리까'에서 두 작품 모두 의문형 종결 표현을 통해 화자가 전하고자 하는 심정을 강조하여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6 1연은 나라의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송축가의 성격이 짙으나, 나머지 연들은 개인적 차원에서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과 믿음에 관해 노래하고 있다.

| 채점 기준 | 배점 |
|---|-------|
| 1연과 나머지 연들의 내용이 서로 어떤 측면에서 다른지 정확하게 대조하여 서술한 경우 | 4점 |
| 1연과 나머지 연들의 내용 중 어느 하나만을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 2점 |
| 45자에서 ±10자 초과인 경우(띄어쓰기 제외) | -0.5점 |
| 문맥에 어긋나거나 맞춤법에 맞지 않은 경우 | -0.5점 |

작품 3 어부사시사

본문 88쪽

01 ③ 02 ② 03 ④ 04 ① 05 ②

01 이 작품에는 과장적 표현이 나타나지 않으며, 화자는 어촌에서 자연을 즐기며 한가롭게 살아가는 여유와 흥취를 노래하고 있을 뿐 힘겨운 삶을 강조하고 있지도 않다.

오답 풀이

① '밤물은 거의 디고 남물이 미려온다'에서 대구를 사용하여 시간의 흐름을 드러내고 있다.

② 동적 이미지란 시적 대상이 힘차고 활발한 느낌을 떠올리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시가에서는 배의 움직임, 밀물과 썰물의 움직임, 노를 젓는 움직임 등에서 동적 이미지가 드러나며 이를 통해 생동감을 드러내고 있다.

④ '온갖 고지', '년늪', '청약립', '녹사의', '췌장', 'ᄇ는 눈', '설월' 등의 시어에서 계절감이 드러나고, 'ᄇ는 눈 빠린 길 붉은 곳 훑더딘 티' 등에서 감각적인 묘사를 통해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⑤ '년늪' 등의 시어에 화자의 소박한 생활이 드러나고 있다.

02 ‘춘사 1’의 종장인 ‘강촌 온갖 고지 먼빛치 더욱 도타’는 화자가 배 위에서 멀리 떨어진 마을의 꽃을 바라보는 상황이고, ‘동사 10’의 종장인 ‘설월이 서봉의 넘도록 송창을 비겨 잇자’는 화자가 ‘송창’(소나무 그림자가 비치는 창)에 기대어 달빛이 서산을 넘을 때까지 바라보는 상황으로, 모두 먼 곳의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각 수의 초장과 중장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여음구는 배의 출항부터 정박까지의 과정과 관련이 있으므로, ‘춘사 1’과 ‘추사 1’에서 공간의 이동이 나타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자연을 즐기는 흥취를 드러내고 있을 뿐, 화자의 심리 변화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 ③ ‘하사 2’와 ‘동사 10’에서는 축약적 이미지를 활용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 주로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 ④ ‘하사 2’의 종장인 ‘무심흔 백구논 내 좇논가 제 좇논가’에 물아일체의 즐거움이 나타나므로 풍류적 가치를 부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추사 1’의 초장인 ‘물외에 조흔 일이 어부 싱애 아니려냐’에 어부 생활에 대한 자부심이 나타나므로 정신적 가치를 부각하는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 하지만, ‘하사 2’에 과거를 떠올리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으며, ‘추사 1’에 미래를 전망하는 내용도 나타나지 않는다.
- ⑤ ‘추사 1’에 의태어는 나타나지 않는다. ‘동사 10’의 중장과 종장 사이에 삽입된 ‘지국총 지국총 어스와’라는 여음구는 노 젓는 소리와 노를 저을 때 외치는 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어의 나열로 볼 수 있으나, 이를 통해 배의 정지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는다.

03 ‘추강’에서 느끼는 ‘흥’은 가을의 강에서 느끼는 흥취이므로, 강호에서 얻는 즐거움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밤물(썰물)은 거의 디고 날물(밀물)이 미러온다’는 시간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며, 이를 통해 작가가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게 은자로 살아가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다.
- ② ‘청약립’과 ‘녹사의’는 어부의 소박한 옷차림을 나타낸 것이며, 이를 통해 작가가 정치 현실을 떠난 사대부인지는 알 수 없다.
- ③ ‘무심흔 백구논 내 좇논가 제 좇논가’는 물아일체의 즐거움을 나타낸 것이며, 이를 통해 작가가 관인적 삶의 공간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⑤ ‘어와 저므려 간다 연식이 만당토다’는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자세가 드러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작가가 정치 현실을 떠나게 된 구체적 사건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다.

04 ①과 ②는 각 수마다 반복되는 여음구로, 각각 초장과 중장 사이와 중장과 종장 사이에 삽입됨으로써 단조로운 보통의 평시조에 변화를 주고 있다.

오답 풀이

- ② ①과 ②는 모두 배의 움직임으로 인한 생동감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 ③ ①은 노 젓는 소리가 아니라 배의 출항부터 정박까지의 과정을 드러낸다. ②는 배의 이동 과정이 아니라 노 저을 때 나는 소리와 노를 저으며 외치는 소리를 나타낸 것이다.
- ④ ①은 배의 출항에서 정박까지의 과정을 반영하고, ②는 저을 때 나는 소리와 노를 저으며 외치는 소리를 묘사한 것이다. 이들은 모두 배의 움직임을 드러내는 것으로, 화자의 심리적 갈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 ⑤ ①은 배가 출항하여 정박하기까지의 과정을 드러내므로 시간의 흐름과 연관된다. 이와 달리 ②는 노 저을 때 나는 소리와 노를 저으며 외치는 소리를 묘사한 동일한 의성어가 반복되는 것으로, 시간과는 관련이 없다.

05 이 시가의 ‘추사 1’의 ‘물외에 조흔 일이 어부 싱애 아니려냐와, <보기>의 ‘하찮은 이 몸이 이 밖에 다시 무엇을 구하리오?’에서는 모두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태도를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이 시가의 ‘추사 1’과 <보기> 모두 자연물의 속성에 주목한다고 볼 수 있지만, 교훈적 의미를 전달하고 있지는 않다.
- ③ <보기>에서는 먼 경치에서부터 가까운 곳으로 시선의 이동이 드러나고 있으나, 이 시가의 ‘추사 1’에서는 드러나지 않는다.
- ④ 이 시가의 ‘추사 1’과 <보기> 모두 화자가 자신을 객관화하는 표현이 나타나지 않으며, 내적 갈등에 대한 공감을 유도하고 있지도 않다.
- ⑤ ‘추사 1’의 ‘추강’과 <보기>의 ‘긴 여름날’은 모두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이다. <보기>에서는 여름날 강촌의 풍경과 유유자적한 새들의 모습을 통해 ‘긴 여름날’ 자연의 모습을 구체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 시가의 ‘추사 1’에서는 가을이라는 계절에 부합하는 자연의 모습을 구체화하여 묘사하고 있지는 않다.

춘사 3

동풍(東風)이 건듯 부니 물결이 고이 닐다
 돛 드러라 돛 드러라
 동호(東湖)를 도라보며 서호(西湖)로 가자스라
 지국충(至芻菴) 지국충(至芻菴) 어스와(於思臥)
 압피히 디나가고 뵈피히 나아온다

[현대어 풀이]

동풍이 건듯 부니 물결이 고이인다.
 돛 달아라 돛 달아라
 동호를 돌아보고 서호로 가자구나. (여음구 생략, 이하 동일)
 앞산이 지나가고 뒷산이 다가온다.

춘사 4

우눈 거시 벽구기가 프른 거시 벼들숭가
 이어라 이어라
 어촌(漁村) 두어 집이 닛속의 나락들락
 지국충(至芻菴) 지국충(至芻菴) 어스와(於思臥)
 말가흔 기픈 소희 온갓 고기 뛰노느다

[현대어 풀이]

우는 것이 빠꾸기인가, 푸른 것이 벼들 숭인가.
 이어라 이어라
 어촌 두어 집이 안개 속에 들락날락
 말갈게 깊은 연못에 온갖 고기 뛰노는구나.

하사 3

마람닙희 바람 나니 봉창(蓬窓)이 서늘코야
 돛 드러라 돛 드러라
 녀름 바람 덩할소냐 가는 대로 뵈 시켜라^①
 지국충(至芻菴) 지국충(至芻菴) 어스와(於思臥)
 북포(北浦) 남강(南江)이 어디 아니 도흘러니

[현대어 풀이]

마름 앞에 바람 부니 창문이 서늘하구나.
 돛 달아라 돛 달아라
 여름 바람이 일정하냐 가는 대로 배 두어라.
 북 포구 남쪽 강이 어디 아니 줄을런가.

① 배를 맡아 두어라.

추사 2

슈국(水國)의 ㄹ홀히 드니 고기마다 술저 일다
 달 드러라 달 드러라
 만경창파(萬頃澄波)의 슬꺄지 용여(容與)흐자
 지국충(至芻菴) 지국충(至芻菴) 어스와(於思臥)
 인간(人間)을 도라보니 머도록 더욱 도타

[현대어 풀이]

물나라에 가을이 드니 고기마다 살찌 있다.
 돛 들어라 돛 들어라
 넓은 물결 맑은 파도 실컷 즐겨 보자.
 세상을 돌아보니 멀수록 더욱 좋다.

동사 1

구름 거둔 후의 흰빈치 두텁거다
 뵈 떠라 뵈 떠라
 텃디폐식(天地閉塞)^② 호되 바다흔 의구(依舊)흐다
 지국충(至芻菴) 지국충(至芻菴) 어스와(於思臥)
 ㄹ업슨 물결이 김 편 돛하여 있다

[현대어 풀이]

구름 갇힌 뒤에 햇빛이 두텁구나.
 배 떠라 배 떠라
 천지는 막혔으나 바다는 그대로다.
 끝없는 물결이 비단을 펼친 듯하구나.

동사 4

간밤의 눈 갠 후(後)에 경물(景物)이 달랠고야
 이어라 이어라
 압희는 만경류리(萬頃琉璃) 뒤희는 천첩옥산(千疊玉山)
 지국충(至芻菴) 지국충(至芻菴) 어스와(於思臥)
 선계(仙界)ㄴ가 불계(佛界)ㄴ가 인간(人間)이 아니로다

[현대어 풀이]

간밤의 눈 갠 후에 경치가 달라졌구나.
 이어라 이어라
 앞에는 유리 바다 뒤에는 첩첩한 흰 산
 신선 땅인지 부처 땅인지 속세는 아니로다.

② 겨울이 되어 얼어 붙음.

01 ④ 02 ③ 03 ③ 04 ③ 05 ③

06 예시 답안 일제 강점기의 역사적 현실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못했던 삶에 대한 참회를 의미한다.

01 이 시에서는 ‘~ 욕될까’, ‘~ 살아왔던가’, ‘~ 했던가’와 같은 의문문 형식의 문장을 활용하여 지난 삶에 대한 화자의 자기 성찰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이 시에서는 의성어가 사용되지 않고 있다.
- ② 이 시에서는 반어적 표현이 사용된 부분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 ③ 이 시에서는 명사형 시행 종결이 사용되지 않고 있다.
- ⑤ 계절감이 드러나는 소재의 사용을 통해 시의 분위기를 드러내는 부분이 나타나 있지 않다.

02 [C]에서 화자는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또다시 참회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때 ‘그 어느 즐거운 날’은 민족의 염원인 조국의 광복이 이루어진 때를 의미하므로 화자가 미래 상황을 비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오답 풀이

- ①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 이다지도 욕될까’라는 것은 스스로의 삶이 부끄럽고 치욕스럽게 느껴진다는 의미로 ‘이다지도’를 통해 부끄러움이 강조되고 있다.
- ② ‘—만 이십사 년 일 개월을 /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는 현재의 시점에서 화자가 자신의 무기력한 지난 삶에 대해 참회하는 ‘한 줄’의 글이다.
- ④ ‘—그때 그 젊은 나이에 /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는 조국 광복이 이루어진 미래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화자 자신이 쓰게 될 참회록의 내용에 해당한다.
- ⑤ ‘밤’은 암울한 현실을 의미하며, ‘나의 거울을 /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는 것은 적극적인 자기 성찰의 행위를 의미한다. 화자는 적극적으로 자기를 성찰하고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03 ‘구리거울’은 역사적 유물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거울에 ‘녹’이 끼었다는 것은 망국의 치욕, 역사적 쇠망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리거울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은 화자가 역사적 존재로서 자신을 인식하고 있음을 드

러내는 것이며, 이를 통해 화자는 자신의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를 성찰하고 전망하게 된다. 절대자에게 의지하는 삶과 관련된 내용은 이 시에 드러나지 않는다.

04 ⑥ ‘슬픈 사람’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는 것과 같이 치열한 자기 성찰을 거쳐 비로소 인식하게 되는 존재(ㄴ)이고, 또한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것과 같이 자기희생과 비극적 운명을 감내하고자 하는 존재(ㄹ)이다.

오답 풀이

- ㄱ. ⑥는 부단한 자기 성찰을 통해 맞이하게 되는 존재로서, 희망과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는 존재와는 거리가 멀다.
- ㄷ. ⑥는 화자 자신의 지난 삶과 내면에 초점을 두고 자기 성찰을 함으로써 만나게 되는 존재일 뿐, 타인의 가치관이나 의견을 배척하려 했던 존재로 볼 수 없다.

05 이 시의 ‘이다지도 욕될까’ 등과 <보기>의 ‘나 가진 것 탄식 밖에 없어’ 등에서 두 작품 모두 화자가 자신의 심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② 두 작품의 화자 모두 고백적 어조로 자기를 성찰하고 있다.
- ④ 이 시의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등에서 의문형 어미를 통해 화자의 고뇌를 표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06 3연의 ㉠ ‘부끄러운 고백’은 화자가 일제 강점기라는 현실에 처한 상황이라는 점과 1연의 ‘이다지도 욕될까’와 같은 문맥을 고려할 때, 일제 강점기의 억압적 현실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참회를 하는 데 그친 현재의 삶에 대한 참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채점 기준 | 배점 |
|---|-------|
| 일제 강점기의 ‘억압적 현실’ 또는 ‘역사적 현실’과 함께 화자가 느낀 ‘참회’의 심정을 모두 정확히 서술한 경우 | 5점 |
| 일제 강점기의 ‘억압적 현실’ 또는 ‘역사적 현실’에 대한 언급 없이 화자가 느낀 ‘참회’의 심정만을 서술한 경우 | 3점 |
| 40자에서 ±10자 초과인 경우(띄어쓰기 제외) | -0.5점 |
| 문맥에 어긋나거나 맞춤법에 맞지 않은 경우 | -0.5점 |

01 ④ 02 ② 03 ⑤ 04 ① 05 ①

06 예시 답안 사회적 불의 또는 부조리한 상황에 맞서 저항하는
당당한 태도를 의미한다.

- 01 ‘돼지 같은 주인 년’ 등의 비속어가 나타나 있으나 이는 불합리한 상황에 대한 화자의 극복 의지가 아니라 화자 스스로의 속된 모습을 드러내는 표현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 ① 이 시에서는 ‘50원짜리 갈비’, ‘20원’, ‘스펀지’, ‘거즈’, ‘개미 울음소리’ 등과 같은 일상어를 사용하여 소시민적이고 속물적인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드러내고 있다.
②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모래야 나는 얼마큼 작으냐 / 바람아 먼지가 풀아 나는 얼마큼 작으냐’ 등 작품 전체적으로 독백적 어조를 통해 화자의 내면을 진솔하게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와 같이 영탄적 어조를 통해 자신에 대한 반성적 인식을 표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마지막 연의 ‘정말 얼마큼 작으냐……’에서 말줄임표로 시상을 마무리하며 화자 자신에 대한 자조적 반성이 지속될 것임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02 화자는 문인과 언론 탄압, 월남 파병과 같은 부당한 사회 현실에 당당히 맞서지 못한 채 웅졸하고 비겁한 삶을 살아 왔던 자신의 모습에 대해 자조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에서 알 수 있듯, 화자는 일상적이고 사소한 일이나 사건에만 분개하고 반항하면서 정작 본질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자신의 태도에 대해 반성·성찰하고 있다. 타인의 행위에서 삶의 교훈을 이끌어 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화자는 소시민적 삶의 한계를 자각하고 있으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④ 화자는 자신의 웅졸한 삶에 대한 성찰적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 독단적 태도나 행위로 인해 상처받은 주변 사람들에 대한 연민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⑤ 다양한 일상적 소재를 시어로 활용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자신의 웅졸한 삶의 태도를 성찰하고 있을 뿐, 미래에 대한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03 ‘개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비명에 지고 /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늬의 투정에 진다’는 본질적인 것에 대항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본질적이지 않은 대상에게도 지고 마는 시적 화자의 무기력한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오답 풀이

- ① ‘왕궁의 음탕’은 왕궁(권력자)의 부조리를 뜻하는 것으로, <보기>의 ‘1960년대의 부조리한 현실’ 상황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언론의 자유’가 없는 부당한 사회 현실로 인해 ‘불합리한 일들’은 작가가 목격한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난 불합리한 일들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③ 이 작품의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나 <보기>에서 당시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못하였기에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는 것으로 볼 때,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배경에 이러한 시대상이 관련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④ ‘웅졸한 나의 전통’이 ‘유구하다’, 즉 예전부터 계속되어 온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화자 자신의 소시민적 태도가 체질화된 것임을 비판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 04 화자는 자기반성의 내용을 자조적인 어조로 드러내는데, ‘나는 얼마큼 작으냐’, ‘나는 얼마큼 작으냐 / 정말 얼마큼 작으냐……’에서 반복법을 사용하여 자조적인 어조가 강조되고 있다.

- 05 이 시는 과거부터 계속된 ‘나’의 웅졸하고 비겁한 삶에 대해 자기반성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으며, <보기>는 ‘먹구름’, ‘쇠 항아리’로 대변되는 구속적, 억압적인 현실 상황에 대해 저항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② <보기>는 ‘닭아라’, ‘찢어라’와 같이 명령형 어미를 통해 과거의 삶을 깨치고 현실을 직시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나, 이 시에는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
③ 이 시와 <보기>는 모두 대립적 의미 관계의 시어를 통해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현실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지 못한 과거의 삶을 깨치고 ‘닭아라’, ‘찢어라’와 같이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은 <보기>에만 해당하는 특징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보기>는 ‘사람들아’에서, 이 시에서는 ‘모래야’, ‘바람아’, ‘먼지야’, ‘풀아’에서 공통적으로 대상을 구체적으로 호명하면서 시상을 선명하게 부각하고 있다.

- 06** 이 시에서 ‘절정’은 불의에 항거하는 한복판으로, 화자가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라 생각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대한 비판과 힘 있는 자에 대한 항거 등을 말한다.

| 채점 기준 | 배점 |
|--|-------|
| 해당 시어의 함축적 의미와 화자의 태도를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 4점 |
| 해당 시어의 함축적 의미나 화자의 태도 중 어느 하나만을 서술한 경우 | 2점 |
| 30자에서 ±10자 초과인 경우(띄어쓰기 제외) | -0.5점 |
| 문맥에 어긋나거나 맞춤법에 맞지 않은 경우 | -0.5점 |

(2) 서사 갈래

작품 1 주몽 신화

본문 96쪽

01 ⑤ 02 ② 03 ② 04 ⑤ 05 ⑤ 06 ①

- 01** 이 글은 설화의 세 가지 종류인 신화·전설·민담 중 신화이다. 신화는 신적 존재가 초월적 능력을 발휘하여 천지를 창조하거나 국가를 세우는 등 신성한 위업을 달성하는 과정을 그려 낸 이야기로,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개별적 증거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증거물이 존재하는 것은 전설의 특징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 ① 신화에는 보통 신이나 신성한 능력을 지닌 인물이 등장하는데, 주몽 역시 태양의 기운을 받아 태어난 비범한 능력을 가진 존재로 묘사되어 있다.
 ② 신화는 민족의 기원이나 건국 과정을 설명하며, 이를 통해 집단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결속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③ 신화는 보통 아득한 과거, 즉 태초의 시대나 신화적 공간을 배경으로 한다.
 ④ 신화는 단순한 허구가 아니라, 그것을 전승하는 공동체 내에서 진실하고도 신성한 이야기로 여겨지며 구전되다가 기록된다.

- 02** 금와의 아들들과 신하들이 주몽을 죽이려고 군사를 보내는 것은 주몽이 성장한 이후의 일이므로 이는 ‘어린 시절의 시련’이 아니라 ‘성장 후 시련’에 해당한다. 금와가 유화가 낳은 아들을 기이하게 여겨 내다 버린 것이 ‘어린 시절의 시련’에 해당한다.

- 03** 이 글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신화적 요소가 포함된 이야기이다. 『국사』 「고려본기」에 기록되어 전하고 있지만 역사적 사실이 그대로 기록된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 ① 주몽의 탄생과 고구려 건국의 내력을 담고 있는 건국 신화이다.
 ③ 주몽은 태양의 빛을 받아 잉태한 어머니 유화에게서 알의 형태로 태어나는데, 이는 주몽이 태양의 신성과 연결된 존재임을 보여 준다.
 ④ 햇빛을 통해 잉태된 것이나, 알을 지킨 짐승들, 강과 물고기, 자라 등의 자연물의 조력은 주몽의 신성함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⑤ 물을 다스리는 하백의 딸 유화와 하늘을 다스리는 천제의 아들 해모수 사이에서 태어난 주몽은 수신과 천신의 혈통을 이어받은 고귀한 혈통을 가진 존재로, 고구려를 건국한 시조 주몽이 신성한 존재임을 강조하기 위한 신화적 장치로 볼 수 있다.

- 04** 주몽은 졸본주에 도달했을 때 궁궐을 짓지 못했고, 비류수 위에 집을 지어 거처하면서 고구려라는 국호를 정했다.

- 05** 주몽이 졸본주에 이르러 도움을 정한 것은 위기가 닥칠 것임을 암시하는 게 아니라 위기를 극복하고 위업을 달성한 것이다.

오답 풀이

- ① 새와 짐승이 알을 덮어 주몽을 보호하는 것은 주몽이 신성한 존재임을 드러내 준다.
 ② 알에서 태어나기 위해 그 껍질을 깨고 나온다는 점에서, 주몽이 알에서 태어난 것은 현실의 질서를 깨뜨리고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세우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③ 주몽의 신성함을 인지하고 경계하는 대소의 발언은 주몽이 시련을 겪게 될 것임을 암시한다.
 ④ 훗날을 위해 좋은 말을 자신의 말로 삼기 위해 일부러 먹이를 적게 주어 여위게 한 것에서 주몽의 지략을 엿볼 수 있다.

- 06** 하늘을 다스리는 천제의 아들 해모수가 지상에 내려와 유화와 인연을 맺고(ㄷ), 유화가 햇빛으로 잉태한 알에서 주몽이 태어나 비범한 인물로 성장하므로(ㄱ), 이 글에는 난생 화소와 천손 강림 화소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01 ③ 02 ③ 03 ① 04 ④ 05 예시 답안 이생은 최 씨와의 결연에서 부모의 뜻을 순종한 점에서 소극적 성격을, 홍건적의 난 때 가족을 돌보지 않고 혼자 숨어 목숨을 보전한 점에서 절의나 기개를 가지지 못한 성격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최 씨는 홍건적에 대항하여 죽음을 불사한 점에서 절의를 중시하고 적극적인 성격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06 ③ 07 ⑤ 08 ⑤ 09 ③ 10 ⑤ 11 예시 답안 이생과 최 씨의 재회에 필연성을 부여한다. 12 예시 답안 최 씨가 전쟁으로 인해 목숨을 잃고 이생과 이별하게 된다.

01 이 글은 고려 공민왕 10년 송도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다. 이처럼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면 일어난 사건에 현실성, 신빙성, 사실성 등을 부여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이 글은 사건이 발생한 순서에 따라 전개하는 순행적 구성을 취하고 있다.
- ② 이 글에는 자연물이 나오기는 하지만 이는 인물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거나 배경을 묘사하는 데 활용한 것으로 주인공의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다.
- ④ 이 글은 작품 밖의 전지적 서술자가 개입하여 주인공인 이생과 최 씨의 모습과 면모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⑤ 이 글은 공간의 이동에 따라 사건을 전개하고 있지만, 다른 공간에서 일어나는 두 사건을 병치하고 있지는 않다.

02 죽은 최 씨는 이생 앞에 나타나 둘이 처음 만났을 때의 상황과 난리 중 헤어진 후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을 요약적으로 밝히고 있다. 최 씨는 먼저 이생과의 사랑이 시작되던 때를 회상하며, 홍건적의 난이 일어나 자신이 죽던 상황과 죽음을 택한 이유를 자세히 전달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시신이 현재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밝히며 이승으로 돌아와 앞으로 이생과 함께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다. 그러나 자신이 이생과 미래에 살아갈 모습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03 이생은 최 씨 집의 담장 아래에서 쉬곤 하다가 어느 날 우연히 담장 안을 처음 엿보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최 씨를 처음 보았을 뿐, 일부터 최 씨를 보기 위해 담장 안을 엿본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 ② 최 씨와 혼인한 이생은 홍건적이 침입하자 가족을 이끌고 궁벽한 산벼랑으로 피신하였다.
- ③ 피난 중 가족과 헤어진 이생은 혼자 숨어 지내다가 한참 뒤 홍건적이 이미 소멸했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야 집으로 돌아왔다.
- ④ 폐허가 된 집에 홀로 있던 이생은 죽은 최 씨가 등장하자 그녀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극진한 사랑의 마음이 앞서 그녀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괴이하게 여기지 않았다.
- ⑤ 최 씨는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이생에게 밝히며 이생과 계속 인연을 이어 갔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밝혔고, 이생은 이를 듣고 기뻐하며 감격하였다.

04 이생과 최 씨의 만남과 이별이 반복되는 구조는 남녀 주인공들의 감정의 긴밀도와 결말의 비극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오답 풀이

- ① 이생과 최 씨의 첫 번째 만남과 두 번째 만남에 의한 사랑은 모두 이승에서의 사랑이므로 현실에 바탕을 둔 사랑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세 번째 만남에 의한 사랑은 살아 있는 이생과 죽은 후 환신하여 돌아온 최 씨의 만남으로 이루어진 사랑이므로 죽음을 초월한 사랑으로 볼 수 있다.
- ② 이생과 최 씨의 첫 번째 이별은 둘의 만남을 반대하는 이생의 아버지 때문에 발생한다. 그리고 두 번째 이별은 홍건적의 침입 때문에 발생한다. 따라서 두 이별은 모두 외부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이생과 최 씨는 이생 부모의 반대로 헤어지게 되지만 결국 혼인을 하게 되면서 문제가 해결된다. 그리고 최 씨의 죽음으로 인한 둘의 이별은 그녀가 귀신의 몸으로 나타나 부부의 연을 이어 감으로써 해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 ⑤ 이생과 최 씨의 첫 번째 이별은 아버지의 뜻, 즉 효의 가치를 선택한 이생으로 인해 발생하였고, 최 씨의 죽음은 절의의 가치를 지키려고 한 최 씨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05 이생은 부모가 최 씨와의 결연을 반대하자 그 뜻을 꺾지 못하고 순종하는 소극적 모습을 보인다. 또 전쟁 중 가족을 지키지 못하고 혼자 도망하는 유약한 모습도 지니고 있다. 이에 반해 최 씨는 홍건적에 당당히 맞서는 능동적 모습을 보인다. 또 생사의 구분에도 굴하지 않고 이생과의 인연을 이어 가려는 적극적인 모습도 보인다.

| 채점 기준 | 배점 |
|---|----|
| 이생과 최 씨의 성격을 대조적으로 제시하고 성격을 판단한 사건을 정확히 밝힘. | 5점 |
| 이생과 최 씨의 성격을 대조적으로 제시하였으나 성격을 판단하는 사건을 제시하지 못함. | 3점 |

- 06 최 씨는 저승으로 돌아가기 전 이생에게 자신의 유골을 수습하여 장례를 치러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생은 최 씨가 사라지자 그녀의 부탁대로 유골을 수습하여 부모의 묘소 곁에 부장하였다.

오답 풀이

- ① 이생과 최 씨가 집으로 돌아오자 피난 갔던 노복들이 제 발로 찾아 왔다. 이생과 최 씨가 노복을 수소문해 집으로 불러 모은 것은 아니다.
- ② 이생은 최 씨가 돌아오자 세상과의 인연을 끊고 집안에만 머물렀다. 즉 벼슬을 구하지도 않았고, 친지와 빈객의 길흉사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 ④ 최 씨는 이생과 헤어지며 부른 「옥루춘」에서 ‘이제 작별하면 둘 다 아득하여 / 천상과 인간 사이에 소식이 막히리라.’라고 함으로써 이승과 저승이 단절되고 인연이 끝날 것임을 노래하고 있다.
- ⑤ 최 씨는 자신이 이승에 계속 머물면 언젠가 이생에게 화가 미칠 것이라고 판단하여 저승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 07 ‘깨졌던 구리거울’은 최 씨가 홍건적에게 죽임을 당해 이생과 헤어진 일을 표현한 것이고, ‘다시 갈라지니’는 재회한 최 씨가 다시 이생과 헤어지게 된 일을 표현한 것이다.

오답 풀이

- ① ‘전쟁의 창과 방패가 시야에 가득 어지러운 곳’은 최 씨가 자신이 죽임을 당한 상황을 나타낸 것으로, 홍건적의 난으로 인한 전쟁터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 ②, ③ ‘옥구슬’과 ‘꽃잎’은 최 씨를 비유한 소재로 이것이 부서지고 날았다는 것은 최 씨가 홍건적에게 죽임을 당한 것을 표현한 것이며, ‘피에 젖어 떠도는 영혼’은 그러한 죽음으로 인한 최 씨의 한과 고통을 표현한 것이다.
- ④ ‘무산 선녀’는 최 씨를 비유하는 것으로, 한번 내려왔다는 것은 이승에 잠시 돌아와 이생과 재회한 일을 표현한 것이다.

- 08 이생과 최 씨가 서로 바라보며 눈물을 흘린 것은 두 인물이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넘을 수 없다고 인식하여 슬퍼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자책의 마음을 표현한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 ① 최 씨는 홍건적에게 쫓기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미래를 위해 재산을 숨겨 두는 지혜를 발휘하였다.
- ② 이생과 최 씨는 난리 중 흩어진 양쪽 집 부모의 유골을 수습해 부모를 정성껏 장례 지냈는데, 이를 통해 두 사람 모두 효를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세 번의 좋은 시절은 이생과 최 씨가 세 번 만나 행복했던 순간을 나타낸 것이고, 세상일이 어긋나기만 한다는 것은 지금의 행복이 끝날 것임을 나타낸 것이다.
- ④ 이생은 저승으로 돌아가려는 최 씨에게 자신도 죽어 저승에 가더라도 최 씨와 함께 하겠다며 지극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

- 09 이생이 ‘스스로 부끄러움을 어찌 이길 수 있었겠’냐고 한 것은 홍건적의 난 때 최 씨와 가족들을 돌보지 못하고 혼자 달아난 것을 후회하는 말로, 세상과의 갈등을 도피하려는 이생의 태도와는 관련이 없다.

오답 풀이

- ① 이생이 환신한 최 씨와 재회한 후 ‘문을 걸어 잠그고 밖에 나가지 않’고 환상의 세계에 머문 것은 세상과의 갈등으로 인한 고통, 즉 최 씨가 홍건적에게 죽임을 당한 일의 괴로움으로부터 일시적으로나마 해방되기 위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 ② 최 씨가 이생에게 ‘저승길의 운수는 피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이생이 선택한 환상의 세계가 영원히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니고 결국 떠나야 할 일시적인 곳임을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최 씨가 ‘귀신의 명부에 이름이 실려 있으니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고 한 것에서 이생이 선택한 환상의 세계가 저승의 법을 적용받고 있는 곳으로, 결국 최 씨가 저승으로 갈 수밖에 없는 처지임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 ⑤ 이생이 ‘여인을 추모하’다 결국 ‘병을 얻어 수개월 만에 세상을 떠’난 것은 이생이 세상과의 갈등으로 인해 생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하고, 결국 비극적 운명을 맞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10 이 글은 최 씨에 대한 이생의 지극한 사랑이 결실을 맺지 못하고 비극적으로 끝맺고 있다.

11 ㉓는 최 씨가 환신하여 다시 이생 앞에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로, 이생과 최 씨의 재회에 필연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

12 전기 소설에서의 인물은 설화와 달리 세계 속에서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고 갈등함으로써 세계와 서로 맞서는 관계를 형성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현실의 구체적인 문제로 인해 세계와 갈등하는 것은 최 씨가 전쟁(홍건적의 난)이라는 현실의 문제에 부딪혀 맞서다 죽음을 맞이하고 이생과 이별하는 상황이 이에 해당한다.

작품 3 태평천하

본문 105쪽

01 ④ 02 ② 03 ① 04 ④ 05 ⑤ 06 ④
07 ③ 08 ⑤

01 이 글은 윤 직원 영감의 말이 제시되는 부분에서 생생한 구어, 즉 입말 투의 표현과 전라도 사투리를 풍부하게 활용하고 있다. 이는 윤 직원 영감을 생동감 있고 사실적으로 그려 내는 데 도움이 된다.

02 ‘그리서 지난달에도 오백 원 꼭 쓸 다가 있다가 편지하였길래, 두말 않고 보내 주었다!’를 보면 종학이 얼마 전에 돈을 부쳐 달라고 요구했고 윤 직원 영감이 그 요구를 들어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내년 내후년이머년 대학교를 졸업허잖냐?’, ‘내후년이머년 대학교 졸업을 허구 나와서, 삼 년이나 다직 사 년만 찌들어 나머년 ~’을 보면 종학이 아직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③ ‘안식구가 있는 데라 점잖게 경손 애비지요.’를 보면 종수에게 아내와 경손이라는 자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우리만 빼놓고 어서 망해라!”라고 부르짖은 것은 화적에게 아버지를 잃은 분노를 표출한 것이지 자신의 손으로 화적을 소탕하리라고 다짐한 것은 아니다.
- ⑤ ‘창식이 윤 주사가 조금 아까야 일어나서, 간밤에 동경서 온 전보 때문에 억지로 억지로 큰댁 행보를 하던 것입니다.’, ‘윤 직원 영감은 아들의 이렇듯 부르지도 않은 걸음을, 더욱이나 안방에까지 들어온 것을 이상타고 꼬집는 소립니다.’를 보면 아들 윤 주사가 아버지 윤 직원 영감의 부름을 받고 온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03 ‘웅장한 투쟁의 선언’ 같은 비꼬는 말투를 사용한 것은 이기적인 태도로 세상을 저주하는 윤 직원 영감의 도덕적 결함을 희화화하여 비판함으로써 풍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04 윤 직원 영감은 큰손자 종수를 동생 종학과 비교함으로써 종수가 정신을 차리고 분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따라서 종수와 종학 모두에게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5 이 글은 서술자가 경어체 문장으로 내용을 전달하고 반어적 의도의 비꼬미 담긴 말투를 구사하기도 하며 인물에 관해 폭로하기도 하는 등 판소리 창자 같은 역할을 함으로써 인물을 조롱하는 풍자적 효과를 높이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장면의 전환 없이, 윤 직원 영감이 동경에서 온 전보로 인해 손자 종학이 사회주의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장면만이 제시되고 있다.
- ② 공간적 배경을 세밀하게 묘사하는 부분은 없다.
- ③ 이 글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이야기 밖의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과 생각을 전달하고 있다.
- ④ ‘현학적’이란 학식의 두드러짐을 자랑하는 것을 말한다. 제시된 부분에 그러한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으며, 이 상적 삶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지도 않다.

06 ‘전보’는 일본에 유학 중인 종학이 사상과 관련된 문제로 경시청에 피검되었다는 소식을 담고 있다. 따라서 종학의 사상적 지향이 사회주의였다는 것이 간접적으로 드러나게 한다. 또 이 전보는 갑작스럽게 새로운 상황을 유발하여 사건 전개에 극적 반전을 가져오고, 믿었던 종학을 통해 신분 상승을 꿈꾸던 윤 직원 영감의 희망이 물거품이 되고 그의 일가가 몰락하게 될 것임을 예고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전보를 통해 가족들에 대한 종학의 심리를 알 수는 없다.

07 ㉔은 분노하여 길길이 날뛰는 윤 직원 영감의 모습에 다른 식구들이 주눅이 들어 흑시라도 윤 직원 영감의 심기를 건드리게 될까 봐 조심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분위기를 빚낸 표현이다.

08 [A]에는 일제 강점기를 ‘태평천하’로 인식하는 윤 직원 영감의 왜곡된 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이를 통해 작가는 당시 친일 지주 계층의 부정적 면모에 대한 풍자를 시도한 것이다. 한편 <보기>는 시류에 따라 변절하면서

힘 있는 자들의 질서에 순응해 가는 기회주의자의 삶을 풍자한 소설의 한 대목으로, 주인공 이인국 박사가 일제 강점기 국어 말살 정책에 철저히 순응하여 일제로부터 표창을 받았던 것을 회상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A]와 <보기> 모두 우리 민족이 맞닥뜨린 현실에 대해 왜곡된 인식을 지닌 인물들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작품 4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본문 110쪽

- 01 ② 02 ① 03 ④ 04 ② 05 ② 06 ③
 07 ③ 08 ⑤ 09 ③ 10 ④ 11 ①
 12 예시 답안 소외된 약자의 꿈과 희망이 결국 이루어지지 못하고 좌절할 것임을 의미한다. 13 ⑤ 14 ④

01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작품 속 주인공인 ‘나(영수)’의 시점에서 서술되고 있다. ‘나’는 ‘우리 다섯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우리의 생활은 전쟁과 같았다.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다’에서 알 수 있듯 자신과 가족들이 처한 현실을 ‘지옥’이나 ‘지고 있는 전쟁’과 다를 바 없이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인물의 과장된 행동은 드러나지 않으며, 비극적 분위기의 반전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
 ③ 이 글은 다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제시된 부분에서 사건을 보는 관점은 서술자인 ‘영수’의 관점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④ 서술자는 작품 안 인물인 ‘영수’로, 작품 안 서술자가 인물의 생각과 행동을 주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⑤ 이 글에는 서로 다른 두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고 있다.

02 ‘나’의 가족은 삶의 보금자리를 빼앗기는 상황에 처해 있다. 어머니는 철거 계고장이 나왔다는 말에 “기어코 왔구나!”라며 이를 예상하고 있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 ②, ④ ‘우리 다섯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단 하루도 천국을 생각해 보지 않은 날이 없다. 하루하루의 생활이 지겨웠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활은 전쟁과 같았다.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다’에서 알 수 있듯 ‘나’의 가족은 매일매일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으므로 현실에 만족해하고 있거나 행복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③ 어머니는 자신이 맞닥뜨린 현실을 체념적으로 받아들여 하고 있다. 현실을 회피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⑤ ‘나’가 철거 계고장을 천천히 읽은 것은 어머니가 글을 읽지 못하기 때문이지 자신이 느낀 허무함 때문은 아니다.

03 철거 계고장의 전달은 수신자의 상황을 배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통보로 이루어지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② 지정된 날짜까지 집을 자진 철거할 것을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있다.
 ③ 관련 법 조항과 전달 내용을 어길 시에 받을 불이익을 경고하며 권위적인 분위기로 쓰여 있다.
 ⑤ ‘~합니다’의 경어를 통해 딱딱하고 사무적인 느낌을 주고 있다.

04 ㉠은 난쟁이 일가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이름으로, 지옥과 같고 불행한 실제의 삶의 반영적 표현이지만, ㉡은 강자에게 억압받는 사회적 약자를 상징하는 것으로 반영적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

05 <보기>에서는 이 글의 작가가 창작 당시 목격한 국가의 권력 앞에 무기력한 철거민들의 삶과 현실이 이 글의 창작 배경이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 글이 산업화 시대의 어두운 단면과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 대한 바람을 드러낸 작품임을 알 수 있다.

06 영호는 입주권을 팔지도 않고, 아파트로 들어가지도 않으며 지금의 집에서 살겠다고 강하게 저항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영희가 마당가 팬지꽃 앞에 서 있었다.’를 통해 영희의 순수하고 여린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다.
 ② ‘나는 아버지의 옆으로 가 아버지의 공구들이 들어 있는 부대를 둘러메었다.’에서 아버지가 공구를 사용하는 수리공임을 알 수 있다.
 ④ ‘어머니는 대문 기둥에 붙어 있는 알루미눔 표찰을 떼기 위해 식칼로 못을 뽑고 있었다.’에서 어머니가 자신에게 닥친 현실을 체념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몇 사람들의 거간꾼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아파트 입주권을 팔라고 했다.’에서 알 수 있듯 아파트 거간꾼들은 철거민들의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파트 입주권을 싸게 사들여 시세 차익을 얻으려 하고 있다.

07 이 글에서 난쟁이가 가족으로 대변되는 철거민들은 법이 권력의 편에 있어 무기력하게 삶의 터전을 잃고 내몰려야 하는 부조리한 현실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08 ㉠은 집을 떠나지 않고 그냥 사는 것을 의미하며, ㉡은 철거 지역의 거주민임을 증명하는 알류미늄 표찰이 없으면 이주 보조금조차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09 ‘나’는 영희의 기타를 사게 되었던 과거의 이야기와, 지섭과 아버지의 대화를 회상하고 있다가 어머니의 부름에 다시 현재 시점으로 돌아와 아버지를 찾아 방죽가로 간다.

10 ‘달나라’는 난쟁이가 갈망하는 세계이나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상적 공간을 의미한다.

11 지섭은 아버지로 하여금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갖게 하고, 이상 세계를 동경하게 하는 인물이며, 아버지는 지섭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이 처한 현실이 개인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구조적 굴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12 이 글에서 ‘난쟁이’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소외된 약자를 상징한다. 이러한 난쟁이가 작은 공을 쏘아 올리는 것은 이상 세계를 향한 난쟁이의 소망에서 비롯된 행동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쏘아 올린 공이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듯이, 난쟁이 가족의 꿈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좌절할 것임을 상징한다.

| 채점 기준 | 배점 |
|--|----|
| 제목의 ‘난쟁이’, ‘쏘아 올린’, ‘작은 공’이 지닌 상징성이 답에 모두 포함됨. | 3점 |
| 제목이 지니고 있는 상징성 중 일부만 포함됨. | 2점 |

13 ㉠이 나오기 전까지는 과거 장면인 아버지와 지섭의 대화를 보여 주다가 ㉡을 통해 ‘나’가 아버지의 책을 보고 있는 장면으로 돌아온다. 즉 ㉠의 어머니의 부름은 장면의 급격한 전환을 통해 극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4 이 글은 산업화 시대의 힘없고 소외된 약자를 대변하는 인물로 난쟁이를 설정하고,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 삶의 터전을 강제로 빼앗기는 노동자이자 도시 빈민인 난쟁이 가족을 통해 경제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의 삶을 대변하고자 하였다.

(3) 극 갈래

작품 1 통영 오광대

본문 115쪽

01 ④ 02 ② 03 ⑤ 04 예시 답안 • 표현 방식: 유사한 음운을 반복 배치하여 소리의 유사성으로 즐거움을 주는 언어유희를 사용함. • 효과: 양반의 권위를 해학적으로 조롱하고 풍자함. 05 ④ 06 ④ 07 예시 답안 ㉠은 말뚝이와 양반들의 갈등이 해소된 상태에서 인물이 퇴장하며 추는 춤으로, 이는 과장(장면)이 끝났음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08 ① 09 ⑤ 10 예시 답안 영노에게 응징당하여 쫓겨나는 비비양반의 모습을 해학적으로 보여 주며 희화화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초월적 존재가 나타나 자신들을 괴롭힌 양반들을 호되게 벌렸으면 좋겠다는 당대 민중의 기대 심리가 반영되어 있다.

01 우리나라 전통극은 무대와 객석, 배우와 관객이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고 배우와 관객이 교감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 글에서도 말뚝이가 ‘쉬—이—’라고 하여 배우가 직접 관객들에게 재담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하지만 관객이 극에 직접 참여하거나 배우와 협력하여 다른 배우를 풍자하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에는 양반들의 허위의식과 권위에 대한 비판과 조롱이라는 주제 의식이 드러나고 있다.

② ‘문안 아홉 가지 평안 아홉 가지 이구 십팔 열여덟 가지 문안’, ‘말뚝인지 쇠뚝인지’와 같은 언어유희와, ‘양반놈들이 연당 못에 무자수 새끼 모이듯이 촌 골목에 도야지 새끼 모이듯이’와 같은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해학적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③ ‘음악과 춤 멈춘다.’, ‘굿거리장단에 맞춰 모두 춤을 춘다.’ 등을 통해 극의 전개에 음악과 춤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비속어 등의 평민층의 언어와 고사와 한자어 등의 양반층의 언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02 (다)에서 말뚝이가 ‘제 의붓애비 부르듯이 ~ 이놈들—.’이라고 말하자 원양반이 ‘저런 죽일 놈이 있느냐? ~ 살기를 바랄쏘냐.’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말뚝이가 양반들의 근본을 폭로하자 양반들이 ‘예끼! 예끼!’라며 이를 나무라고 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양반들은 말뚝이의 조롱과 모욕에 반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 말뚝이가 ‘양반놈들 썰을 쏙 빼리로다.’라고 말하는 부분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③ (다)에서 말뚝이는 양반들의 근본에 대하여 첫째 양반은 기생의 자식이라 하고, 둘째 양반은 종의 자식, 셋째 양반의 아버지는 흥가인지, 백가인지 알 수 없다고 폭로하였다.

④ (나)에서 원양반은 봄을 맞이하며 즐기는 풍류를 뽑내고자 하지만 (다)에서 말뚝이가 양반들이 무자수 새끼와 돼지 새끼처럼 모인다고 조롱하고, 양반의 근본에 대하여 폭로함으로써 그 위선과 허세가 드러난다.

⑤ (가)에서 원양반이 '오늘 심심한데 말뚝이 요놈이나 불러다가 농담이나 하야 봅시다.'라며 말뚝이를 오락 행위의 노리개로 취급하는 태도에서 갈등이 시작된다.

- 03** ㉠은 인물이 춤과 음악을 멈추게 하고 재담의 시작을 알리는 역할을 할 뿐, 인물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은 봄을 맞이하여 흥취를 느끼는 원양반이 함께하자고 제안하여 이루어진 행위일 뿐, 갈등의 양상이 나타나 있지는 않다.

- 04** [A]는 '문안'이라는 말의 반복과 아홉과 열여덟이라는 숫자를 활용한 언어유희를 통해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이는 대접을 받고자 하는 양반을 비판하고 조롱하고자 하는 말뚝이의 의도를 드러낸다.

| 채점 기준 | 배점 |
|---|----|
| '유사한 음운의 반복'이라는 표현 방식과 '양반에 대한 조롱과 풍자'라는 효과가 담겨 있는 경우 | 2점 |
| 표현 방식과 효과 중 하나의 내용만 서술한 경우 | 1점 |

- 05** ㉠에는 '내 집 사랑에 종놈만도 못한 놈이~'와 같이 양반과 신분 제도에 대한 비판이 드러나 있으며, ㉡에는 '너의 마음 개심하여 ~ 가절일다.'를 통해 양반들이 마음을 바꾸어 조심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점이 나타나 있다.

오답 풀이

- ① 원양반의 말 '이놈 네가 상놈으로서 양반 근본을 훼손(毀破)를 하다니 이놈!'에 신분에 대한 차별적 인식에 기반을 둔 허위의식이 드러나 있다.
 ② 말뚝이에게 반발하던 양반들이 말뚝이를 '박 생원님'이라고 부르며 용서를 구걸하는 비굴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지배 계층의 권위가 추락하고 희화화되고 있다.
 ③ 평민인 말뚝이의 근본이 양반보다 우월하다는 점이 드러남으로써 양반 권위의 허구성이 폭로되고 있다.

⑤ 양반들이 말뚝이에게 굴복하고 목숨을 구걸하는 장면에서 당대의 민중들은 큰 해방감과 카타르시스를 느꼈을 것이다. 이는 민중이 평소에 갖고 있던 불만과 서러움을 풀어내는 가면극의 특징을 잘 보여 준다.

- 06** [A]에서 말뚝이는 '근본이 어떠하뇨'와 같이 질문의 방식을 사용하여 자신의 근본이 대대로 벼슬을 한 집안이라는 점에서, 앞서 폭로한 양반들의 근본보다 우월하다는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B]에서는 질문의 방식이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 풀이

- ① [A]에서 '내 집 사랑에 ~ 아니꼽고 더럽도다'는 양반들에 대한 말뚝이의 비판을 직설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B]에서는 '떡잎이 속잎이듯 간 데마다 가절일다.'는 우회적 비판으로 볼 수 있지만, '능지처참을 할 것이로되' 등은 직설적으로 양반들을 비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A]에서 '자요지자도 ~ 불출'은 요임금의 아들과 순임금의 아들도 못난이라는 뜻으로 고사를 활용하고 있다. [B]에서는 고사를 활용한 부분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③ [A]에서 말뚝이는 대대로 벼슬을 한 집안이라는 점을 나열의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자신의 신분이 우월하다는 점을 보여 주기 위해서일 뿐 양반들을 용서하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B]에서는 나열의 방식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⑤ [B]에서는 '떡잎이 속잎이듯 간 데마다 가절일다'에서 직유법을 사용하여 상대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A]에서는 도치의 방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 07** 「통영 오광대」에서 춤은 서사적으로 재담이 끝났음을 드러낸다. ㉠은 '제2과장 풍자탈'이 끝나고 인물들이 퇴장하면서 추는 춤으로, 이는 풍자탈 과장이 끝났음을 알리는 기능을 한다. 내용적으로는 양반들이 용서를 구하고 말뚝이가 이를 용서함으로써 일시적으로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드러낸다.

| 채점 기준 | 배점 |
|---|--------|
| 갈등이 해소된 단계에서 인물이 퇴장하며 추는 춤임과 과장이 끝났음을 알리는 기능이 있음을 포함하여 서술한 경우 | 5점 |
| 둘 중 하나만 포함하여 서술한 경우 | 3점 |
| 문맥에 어긋나거나 맞춤법에 맞지 않는 경우 | - 0.5점 |

08 ‘제3과장 영노탈’에서는 무엇이든 다 잡아먹는 괴물인 영노가 등장하여 비비양반을 따라다니며 잡아먹겠다고 겁을 준다. 이 과정에서 영노와 비비양반의 등장, 두 인물의 대결 장면, 그리고 퇴장에 춤과 음악이 활용되고 있다.

09 이 글에서는 양반을 잡아먹으려는 영노의 행위가 노출되기는 하지만 실제로 잡아먹고 용이 되어 승천하는 장면은 노출되지 않는다. 따라서 B에서 영노가 비비양반을 처벌하고 C로 돌아간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이 글은 영노의 대사를 통해 당대 양반들의 횡포를 드러내고, 죽음 앞에서 비굴한 행동을 하는 비비양반의 모습을 통해 당대 양반의 위선과 허세를 조롱하는 주제 의식이 드러난다.

오답 풀이

- ①, ④ 하늘(A)에 사는 영노는 지상(B)에 사는 양반들의 행사가 나빠서 양반들을 잡아먹으려고 내려왔는데 양반들 백을 잡아먹고 하늘(C) 끝을 사용해 올라가려고 한다.
- ② (가)에서 영노는 ‘지상에 사는 양반들의 행사가 나빠서 양반들 잡아먹으러 내려왔’다고 하였다.
- ③ (가)에서 비비양반은 살기 위해 양반의 증거인 도포를 벗겠다고 말하고 있으며, (나)에서 ‘지팡이를 간신히 집어 들고’ 영노에게 쫓겨 퇴장하고 있다.

10 ㉠은 영노에게 응징당하여 체면을 구기고 쫓겨나는 양반의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희화화하여 권력층의 허위의식과 권위를 비판하고 있다. 여기에는 초월적인 존재가 나타나 자신들을 괴롭힌 양반들을 호되게 벌졌으면 좋겠다는 당대 민중의 기대 심리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채점 기준 | 배점 |
|---|--------|
| 영노와 비비양반의 갈등 결과를 포함하여 인물의 희화화 양상과 당대 민중의 바람을 모두 밝힌 경우 | 5점 |
| 인물의 희화화 양상과 당대 민중의 바람 중 하나만 제시한 경우 | 3점 |
| 문맥에 어긋나거나 맞춤법에 맞지 않은 경우 | - 0.5점 |

작품 2 원고지

본문 119쪽

- 01 ① 02 ① 03 ④ 04 ③ 05 ① 06 ⑤
07 ② 08 ③ 09 ①

01 이 글에서는 무대 배경은 그대로인 채 조명을 통해 장면을 분할하고 있다. 플랫폼 방은 ‘장남’과 ‘장녀’의 공간, 응접

실은 ‘교수’와 ‘처’의 공간으로, 플랫폼 방에 불이 켜지면 ‘장남’ 또는 ‘장녀’가 등장하여 해설자 역할을 하고, 플랫폼 방에 불이 꺼지고 ‘교수’와 ‘처’의 공간에 불이 들어오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장면의 전환이 이루어진다.

오답 풀이

- ② ‘줄음이 오는 지루한 음악’은 ‘교수’의 무기력한 상황을 암시하는 장치이다. 따라서 이를 갈등 상황에 대한 인물의 해결 의지를 부각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③ 제시된 장면에서 무대에서 보이지 않는 공간의 상황을 인물이나 관객에게 전달하기 위해 무대 밖 목소리를 활용하는 장면은 없다.
- ④ 이 글에서는 주로 인물들의 대사를 통해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⑤ 이 글은 진정한 삶의 가치를 잃어버린 현대인을 풍자하고 있지만, 인물의 대사 속에서 역사적 사건과 관련을 맺고 있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02 ‘장남’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비결로 ‘부모는 자식들에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면’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장남’이 부모의 의무만을 중요시 여기는 자기중심적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 ② ‘장녀’는 ‘교수’의 피곤에 지쳐 비명같이 들리는 하품을 ‘달콤한 하품’이라고 말하고, ‘교수’의 건강보다 돈을 먼저 챙기는 ‘처’를 늘 ‘교수’의 건강을 염려한다고 이해하고 있다. 이처럼 ‘장녀’는 ‘교수’와 ‘처’의 처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 ③ 옷을 갈아 입으니 ‘한결 시원하지 않’나는 ‘처’의 말에 ‘난 잘 모르겠어.’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교수’는 집에서도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교수’의 외양 묘사와 ‘장녀’의 말 속에서 ‘교수’가 밖에서 돌아오면 늘 하품을 한다는 내용을 고려할 때, ‘교수’는 평소 피곤에 찌든 삶을 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⑤ 피곤에 지쳐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는 ‘교수’의 주머니와 가방을 뒤져 돈을 챙기는 ‘처’의 모습을 통해 ‘처’가 ‘교수’의 건강보다는 돈을 중시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03 ‘처’는 몸이 거의 형클어져 있고, 퇴색한 옷을 입고 있다. 이는 ‘처’도 ‘교수’처럼 삶에 지친 상태임을 알 수 있게 한다. ‘처’가 ‘교수’의 돈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은 ‘퇴색한 옷’이 아니라 ‘처’가 ‘교수’의 주머니와 가방을 터는 행동을 통해서 드러난다.

오답 풀이

- ① ‘철문 도어’는 ‘교수’가 집으로 들어오는 입구로, 무겁게 열린다는 점에서 ‘교수’가 느끼는 중압감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 ② ‘원고지 칸’은 일정한 규격을 이루며 원고지를 구성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원고지 칸 투성이’의 양복은 틀에 박힌 일상을 반복하는 ‘교수’의 삶을 상징하는 소품으로 볼 수 있다.
- ③ ‘쇠사슬’은 피곤에 찌든 ‘교수’가 허리에 두르고 있는 것으로, 허리를 돌고 남은 줄이 줄줄 끌려다니며 도어 밖까지 끝이 없다는 점에서 사회의 압박, 현실의 중압감과 구속을 의미하는 소품으로 볼 수 있다.
- ⑤ ‘또 하나의 굵은 줄’은 가정에서 쇠사슬을 대체하는 것이므로 현대인에게 집이 구속과 압박의 공간임을 드러내는 소품으로 볼 수 있다.

- 04 [B]에서 ‘장녀’가 등장하여 전달하는 것은 ‘교수’와 처에 대한 정보뿐이다. 시·공간적 배경을 알려 주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A]에서 ‘장남’은 해설자의 역할을 하면서 아버지의 등장 에 관해 관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관객들을 극 중 상황으로 인도하는 매개자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 ② [B]에서 ‘장녀’는 관객들에게 직접 말을 걸거나 상황을 설명하여 관객들이 극 중 상황에 몰입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관객들이 극의 내용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한다.
- ④ [A]에서 ‘장남’은 무대 장치인 ‘플랫폼’과 아버지를 소개하고 있고, [B]에서 ‘장녀’는 관객에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소개하고 있다.
- ⑤ [A], [B]에서 ‘장남’과 ‘장녀’는 플랫폼에 나타났다가 대사가 끝나면 플랫폼 조명이 꺼지며 무대에서 자연스럽게 퇴장한다. 이러한 무대 연출은 ‘장남’과 ‘장녀’가 있는 공간을 ‘교수’와 ‘처’가 있는 공간과 분리시키는 효과를 가져와 두 인물의 해설자 역할을 분명하게 부각시킨다.

- 05 ‘신문’에서 출판사 이름은 ‘착취사’와 ‘악마사’로 제시되고 있다. 이는 노동 착취와 관련된 의미를 담은 출판사 이름으로, 노동자에게 비정하고 냉혹한 현실을 부각하고 있을 뿐, 당시의 부패한 사회와 정치 행태를 풍자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

- ② ‘두 살 난 애가 자기 애비를 죽’이고 ‘남편이 자기 아내한테 또 매 맞’는 사건이 반복되는 것은 비상식적인 사건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현실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 ③ 가족 구성원 사이의 사건과 동대문이 무너진 사건은 비현실적인 사건을 나열한 것이며, 신문 기사의 내용들은 연관성 없는 사건들을 나열한 것이다. 이는 부조리한 현대 사회의 모습을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
- ④ ‘교수’가 쓴 번역품이 나온 출판사의 이름이 ‘악마사’로 바뀐 것은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교수의 삶이 더욱 악화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 ⑤ ‘신문’은 삼 년 전 신문과 오늘 신문 기사 내용이 거의 흡사하게 반복되고 있다. 이는 부조리한 일상이 반복되는 현실을 풍자하는 데에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06 시끄럽게 반복되는 곡의 제목이 ‘찬란한 인생’이라는 것은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교수’의 고달픈 인생을 반어적으로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를 부조리한 현실을 극복할 가능성을 암시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처’는 아버지가 피곤하다며 자식들에게 가벼운 음악을 틀 것을 요청하고 있다.
- ② ‘장남’은 ‘교수’가 원하는 음악이 아닌 시끄러운 음악을 틀고, 이를 들은 ‘교수’가 귀를 막아 버리는 것은 자식들이 부모를 배려하지 않고 관계가 단절된 가족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 ③ ‘시끄러운 음악’은 ‘처’가 요구한 ‘가벼운 음악’과 정반대의 음악이다. 이는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서로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똑같은 곡’이 되풀이되는 것은 현대인의 무의미하고 지루한 일상이 반복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07 이 글은 ‘철쇄’, ‘철문 같은 도어’, ‘원고’ 등과 같은 상징적인 소재를 통해 진정한 삶의 가치와 의미를 잃어버리고 무의미하고 억압된 삶을 사는 현대인들을 풍자하는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이 글은 무대 상연을 위한 희곡으로, 현장감을 중시하는 것은 맞지만 이를 위해 사투리가 사용되고 있지는 않다.
- ③ ‘장남’과 ‘장녀’가 필요한 것들을 명사로 나열하며 명령조로 요구하는 대사들에서 속도감이 느껴지기는 하지만,

이것이 갈등의 심화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이 글은 부조리극의 대본으로, 뚜렷한 갈등이 나타나지 않는다.

④ 이 글에는 서로 다른 시점이 한 무대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다.

⑤ 시계가 ‘여덟 시’, ‘아홉 시’를 치는 것은 피곤에 찌들어 낮과 밤도 구분하지 못하는 교수의 상태와, 그런 교수에게 제대로 된 휴식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임을 보여 준다. 이는 현대인의 삶을 구속하는 시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 구체적인 시간 배경으로서 극의 사실성을 높이지는 않는다.

08 ‘장남’과 ‘장녀’는 부모에게 자식에 대한 물질적 책임을 요구하며 명령조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자식의 모습에 ‘처’는 머리를 끄덕이며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인물 간의 갈등 관계를 보여 준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 풀이

① ‘여덟 시’를 알리는 시계 소리가 울리자 ‘교수’가 놀란 듯이 움직이는 것은 ‘교수’가 업무에 짓눌려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 준다. 이런 점에서 시계 소리는 삶을 구속하는 시간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② ‘교수’가 황급히 문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것은 시간을 착각한 것으로 이는 과중한 노동에 시달려 계속 일을 해야 한다는 강박 관념에 사로잡힌 모습을 보여 준다.

④ ‘응접실 불이 서서히 꺼지고 플랫폼 방이 다시 나타난다.’에서 조명을 통해 무대 위의 극적 공간이 응접실에서 플랫폼 방으로 옮겨짐을 알 수 있다.

⑤ ‘감독관’은 ‘교수’에게 기계적인 삶을 강요하는 부정적 존재이다. ‘지옥의 욕리’를 연상시키는 까만 옷과 강압적인 힘을 상징하는 회초리는 이러한 부정적 측면을 환기한다.

09 [A]는 과중한 노동에 시달려 계속 일을 해야 한다는 강박 관념에 사로잡힌 ‘교수’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B]는 자식인 ‘장녀’와 ‘장남’이 부모인 ‘교수’와 ‘처’에게 물질적·경제적 지원을 요구하는 이기적인 발언이다.

오답 풀이

② (나)에서 ‘처’는 ‘장남’과 ‘장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다른 인물의 분노를 촉발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B]에서 자식들은 부모에게 물질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A]에서 ‘교수’는 ‘오늘 밤은 좀 푹 쉬어야겠군.’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를 미래에 대한 우려를 보인다고 보기 어렵다.

④ [A]는 ‘교수’의 강박 관념과 오늘은 쉬 수 있다는 기대감을 드러내는 것이므로 개인의 감정을 드러낸 것일 뿐 이타적 행동을 요구한다고 보기 어렵다. [B]에서 자식들은 부모에게 물질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을 뿐 가족에 대한 사랑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⑤ [B]에서 자식들은 직접적으로 원하는 물건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A]에서 반어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4) 교술 갈래

작품 1 주웅설

본문 124쪽

- 01 ④ 02 ① 03 ③ 04 예시 답안 풍랑의 출렁거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상태 05 ⑤ 06 ⑤
07 ④ 08 ⑤ 09 ① 10 예시 답안 ‘공방’이 상징하는 바는 ‘돈’으로, 돈과 권력이 결탁해 사회가 문란해져 돈으로 벼슬을 사는 매관매직이 성행하던 당대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01 이 글은 ‘주웅’을 내세워 글쓴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흔들리는 배 위에서 사는 삶이 평탄한 육지에서의 삶보다 오히려 안전하다는 역설적인 발상을 통해 사람들에게 늘 조심하고 경계하며 사는 삶의 태도에 대한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다.

② ‘인간 세상’, ‘인심’ 등 추상적 대상을 ‘거대한 물결’, ‘거대한 바람’ 등의 사물에 비유하여 구체화하고 있다.

③ 이 글은 ‘손’의 질문과 ‘주웅’의 대답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⑤ 이 글은 땅(인간 세상)에서의 삶과 바다 위에서의 삶이라는 대조적 공간을 통해서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바른 삶의 태도와 지혜를 전달하고 있다.

02 ‘주웅’은 편안한 삶을 누리다가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보다는 위태로운 배 위에서 조심하고 긴장하며 살겠다고 말하고 있다. ①의 느슨하게 되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은 ‘주웅’이 경계하는 땅 위에서의 삶이다.

오답 풀이

② ‘주웅’은 중심을 지키며 사는 태도를 강조하며 한가운데를 지켜 평형을 잡으면 배의 평온을 지킬 수 있다고 배 위에서의 삶을 말하고 있다.

③ ‘주옹’은 인간 세상도 위태롭기는 마찬가지라며 인간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의 위험함을 거대한 물결에 빚대어 말하고 있다.

④, ⑤ ‘주옹’은 중심을 지키지 않으면서 편함을 추구하거나 욕심을 부리는 삶에 대해 경계하며, 인간 세상이 욕심을 부리느라 나중을 생각하지 않다가 마침내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다.

03 ‘빈 배를 종류에 띄웠도다.’는 배 위에서 살아가는 ‘주옹’의 삶을 의미한다. 따라서 ‘빈 배’는 욕심을 버리고 유유자적하고자 하는 ‘주옹’ 자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은 ‘손’과 ‘주옹’의 대화로 전개될 뿐, 특정 사건이 벌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주옹’의 노래는 자신의 심정을 압축적으로 제시한 것일 뿐 사건의 전개를 압축한 것은 아니다.

② 이 글에서 ‘주옹’의 노래는 여운을 남기며 글을 마무리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이 노래는 앞의 ‘주옹’의 말을 압축적으로 드러내고 있을 뿐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구절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④ 이 글에 갈등의 심리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⑤ ‘명월’은 화자가 가까이하려는 자연을 의미하는 것으로, ‘명월 싣고 홀로 가니’는 ‘주옹’의 욕심 없는 삶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04 ㉠은 비록 풍랑의 출렁거림이 있어도 요동하지 않는 평온한 상태이다.

| 채점 기준 | 배점 |
|-----------------------------------|--------|
| 풍랑의 출렁거림에 대한 ‘주옹’의 심정을 바르게 제시한 경우 | 2점 |
| ‘주옹’의 심정만 제시한 경우 | 1점 |
| ‘어떠한 상태’의 형태로 적지 못한 경우 | - 0.5점 |
| 문맥에 어긋나거나 맞춤법에 맞지 않은 경우 | - 0.5점 |

05 (가)에서는 ‘어찌 능히 내 마음의 홀로 편한 바를 요동하겠는가.’ 등의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주옹의 미덕을 지니고 생활하려는 ‘주옹’의 가치관을 강조하고 있다. (나)에서는 ‘밝은 둥글고 안은 모나며’의 외양 묘사를 통해 ‘공방’이 엽전을 의인화한 인물이라는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와 (나) 모두 점층적 방식을 활용하여 주제를 부각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가)는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명령적 어조는 나타나 있지 않다. 또한 (나)는 돈(엽전)을 의인화한 전기 형식의 가전으로, 명령적 어조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③ (가)는 일반적 상식을 뒤집는 역설적 발상으로 배 위에 사는 것에 대한 태도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의인화 기법과 전기적 구성이 활용되고 있을 뿐 반어적 진술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④ (가)는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제시하고 있을 뿐 대상을 예찬하고 있지 않다. (나)는 엽전을 사람에 빗대어 당대 인간과 세태를 풍자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06 ‘주옹’은 ‘손’과 작별하고 나서 다시 더불어 말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손’이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고수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주옹’의 비판을 재반박하는 태도도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주옹’이 ‘손’의 질문에 한 답을 통해 글쓴이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삶의 태도’에 관한 깨달음을 밝히고 있다.

②, ③ ‘손’은 배 위에서 삶의 힘이 험하고 위태한 것으로 보았으나, ‘주옹’은 배 위에서 사는 삶이 경계하고 조심하기 때문에 평온을 지키게 되며, 오히려 땅에서의 삶이 태연히 여겨 방탕하면 위망하게 된다는 험한 세상에서 조심하고 경계하며 사는 삶의 중요성을 풀어 설명하였다. 이것은 일반적인 생각을 뒤집는 역설적 발상으로, 글쓴이만의 독특하고 새로운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④ 이 글은 ‘주옹’이라는 개인의 삶에 담긴 비유를 일반화하여 ‘바람직한 삶의 태도’라는 진리를 유추하도록 하는 우연적 설이다.

07 ‘공방’은 한나라에서 홍로경이라는 벼슬살이를 하였는데, 이는 ‘때에 따라 웅변을 잘 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오답 풀이

① ‘오왕 비가 교만하고 ~ 그에게 붙어 많은 이득을 보았다.’, ‘비를 도와 권세를 도맡아 부리고’라는 부분에서 알 수 있다.

② ‘곡식을 천하게 하고, 화를 중하게 하여’에서 ‘공방’이 곡식보다 재물을 중시하게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③ ‘백성으로 하여금 근본(농사)을 버리고 끝(상)을 좇게 하여 농사에 방해를 끼쳤다’는 데서 ‘공방’이 농업이 아닌 상업을 장려했음을 알 수 있다.

⑤ ‘그는 사람을 접하고 인물을 대함에도 어질고 불초함을 묻지 않고 ~ 재물만 많이 가진 자면 다함께 사귀고 통하니’에서 ‘공방’이 사람을 사귀는 기준이 재물에 있으며 속물근성을 지닌 인물임을 알 수 있다.

08 [A]는 ‘주옹’이 배 위에서 사는 위태로운 모습을 ‘손’이 관찰하고 근심하여 질문한 내용이다. [B]는 세속적 욕망으로 사사로이 이익을 추구한 ‘공방’의 행적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A]는 관찰한 것을 바탕으로 의문을 제기할 뿐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며, 널리 알려진 경전도 인용하지 않았다. [B]는 ‘공방’이 충신의 법도나 도리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전이 인용되지 않았다.
- ② [A]는 배에서 위태롭게 사는 ‘주옹’의 모습을, [B]는 ‘공방’의 행적을 말하는 것에서 현실의 문제점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A]와 [B]에는 이상적인 상황을 형상화하고 있지 않다.
- ③ [B]는 사신이 ‘공방’의 행적을 비판하고 있지만, [A]는 ‘주옹’의 삶에 대한 ‘손’의 질문으로 ‘손’의 달관적 태도가 나타나 있지 않다.
- ④ [A]는 갈등 상황이 아니라 ‘주옹’의 삶의 태도에 대한 의문을 묻는 것이며, [B]는 문제적인 ‘공방’의 행적에 대한 비판일 뿐 해결 방안이 드러나 있지는 않다.

09 ‘주옹’은 ㉠이 인다고 해도 자신의 마음을 흔들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 때문에 ‘주옹’이 위태로움을 느낀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② ㉠은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땅 위의 삶(인간 세상)이 위태함을 말하면서, 그 이유 중 하나로 사람의 마음은 예측할 수 없음을 바람에 비유한 것이다.
- ③ ㉡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매우 위태로운 곳이지만 ‘주옹’은 경계를 한다면 육지보다 더 안전한 곳이라 생각한다.
- ④ ㉢은 돈을 의인화한 ‘공방’을 통해, 이자의 높고 낮음을 따지는 돈의 속성을 표현한 것이다.
- ⑤ ㉣은 재치있게 권문세가와 귀족들을 사귀는 ‘공방’의 행동을 보여 주는 것으로 처세에 능하고 권세에 빌붙어 생활하는 ‘공방’의 성격을 드러낸다.

10 ㉤는 ‘공방’이 돈을 받고 벼슬을 시키는 행위를 비판하는 내용이다. <조견>에서 제시한 ‘공방’이 상징하는 바는 ‘돈’이고, 정치와 경제의 관계는 돈으로 벼슬을 사는 행위이다.

| 채점 기준 | 배점 |
|---|--------|
| ‘공방’이 돈을 상징하고 있는 것과 작품에 제시된 돈과 정치의 관계인 매관매직의 현실이 드러난 경우 | 2점 |
| 돈과 정치의 관계인 매관매직의 현실만 드러난 경우 | 1점 |
| 문맥에 어긋나거나 맞춤법에 맞지 않은 경우 | - 0.5점 |

작품 2 하늘을 힐끔 쳐다보는 것만으로

본문 127쪽

01 ③ **02** ⑤ **03** ② **04** 예시 답안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한다. **05** ⑤ **06** ⑤ **07** ⑤

01 ‘나무가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 같은 건 없으리라.’에서 글쓴이는 추측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인 ‘-리라’를 활용하여 변하는 날씨에 따라 나무의 모습이 달라질 것임을 추측하고 있다. 여기서 ‘-리라’는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뜻의 종결 어미로 쓰이지 않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④ (마)의 ‘나무와 새 들도 희망을 생각할까? 마치 우리처럼. 하지만 그럴 리가.’는 도치와 생략, 자문자답의 방식을 통해 나무와 새 들이 우리의 기대와 달리 희망을 갖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② (라)에서 글쓴이는 ‘숲’을 ‘학교’에 비유하고 있다. 이는 숲에서 배운 바가 많다는 점을 드러내는 참신한 표현이다.
- ⑤ (다)에서 사촌들과 헤어지기 싫어하던 아이가 끝내 울음을 터트리며 슬퍼하는 상황을 의성어인 ‘엉엉’으로 압축적이면서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다.

02 사촌들과의 이별을 슬퍼하는 아이와 관련한 경험과 사색을 통해 떠올린 인생의 본질(유한적, 가변적, 일회적)을 바탕으로 매 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깨달음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이 글은 글쓴이가 자신의 경험을 성찰한 내용과 그에 따른 깨달음을 독백체의 형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② 제시된 부분에 나타난 현실의 세태는 대가족이었던 과거와 달리 부부와 아이 하나의 단출한 구성이 많아졌다는 것

이다. 이는 아이가 사촌들과 헤어지기 싫어하는 이유에 해당할 뿐 비판적 태도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③ 이 글에서 글쓴이의 어린 시절의 추억은 글을 쓰게 된 계기와 관련된 과거의 경험으로, 사촌과 헤어지기 싫은 아이를 본 경험에 의해 떠올려진 것일 뿐 이를 통해 삶의 의지를 다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④ 이 글은 글쓴이가 직접 체험한 내용과 사색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이 글은 글쓴이의 사색이 중심이 되는 주관적인 글이다.

03 (다)에서 어린 시절 글쓴이 역시 ‘친척들로 집 안이 북적대던 명절을 보낸 뒤, 며칠 동안 우울한 마음에 젖어’ 있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ㄱ의 체험을 글쓴이가 겪어 보지 못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ㄱ은 사촌과의 헤어짐으로 슬퍼하는 아이를 본 경험이다.
 ③ ㄱ의 체험은 글쓴이에게 어린 시절 자신도 똑같이 생각했던 그 의문과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사색으로 연결되므로, ㄱ은 ㄴ의 계기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④, ⑤ ㄴ에서 글쓴이는 살아오면서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숲 역시 수시로 변하는 날씨에 영원한 것은 없기에 인생을 배울 수 있는 학교가 되었다고 하였다.

04 글쓴이는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을 한 번만 경험한다는 것, 인생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에 관해 사색한다. 이를 통해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고 있다.

05 (라)에서 글쓴이는 오리를 보러 간지 한참 지나서야 오리가 물풀 사이에서 물으로 걸어 나왔고, 밤이 되면 다시 어딘가로 숨어들어 잘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오리가 밤이 되어서야 나왔다는 것은 내용을 잘못 파악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 몰아치는 바람 앞에서도 꼳꼳하게 서 있는 나무는 마음이 병든 나무일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건강한 나무는 몰아치는 바람에 구부러지고 휘어지는 나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가)에서 ‘나무와 새 들’은 맑은 날에는 맑은 날을, 흐린 날에는 흐린 날을 겪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나무와 새 들’은 변화하는 환경에 순응하는 존재들임을 알 수 있다.

③ (나)에서 ‘여리다는 건 과거나 미래의 날씨 속에서 살지 않겠다는 말’이라며, ‘나는 매 순간 변하는 날씨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살고 싶다.’라고 하였다.

④ (가)에서 ‘나무와 새 들’은 영원히 맑은 하늘이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세찬 바람과 축축한 등지를 견딜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06 ㉠과 ㉡은 의미상 양립할 수 없는 말을 함께 사용한 모순 형용사로, 글쓴이가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구조적으로 사용한 표현일 뿐 독자만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답 풀이

① ㉠은 타인의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즉 상황에 유연하게 반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역설적 표현이다.
 ② ㉡은 자신은 지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타인을 이해하지 못하고, 금방 지치는 약한 것들은 서로의 처지를 잘 안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역설적 표현이다.
 ③ ㉠과 ㉡은 숲에서의 관찰을 통해 얻은 깨달음으로, 상황에 따라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유연한 삶의 태도를 지녀야 함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④ ㉠과 ㉡의 ‘쉽게 상처받는 마음’과 ‘금방 지치는 몸’은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 것들이지만 글쓴이는 서로 모순되는 말들을 나란히 제시하며 그 안에 담긴 진리를 찾아 새로운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07 ㉠은 매일매일 변하는 날씨처럼 늘 변하는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현재를 충실히 사는 삶이 중요하다는 주제를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글쓴이는 약한 마음과 금방 지치는 몸을 지녀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이들에게 응원을 보낸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② 글의 제목인 ㉠을 다시 한번 반복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이는 주제 의식이 담겨 있는 문구를 반복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완결되지 않은 문장으로 작품을 마무리하여 독자들에게 여운과 감동을 주고 있다(㉡).
 ③, ④ 하늘을 힐끔 쳐다보는 것은 날씨의 변화를 살피려는 태도를 드러내는 표현으로(㉢), 매일매일 변하는 날씨처럼 늘 변하는 세상의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응하며 살려는 태도를 강조하는 것이다(㉣).

- 01 ③ 02 ③ 03 ③ 04 ⑤ 05 ④ 06 ④
 07 ② 08 ④ 09 ⑤ 10 ① 11 ② 12 ④
 13 ③ 14 ④ 15 ① 16 예시 답안 지도자(우두머리, 임금)의 강림 기원 17 ① 18 ④ 19 ②
 20 ① 21 ⑤ 22 ② 23 ② 24 ② 25 ③
 26 ④ 27 예시 답안 ㉔는 윤 직원의 젊은 시절 별명이고, ㉔는 부친 윤용규의 별명이다. 서술자는 두 인물의 천박한 별명을 그대로 제시하여 의도적으로 인물을 희화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28 ② 29 ④ 30 ① 31 예시 답안 집을 허물게 된 상황에 대한 어머니의 좌절감, 절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32 ①
 33 ③ 34 ② 35 ③ 36 ⑤ 37 예시 답안 뿔발 생물들의 생명력과 고달픈 삶을 살아 내는 존재들의 경건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이다. 38 ④ 39 ② 40 ②
 41 ② 42 ③ 43 ⑤ 44 ③ 45 ⑤
 46 예시 답안 몰아치는 바람에 흔들리고 숲의 환경에 순응하며 견뎌 낸다.

- 01 (다)에 나타난 자연 속에 사는 삶을 바람직한 삶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시적 대상인 자연 속에 들어가 자연을 즐기며 한가롭게 살아가는 여유와 흥취를 노래한 작품이므로 이를 관조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성찰의 과정도 나타나 있지 않다. (가), (나)에도 대상에 대한 관조를 통해 삶의 의미를 성찰하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가)는 기파랑에 대한 추모의 정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나) 역시 부재하는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고 있지만, 추모의 정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다)는 자연을 즐기며 한가롭게 살아가는 여유와 흥취가 나타날 뿐 부재하는 임이나 추모의 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나)는 불가능한 상황의 설정에 따른 역설적 표현을 통해 임과 절대로 헤어지지 않겠다는 화자의 의지 및 소망을 표현하고 있다. (가)와 (다)는 상황의 가정이나 과장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④ (나)는 ‘딩아 돌하 당금에 계상이다’, ‘유덕훈신 님 여히 혼와지이다’ 등에서 동일한 문장의 반복이 나타나며, (다)는 매 연마다 ‘지국충 지국충 어스와’의 여음구를 반복하여 음악성을 드러내고 있다. (가)에는 동일한 문장의 반복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⑤ (나)에서는 ‘긴히든 그츠리잇가’, ‘신잇든 그츠리잇가’에서 설의적 표현을 통해 임에 대한 변치 않는 믿음과 사랑에 대한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며, (다)에서는 ‘물외에 조흔

일이 어부 성애 아니러나’에서 설의적 표현을 통해 자연에서의 삶에 대한 화자의 만족감이 드러난다. 그러나 (가)에는 이와 같은 설의적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 02 [A]와 [B]에서 화자가 추구하고자 하는 정신이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그러나 [A]에는 ‘흰 구름’이라는 색채가 드러나지만 색채의 대비는 나타나 있지 않으며, [B]에는 색채어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A]에서 ‘돌’은 시적 대상인 기파랑을 상징하는 자연물로, ‘흰 구름’ 따라 떠간 기파랑의 부재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며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② [B]에서 화자는 ‘일오나릿 직벽괴’에 서서 기파랑의 인품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④, ⑤ [C]는 ‘아야’라는 감탄사로 시작해 정서를 고조하고,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을 비유적으로 드러내는 ‘자식가지 노포’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기파랑을 예찬하면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 03 ‘한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제시하기 위해 사용된 가상의 사물이다. 이는 임금의 덕을 드러내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오답 풀이

- ① <보기>에서 (나)는 궁중 음악으로 수용되었다고 하였으므로 ‘딩아 돌하’는 궁중악의 악기 소리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보기>에서 (나)의 1연은 전체 주제와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송축가의 특징을 담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나)의 ‘선왕성덕에 노니 혼와지이다’는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송축의 의미로 볼 수 있다.
 ④ <보기>에서 ‘이 노래는 남녀 간의 사랑 노래일 뿐만 아니라 군신 간의 충의로 그 의미를 확장하여 수용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나)의 ‘긴(끈)’이 끊어질 리야 있겠느냐는 물음은 임금에 대한 변치 않는 믿음, 군신 간의 충의로 해석할 수 있다.
 ⑤ <보기>에서 ‘이 노래는 남녀 간의 사랑 노래일 뿐만 아니라 군신 간의 충의로 그 의미를 확장하여 수용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나)의 ‘신잇든 그츠리잇가(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라는 물음은 임금에 대한 영원한 신의를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04 ㄱ은 배의 출항에서 정박까지의 과정을 반영하고, ㄴ은 노 젓는 소리와 노 저을 때 외치는 소리를 묘사한 것이다. 이

들은 모두 배의 움직임을 드러내는 것으로, 화자의 심리 묘사와는 관련이 없다.

- 05 ㉔에서는 앞 갯벌에 안개 걷히고 뒷산에 해가 비치는 상황
이므로 ㉔은 아침 무렵의 풍경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㉔은 화자의 슬픔을 ‘늦겨곰(흐느끼며)’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여 추모의 대상인 기파랑이 없는 현재 상황과 정서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② ㉔의 ‘나논’은 여음으로서 특별한 의미 없이 음악적 효과를 위해 사용된 것이다.
③ ㉔에서는 임파의 이별 상황을 구슬이 바위에 떨어지는 것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⑤ ㉔에서 ‘어웅’은 화자 자신으로, 어웅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림마다 그랬다며 어부 생활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 06 ㉔는 시련과 고난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적 대상인 기파랑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㉔는 화자의 흥겨움을 자아내는 경치이다.

오답 풀이

- ① ㉔는 시적 대상인 기파랑을 방해하는 시련과 고난을 상징하므로, 이를 통해 화자가 자연의 섭리를 깨닫게 된다고 볼 수 없다. ㉔는 화자에게 흥겨움을 주는 대상일 뿐 자연의 섭리를 깨닫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㉔는 화자가 흥겨움을 느끼는 대상일 뿐이므로 시련을 이겨 내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가)에서 기파랑은 ㉔로 상징되는 시련을 이겨 내고 있다.
③ (가)의 ㉔는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을 부각하고 있을 뿐 기파랑의 미래가 나타나 있지 않다. ㉔의 시적 대상은 자연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에서도 시적 대상의 미래에 대한 암시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⑤ ㉔는 시련을 이겨 낸 기파랑의 고매함을 드러내기 위한 소재일 뿐, 이를 통해 화자가 기파랑을 보지 못하는 아쉬움을 드러낸다고 볼 수 없다. ㉔에서 자연의 생명력을 찾아내기는 어렵다.

- 07 (가)의 화자는 미래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쓰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한 줄의 참회록’에서 ㉔의 참회를 ‘부끄러운 고백’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조국의 광복이 현실화된 미래에, 현재 시점에서의 참회, 즉 소극적 참회에 그친 자신에 대한 참회를 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

를 현실(㉔)에 안주하며 미래(㉔)를 낙관적으로 전망해 왔던 자신을 반성하는 것으로 감상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가)의 2연에서 화자는 자신의 과거의 삶 전체를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라며 참회하고 있다.
③ (가)의 3연의 ‘그때 그 젊은 나이에 /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부분에서 미래의 ‘나’는 현재의 참회를 다시 참회할 것임을 알 수 있다.
④ (나)의 3연 ‘웅졸한 나의 전통은 ~ 가로놓여 있다’에서 과거부터 계속된 ‘나’의 웅졸한 삶에 대한 화자의 자조적 인식이 드러나 있다.
⑤ (나)의 화자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고 절정에서 ‘조금쯤 옆으로 비켜’선 소시민적 삶을 ‘웅졸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자조적으로 반성하고 있다.

- 08 (가)는 ‘살아왔던가’, ‘했던가’ 등에서, (나)는 ‘분개하는가’, ‘증오하고 있는가’ 등에서 ‘-㉔가’의 의문형 종결 어미를 사용하여 화자의 반성적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나)의 7연에서는 화자의 왜소한 모습을 작은 자연물에 비유하여 자조적 자기반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말줄임표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이러한 화자의 자조적 인식을 지속시키고 있다. 그러나 (가)에는 말줄임표가 사용되지 않았다.
② (나)에서 ‘조금쯤’, ‘얼마큼’ 등의 부사어가 반복되고 있으나 부사어의 반복이 화자의 변화된 인식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가)에는 부사어의 반복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③ (나)에서는 ‘돼지 같은 주인 녀’와 같은 비속어가 사용되면서 현실감이 부여되고 있지만, (가)에는 비속어가 사용된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
⑤ (나)에서 ‘떨어지는 은행나무 잎’은 계절감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지만 사소한 일도 견디기 어려운 고통으로 느끼는 화자의 모습을 드러낼 뿐 시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지는 않다. (가)에는 계절감이 나타나지 않는다.

- 09 ‘슬픈 사람’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씻고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미래의 어느 날 도달하게 될 화자의 모습이다. 따라서 역사적 현실에 맞서 싸우지 못한 것을 참회하고 있는 ‘내 얼굴’과 달리 반성과 성찰을 통해 도달하게 될 자아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내 얼굴’은 망국민으로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는 자아이다.

- ② (가)의 화자가 부정적 현실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을 뿐,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슬픈 사람'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씻고 희생의 길을 걷는 화자의 모습이므로 무기력하다고 볼 수도 없다.
- ③ '내 얼굴'은 성찰의 대상으로 무기력하고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이고, '슬픈 사람'은 적극적으로 반성과 성찰을 하는 자이다.
- ④ '내 얼굴'은 현재의 '나'이고, '슬픈 사람'은 미래의 '나'이다. (가)에서 현재의 '나'가 미래의 '나'를 참회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다.

10 (나)에서는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등과 같이 자조적인 어조로 자신의 웅졸한 모습을 그리면서 자신의 소시민적인 삶에 대한 반성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11 ㄱ은 본질적인 것(불합리한 상황에 대한 비판, 힘 있는 자에 대한 항거)으로 '지금도 내가 반항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화자는 현재 나, 즉 비본질적인 것(힘없는 자에 대한 분개, 스펀지를 만들고 거즈를 접는 일과 같은 일)을 하며 '비켜서 있다'.

12 ㉔은 포로수용소의 제14 야전 병원에서의 사건으로, 화자 자신의 웅졸함이 아주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로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을 통해 화자가 웅졸한 태도를 지니게 된 이유를 밝히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13 ㉔는 화자가 밤이면 밤마다 거울을 닦는 시간으로 화자가 부끄러운 자아를 인식하고 반성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 ㉔는 화자가 자신의 왜소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을 대비한 자연물로, 웅졸한 삶에 대한 화자의 자괴감을 부각한다.

오답 풀이

- ① ㉔는 화자에게 부끄러움을 환기하면서 일제 강점기라는 외적 상황을 인식하는 시간이다. 따라서 ㉔가 외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절망감을 완화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② ㉔와 ㉔ 모두 화자와 부정적인 현실 사이의 괴리감을 환기하고 있지는 않다.
- ④ ㉔는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고 맞이하게 될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는 시간일 뿐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킨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㉔는 화자의 자괴감을 부각하는 것일 뿐 화자의 숙명을 각인시키는 것은 아니다.

⑤ ㉔와 ㉔ 모두 부정적 현실에 대한 화자의 내적 인식이 나타날 뿐 부정적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는 화자의 처지를 상징하지는 않는다.

14 (가)에서 주몽은 엄수에서 자연물인 물을 향해 위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움을 요청하고 있고, (나)는 '머리를 내어놓아라.'라며 명령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화자가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가)는 '고주몽', '해부루', '하백', '유화', '엄수', '졸본주' 등의 인명과 지명을 제시하여 이야기의 사실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나)는 인명과 지명이 나타나 있지 않다.
- ② (나)는 과거와 현재의 대비가 나타나지 않고, (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고 있을 뿐,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사건에 입체감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 ③ (나)는 자연물에 위협적으로 명령하여 화자의 의도를 드러낼 뿐 초월계의 개입을 통한 신성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가)에서 '물고기와 자라가 솟아올라 다리를 만들어 주어 그들을 건너게 한 다음 흠어들었다.'와 같이 초월계의 현실 개입과 이를 통한 인물의 신성성이 나타난다.
- ⑤ (가)에서 유화의 발언은 인물의 처한 상황 등을 구체적 발화로 드러내어 사건의 현장감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나)에서 반어가 쓰이지 않고 있다.

15 주몽은 졸본주에 이르러 도움을 청하고 고구려를 건국하였다. 그러나 미처 궁실을 지을 겨를이 없어서 비류수 위에 집을 지어 거처하였다고 하였다.

16 배경 설화에서 「구지가」를 부르면 대왕을 맞이하여 기뻐 뽀글게 될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나)는 지도자(우두머리, 임금)의 강령을 염원하며 불렀을 것임을 알 수 있다.

17 이 글은 죽은 최 여인이 환신하여 살아 있는 이생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사랑을 나눈다는 전기적 요소를 통해 서사가 전개되고 있다.

오답 풀이

- ② 이 글은 이생과 여인의 만남과 헤어짐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여 주고 있을 뿐, 잦은 장면의 전환은 나타나 있지 않다.
- ③ 이 글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 서술자가 사건에 담긴 의미를 평가하고, 이를 직접적으로 드러낸 편집자적 논평은 나타나 있지 않다.

- ④ 이 글은 죽은 최 여인과 살아 있는 이생의 사랑이라는 전기적 요소가 나타나 있다. 현실에서 꿈으로, 그리고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환몽 구조와는 관련이 없다.
- ⑤ 인물의 외양 묘사나 전형적인 인물의 심리는 나타나 있지 않다.

18 (다)에서 최 여인이 울음을 터뜨리는 이유는 자신이 저승의 사람이고 이생은 이승의 사람이므로 헤어질 수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 생사의 구분으로 인하여 헤어질 시기가 되어 슬퍼하는 것으로 이를 미래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려는 태도로 볼 수 없다. 이는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도적이 최 여인을 겁탈하려 하자 도적을 크게 꾸짖고 죽임을 당하는 부분에서 알 수 있다.
- ② 이생은 도적이 뒤쫓아오자 혼자 내달려서 겨우 모면하게 된다. 이를 통해 전쟁 중에 가족을 지키지 못하고 혼자 달아나 목숨을 보전하는 유약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 ③ 최 여인이 도적들이 쳐들어온 상황에서도 재산을 산에 묻어 두었다고 말하는 부분에서 알 수 있다.
- ⑤ 최 여인이 저승으로 돌아가자 이생이 최 여인을 그리워하다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는 것에서 최 여인에 대한 지고지순한 사랑을 엿볼 수 있다.

19 ‘옥구슬 부서지고 꽃잎은 날며’는 최 여인의 죽음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20 [A]에는 옛사람의 말을 인용한 부분이 나타나 있지 않다. 또한 그간 떠나 있었던 정과 과거의 맹세를 환기하며 이생과 부부의 연을 계속 이어 가고자 하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만 부부의 인연은 하늘이 정한 것임을 강조하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풀이

- ② 최 여인은 ‘이전의 맹세를 결코 저버리지 않겠’다며 이생과 부부의 연을 계속 이어 가고자 하고 있다.
- ③ 최 여인은 이생에게 흠어져 있는 자신의 유골을 거두어 주기를 부탁하고 있다.
- ④ 최 여인은 ‘저는 이미 귀신의 명부에 이름이 실려 있’다며 이생에게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고 있다.
- ⑤ 최 여인은 ‘비단 저에게만 죄과가 미칠 뿐 아니라 아울러 그대에게도 누가 미칠 것이요.’라며 운명을 따르지 않으면 이생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1 ㉠은 홀로 이승에 남게 될 이생에 대한 최 여인의 지극한 사랑, 안타까움, 염려가 담긴 말이다. 최 여인이 이생이 자신을 뒤따라 죽음을 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장면은 나타나 있지 않다.

22 이 글은 ‘나는 파리 족통만치두 상관없어!’와 같이 방언과 비속어를 사용하여 인물의 면모를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구어체 및 판소리 사설의 문체를 사용하여 작품에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윤 직원의 집이라는 공간적 배경은 제시되어 있지만 이를 묘사한 부분이 나타나 있지 않고, 공간적 배경에 대한 묘사를 통해 인물의 내면 심리를 드러내고 있지도 않다.
- ③ (라)에서 종학이 피검됐다는 전보에 대한 인물들의 의문과 추측은 나타나지만, 이를 통해 종학의 부정적 면모가 부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
- ④ 열거는 여러 가지 예나 사실 등을 죽 늘어놓는 표현 방법이다. 이 글에는 열거의 표현 방법은 나타나 있지 않다.
- ⑤ (가)에서 윤 직원의 과거 회상이 나타나 있는데, 이는 화적에게 재산을 빼앗기고 죽임을 당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다. 따라서 이를 윤 직원의 이상향으로 보기는 어렵다.

23 (나)에는 종수와 종학에 대한 윤 직원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기대에 못 미치는 종수에 대한 핀잔과 종학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 있을 뿐 윤 직원이 자신의 발언을 뒤집는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우리만 빼놓고 어서 망해라!’는 윤 직원의 이기적인 태도와 비도덕적 가치관을 드러내는 발언이다.
- ③ ‘……뭇 허러 오냐? 돈 달라러 오지?’는 평소 아들에 대한 윤 직원의 인식이 드러난 발언이다. 이를 통해 평소 자식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 ④ (라)에서 윤 직원은 종학이 경시청에 잡혀 갔다는 사실보다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했다는 사실에 더 놀라고 있다. 이는 윤 직원의 사회주의에 대한 극단적 반감을 드러낸 것이다.
- ⑤ ‘땅 방바닥을 치면서 벌떡 일어’서는 행동은 종학이 사회주의에 참여한 것에 대한 분노와 절망감을 표현하는 행동이다.

24 이 글에서 전보는 사건의 배경이 되는 윤 직원의 집 밖 인동정에 있는 종학이 사상범으로 검거되었음을 알리고(ㄷ),

이를 통해 윤 직원의 태도가 갑자기 달라지며 윤 직원 집안의 몰락을 암시한다는 점에서 극적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다(ㄱ).

- 25 <보기>는 이 글의 시대적 배경과 비판적 의도를 설명하고 있다. ‘수십만 명 동병’은 일제가 우리나라를 장악하고 주둔시킨 병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횡포와 수탈을 당하던 조선인이 아닌 횡포를 부리고 수탈을 하던 일제를 의미한다.

오답 풀이

- ①, ④ 일제 강점기를 ‘골골마다 공명헌 정사’가 이루어지는 ‘태평천하’로 인식하는 것은 식민지 경제 구조에 편승하여 자신의 재산을 증식시키고 안정된 생활을 누리던 특정 계층의 왜곡된 역사관이 반영된 것이다.
- ② ‘좋은 세상’은 일제에 협력하던 친일 지주 계층이 살기에 좋은 세상이라는 뜻으로, 민족의 수난기를 반어적으로 표현하여 특정 계층의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세상 망쳐 놀 부랑당 패’는 사회주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주의에서는 평등한 세상을 위해 부자를 타도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윤 직원의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면모와 대비를 이루며 윤 직원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 26 ㉔은 경망스러운 윤 직원의 행동과 태도를 비꼬는 서술자의 평가가 드러난 편집자적 논평이다. 이는 서술자가 직접 사건이나 장면에 대하여 논평을 하는 것이므로 서술자가 주관적 입장에서 인물의 행동과 태도를 평가하여 서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오답 풀이

- ① ㉑에 포함된 ‘웅장한 투쟁’은 윤 직원의 말에 대한 서술자의 주관적 평가에 해당하며 서술자가 윤 직원의 행위를 비꼬기 위해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② ㉒에서는 서술자나 특정 인물의 시각을 담지 않고, 방안의 인물들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묘사한 것이다. 따라서 서술자가 관찰한 내용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서술이라 할 수 있다.
- ③ ㉓에서 ‘이렇듯 부르지도 않은 걸음’을 ‘이상타고 꼬집는’ 것은 평소 아들에 대한 윤 직원의 인식이 고려된 서술이다. 따라서 이는 윤 직원의 인식과 속마음을 반영한 서술로 볼 수 있다.
- ⑤ ㉔에서 ‘이 어른이 혹시 상성이 되거나 않는가’는 가족들이 윤 직원의 행동을 보고 든 생각이 드러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㉔은 가족들이 윤 직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반영된 서술이라고 할 수 있다.

- 27 ‘두꺼비’와 ‘말 대가리’는 천박하게 대상을 부르는 것으로 의도적으로 인물을 희화화하기 위한 장치이다. 따라서 ㉔와 ㉕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살펴보고, 이에 대한 효과를 적는다.

| 채점 기준 | 배점 |
|---|--------|
| ㉔, ㉕가 지칭하는 대상이 맞고, 의도적으로 인물을 희화화하고 있음을 모두 밝힌 경우 | 2점 |
| 표현 효과에서 ‘의도적’이란 말을 뺀 경우 | 1점 |
| 문맥에 어긋나거나 맞춤법에 맞지 않은 경우 | - 0.5점 |

- 28 가정 내의 각각의 개인인 윤 직원, 윤창식, 윤종수, 윤종학 등은 당대 사회의 모습에 영향을 받으며 각기 다른 대응 방식을 보이는데 이러한 대응 방식의 차이로 인해 세대 간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윤 직원은 종학을 경찰서장으로 만들기 위해 유학까지 보냈는데, 종학은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하고 사상범으로 검거된다. 이를 통해 윤 직원이 바라는 가정의 안정과 번영에 위기가 오고 있다.
- ③ 윤 직원이 손자인 종수를 훈계하는데 이는 종수의 삶이 자신의 대응 방식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 ④ 1930년대 사회·문화적 상황에서 각기 다른 가치관을 가진 인물들의 각기 다른 대응 방식으로 인해 세대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 ⑤ 이 글은 역사와 사회가 ‘윤 직원-창식-종수, 종학’의 삼대에 걸친 한 가족에 미치는 영향을 드러내는 가족사 소설이다.

- 29 이 글의 서술자는 작품 안 인물인 ‘나(영수)’로, 동사무소에서 사람들이 항의하는 사건, 지섭과 아버지의 대화 등을 관찰하면서 그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의견을 서술하고 있다.

- 30 ‘나’의 학업을 위한 수단은 ‘라디오’이다. ‘책’은 아버지가 읽던 것으로, ‘나’의 학업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 풀이

- ② (라)의 ‘나는 먼저 골랐던 라디오를 ~ 영희가 든 기타를 가리켰다.’를 통해 알 수 있다.
- ③ (가)의 ‘우리 다섯 식구는 ~ 천국을 생각해 보지 않은 날이 없다.’를 통해 알 수 있다.
- ④ (라)의 ‘나는 아버지가 놓고 나간 책을 읽고 있었다.’, ‘나는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⑤ (나)의 ‘잔뜩 몰려들어 자기의 의견들을 ~ 쓸데없는 것이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 31 어머니를 비롯한 난쟁이 가족은 철거 계고장을 받아 집이 헐리게 된 상황에 처해 있다. 어머니는 철거 계고장을 받고 ‘우리가 꼭 받아야 할 것 중의 하나가 이제 나온 썸’이라며 순응하고 있지만, 집을 허물게 된 상황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좌절감, 절망감에 ㉠처럼 행동한 것이다.

| 채점 기준 | 배점 |
|--|--------|
| 집을 허물게 된 상황과 그에 따른 인물의 좌절감과 절망감을 모두 서술한 경우 | 5점 |
| 상황과 인물의 심리 중 하나만 서술한 경우 | 2점 |
| 문맥에 어긋나거나 맞춤법에 맞지 않은 경우 | - 0.5점 |

- 32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은 경제 발전 과정에서 도시 빈민층인 난쟁이 일가를 억압하는 폭력적 현실을 의미한다. 굴뚝의 그림자가 마당을 덮었다는 것은 산업화의 횡포가 난쟁이 가족의 삶을 침범할 것이라는 상징적 표현이다. 영수네 가족이 지향하고자 하는 것은 집을 지키고 빈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오답 풀이

- ② ‘나’와 영화가 찾아간 시장의 이름이 ‘최후의 시장’이라는 것은 인물들에게 닥친 극단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 주기 위한 명명(命名)이라고 할 수 있다.
- ③ 기타는 영화가 가지고 컸었다는 점에서 영화의 꿈과 관련된 소재이다. 이런 기타의 줄이 끊어졌다는 것은 순수한 영혼을 가진 영화의 꿈이 좌절되었음을 암시한다.
- ④ ‘죽은 땅’은 인간의 이기적 욕망과 불공평한 현실 세계를 의미한다. ‘불공평하지 않으세요?’라는 지섭의 말을 통해서 ‘죽은 땅’이 현실 세계의 부조리함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아버지가 날린 ‘종이비행기’는 달나라(이상 세계)로의 지향을 드러내는 것인데, 이것이 종이비행기라는 설정은 결국 아버지의 소망이 소망으로만 그칠 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임을 암시한다.

- 33 ㉠은 인물들이 사는 빈민촌의 이름으로, 현실과 대조되는 동네 명칭을 통해 인물들의 빈곤한 삶과 참혹한 실상을 강조하는 반어적 표현이다. ㉡는 삶의 터전조차 보장되지 못하는 비정한 현실에서 난쟁이 가족과 같은 도시 빈민이 할 수 있는 일은 현실에서 벗어나는 것뿐임을 드러내는 것으로,

고단한 현실 세계에서 벗어나 도달하고자 하는 이상 세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은 참혹한 현실 세계인 ㉡를 벗어나 도달하고 싶어 하는 이상적인 세계라고 할 수 있다.

- 34 (가)는 배 위의 삶과 인간 세상(땅 위의 삶)이라는 제재를 대조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올바른 삶의 태도라는 주제를 이끌어 내고 있다. (나)에서 ‘소금기가 많은 푸른 물’의 ‘푸른 물’은 아름답지만 화자에게 큰 감흥을 주지 않는 공간으로, ‘무위한 해조음’이 있는 공간이다. 따라서 ‘푸른 물’은 생명력이 충만한 공간으로서의 바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 반면 ‘빨발’은 생명체가 꿈틀거리는 공간으로 생명력이 충만한 공간으로서의 바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나)는 ‘소금기 많은 푸른 물’과 ‘빨발’이라는 제재를 대조하여 어머니와 빨발을 다녀온 경험에서 깨달은 삶의 의미라는 주제를 이끌어 내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가)는 ‘손’의 질문과 이에 대한 ‘주옹’의 답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으나 (나)는 대화의 방식이 나타나 있지 않다.
- ③ (가)와 (나)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의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미래에 대한 전망은 나타나 있지 않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시선을 이동하면서 내용이 전개되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⑤ (가)와 (나)는 자연물을 활용하여 깨달음과 주제를 전달하고 있지만, 모두 감정 이입의 방식으로 정서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 35 [A]는 ‘주옹’이 배 위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관찰한 ‘손’이 ‘주옹’의 삶의 방식에 대한 의문점을 질문한 것이다. [B]는 [A]에 대한 ‘주옹’의 역설적 발상이 드러난 답변으로, 배 위에서의 삶이 땅 위에서의 삶보다 조심하기에 평온할 수 있음을 말하며 육지에서 방탕하게 살기보다는 배 위에서 조심하여 평온하게 살겠다는, 삶의 방식에 대한 주옹의 지향을 전달하고 있다.

- 36 ‘포구’는 겉으로는 아름답고 평온해 보이지만 이면에는 아픔과 고통이 도사리는 삶의 터전이다. ‘무위한 해조음’은 ‘소금기 많은 푸른 물’을 통해 나오는 이미지이다.

오답 풀이

- ①, ② (가)에서 ‘손’은 ‘주옹’에게 위험한 배 위에서 사는 이유를 물어보고, ‘손’은 흔들리는 배 위에서는 조심하며 살게 되고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잘 잡으면 흔들리지 않는다고 답하고 있다.

- ③ (가)에서 '주옹'은 인간 세상과 인심은 큰 바람이 부는 거대한 물결과 같이 위험하고, 욕심을 부리느라 나중을 돌보지 못하는 공간이라고 말하고 있다.
- ④ '뿔발'은 생존을 위한 생명체의 사투와 인간의 힘겨운 노동이 공존하는 공간이다.

- 37** '어머니'가 화자를 데리고 바다에 간 이유는 '깨달음'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이다. 그 깨달음은 '바다'가 아닌, 바다가 '밀려 나간 후' 모습을 드러내는 '뿔발'을 통해 알게 된 삶의 의미와 연결된다.

| 채점 기준 | 배점 |
|---|--------|
| 갯벌 생물들의 생명력, 고달픈 삶을 살아 내는 존재들의 경건함을 모두 서술한 경우 | 5점 |
| 갯벌 생물들의 생명력, 고달픈 삶을 살아 내는 존재들의 경건함 중 하나만 서술한 경우 | 3점 |
| 문맥에 어긋나거나 맞춤법에 맞지 않은 경우 | - 0.5점 |

- 38** (가)는 양반들을 '종놈만도 못한 놈'이라고 비속어를 사용하여 양반 계층의 가식과 허위를 비판하고 있다. (나)는 승상인 조조에게 '똥 싸고 자쁘라지것소.'라고 하여 장수로서의 기개가 전혀 없는 조조를 졸장부로 희화화함으로써 지배 계층의 허위를 비판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가)에서는 '말뚝인지 쇠뚝인지'와 같이 유사한 말을 활용한 언어유희가 나타나지만, (나)에서는 발음의 유사성을 활용한 언어유희는 나타나 있지 않다.
- ② 대화에 춤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것은 민속극인 (가)에만 해당한다. (나)는 판소리 사설이므로 춤이 나오지 않고, 제시된 부분은 '아니리'로 가락을 붙이지 않고 이야기 하듯 말하는 부분이다.
- ③ (가)와 (나) 모두 의도적으로 고사를 잘못 인용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 ⑤ (가)는 '듯이'가 반복되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인물의 부정적 행태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가)와 (나) 모두 역설적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 39** (나)에서 서술된 정옥의 말은 정옥이 조조의 비굴하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에 기막혀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작중 현실에서 벗어난 객관적인 시선이 담겨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 풀이

- ① <보기>에서 아니리는 인물의 대사를 통해 사건을 전개한다고 하였고, (나)는 조조와 정옥의 대사를 통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③ <보기>에서 아니리는 인물의 대사를 통한 사건의 전개로 서사의 진행에 관여한다고 하였고, (나)는 인물들의 대사를 통해 조조가 전쟁에서 패해 도망을 가는 장면을 구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④ <보기>에서 아니리는 창에서 고조된 긴장이 이완되어 전개되기도 한다고 하였고, (나)는 조조와 정옥이 위기에서 벗어나 골짜기에 들어서는 장면이므로 고조된 긴장이 이완되어 전개된다고 볼 수 있다.
- ⑤ <보기>에서 아니리는 정해진 음률이나 장단에 의하지 않고 읊조리는 어투로 말하는 부분을 가리킨다고 했다. 따라서 (나)의 '표르르르르' 등의 음성 상징어는 읊조리는 어투로 표현할 것임을 알 수 있다.

- 40** [A]에서는 첫째 양반, 둘째 양반, 셋째 양반 등 각 양반들의 근본이 천하다는 점을 열거의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양반들의 열등함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다. [B]는 전쟁에 패하고 쫓겨 가는 상황에서도 메추라기가 맛있겠다고 말하는 조조에 대한 조롱의 말을 통해 조조를 희화화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A]에서는 양반에 대한 비판 의식을 강조하고 있지만, 직유의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다. [B]에서는 조롱을 통해 상대가 처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을 뿐 은유의 방식이 사용되지는 않았다.
- ③ [A]에서는 고사를 사용하지도 않았고, 양반의 동정심을 자아내게 하려 하지도 않았다. [B]에서는 상대를 조롱하고 있을 뿐 상대가 수치심을 느끼고 있지는 않고, 관용 구도 사용되지 않았다.
- ④ [A]에는 설의적 표현이 쓰이지 않았으며, 양반의 근본이 천하다는 것이 폭로되고 있을 뿐 양반의 무능함을 폭로하고 있지는 않다. [B]에도 설의적 표현은 쓰이지 않았으며 조조를 조롱할 뿐 정옥 자신의 유능함을 드러내려 하고 있지는 않다.
- ⑤ [A]에서는 조롱하는 어투를 사용하여 양반의 근본이 좋지 못함을 폭로하고 있다. 반어적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 [B]는 조조가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질감이 드러나기는 하지만 역설적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41 (가)의 말뚝이는 ‘평안 감사, 진영 감사’ 등 벼슬 이름을 나열하여 자신의 출신을 밝히고 근본이 우월하다는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보기>의 말뚝이가 자신의 근본이 우월함을 밝히는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42 ㉠은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난 것을 기뻐하는 양반들의 말과 행동이다. 이는 양반들이 말뚝이에게 항복하고 목숨을 구걸하는 것으로 양반들의 허위의식을 풍자하고 있을 뿐, 계층 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3 (가)의 「찬란한 인생」은 소통이 단절되어 있고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현대인들의 고달픈 삶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나)의 ‘가장 건강한 마음이란 쉽게 상처받는 마음이다.’는 타인의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서로 하나가 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연한 삶의 태도를 지녀야 함을 강조하는 역설적 표현이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는 삼 년 전 과거의 기사와 흡사한 오늘의 기사를 통해 부조리한 일상이 반복되는 현실을 풍자하고 있다. 이는 과거와 현재의 대비로 보기는 어렵다. (나)에는 과거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사색과 성찰이 드러날 뿐 과거와 현재의 대비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② (나)에는 숲이라는 특정 공간에서 변화하는 날씨에 순응하며 사는 나무와 새 들을 관찰하며 깨닫게 된 유연한 삶의 태도의 중요성이 나타나 있지만, (가)에는 특정한 공간에서 대상을 관찰한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③ (가)는 부조리한 상황의 나열을 통해 현실의 부조리를 부각하고, (나)는 사색을 통해 지향해야 할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④ (가)는 부조리극으로 실상과 부합하지 않고 희극적으로 과장된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주제 의식을 드러낸다. 그러나 (나)는 쉽게 변하는 세태를 묘사한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환경에 순응하며 매 순간 충실히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는 글이다.

44 글쓴이는 약한 마음을 통해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되므로 어리고, 쉽게 상처받고, 금방 지치는 사람으로 자신이 태어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45 [A]에서 교수는 시계 소리에 황급히 일어나서는 허겁지겁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정신적 여유를 잃은 강

박적인 상태라 할 수 있다. [B]에서 글쓴이는 약한 마음을 지녀야 서로 하나가 될 수 있고, 약한 몸을 지녀야 서로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상처받는 마음이 건강한 마음이고, 금방 지치는 몸이 건강한 몸이라고 말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A]는 힘겨운 일상적 삶에 얽매어 사는 모습이며, [B]는 약한 마음과 금방 지치는 몸을 지녀야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을 뿐 삶의 고통을 극복하는 방법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② [A]는 세속의 일상적인 삶에 짓눌려 사는 모습이고, [B]는 우리가 일상적 삶을 살아가면서 갖추어야 할 자세를 이야기할 뿐 삶에 초연한 태도는 아니다.

③ [A]에서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B]에서 물질적 욕망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④ [B]는 앞 문단의 내용을 고려할 때 순응하며 살고자 하는 삶의 태도로 볼 수 있으나, [A]는 물질적 가치에 짓눌려 사는 삶의 모습으로 노동의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46 (나)에서 글쓴이는 매일 날씨가 달라 나무는 매일 다르고, 맑은 날과 흐린 날의 나무는 서로 다르다고 하였다. 즉 나무는 환경에 순응하며 달라진다고 하였다. 또 몰아치는 바람 앞에서 곳곳하게 서 있는 나무는 병든 나무일 것이라고 하였다. 즉 나무는 험한 바람이 불면 바람에 흔들리면서 순응할 것임을 알 수 있다.

| 채점 기준 | 배점 |
|---------------------------------------|--------|
| 몰아치는 바람에 흔들린다는 내용과 ‘환경’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경우 | 5점 |
| ‘환경’이라는 단어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 | 3점 |
| 문맥에 어긋나거나 맞춤법에 맞지 않은 경우 | - 0.5점 |

4 문학과 삶

★ 확인 문제

본문 148쪽

- 1 ⑤ 2 (1) ○ (2) ○ (3) × 3 인간상, 조화 4 ③ 5 ⑤
6 (1) 문학 (2) 정서 (3) 해결책

(1) 자아·타자·공동체와 문학

작품 1 수오재기

본문 150쪽

- 01 ③ 02 ③ 03 ⑤ 04 예시 답안 참된 '나'를 잘 지켜야 한다 05 ⑤ 06 ④
07 예시 답안 나의 생명, 원시의 본연한 자태

- 01 이 글은 본질적 자아와 현상적 자아와 같은 추상적 개념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에 대한 글쓴이의 인식이 드러나 있을 뿐 시대적 변화 양상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나)의 '내 발을 지고 달아날 자가 있는가. 발은 지킬 필요가 없다.'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나)의 '어찌 실과 끈으로 묶고 빗장과 자물쇠로 잠가서 나를 굳게 지키지 않겠는가.' 등에서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본질적 자아의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④ (나)에서 천하 만물과 '나[吾]'의 특성을 대조의 방식으로 비교하고 있다. 이는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대상인 '나', 즉 본질적 자아의 속성을 부각하는 기능을 한다.
⑤ (나)에서 는 '꽃나무나 과일나무', '내 책', '내 옷이나 양식' 등의 구체적 사례를 들어 글쓴이의 생각을 뒷받침하고 있다.

- 02 ㉔은 글쓴이가 조정애 나아가서 벼슬살이를 하던 모습을 비유적으로 보여 주는 소재이다. 이러한 과거의 모습은 성찰의 대상일 뿐, 글쓴이가 과거의 모습을 자신이 죽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여기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 ① ㉔은 땅속 깊이 뿌리가 박혀 있는 대상으로 그냥 두어도 다른 사람이 뽑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는 대상이다.
② ㉔은 마음을 울려서 '나'를 유혹해 쉽게 떠나가게 하는 대상으로, '나'가 지키기가 쉽지 않음을 드러낸다.

- ④ ㉔은 글쓴이가 귀양을 온 장기를 가리키는 곳으로, 글쓴이가 '나'를 잃어버리고 살았음을 깨닫는 현재의 공간이다.
⑤ ㉔은 글쓴이가 태어난 고향으로, 글쓴이의 가정이 있는 공간, 글쓴이가 되돌아가고 싶어 하는 곳이다.

- 03 (가)에서 글쓴이는 '검은 사모관대에 ~ 뛰어다녔다.'를 통해 과거에 조정에서 관료로서의 삶을 살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를 사리사욕에 빠진 삶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답 풀이

- ① '수오재'라는 큰형님 집 서재의 이름에 의문을 제기하고, 귀양지에서의 성찰을 통해 '수오재'의 의미를 깨닫고 글을 쓰게 된 내력을 밝히고 있다.
② 이 글은 글쓴이가 집의 이름의 의미를 찾는 과정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사색 과정과 사색한 바를 제재로 활용하여 자신이 깨달은 바를 보여 주고 있다.
③ 글쓴이는 마지막 문단에서 맹자의 말을 인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하고, '나'를 지키는 것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④ '수오재의 기로 삼는다.'를 통해 이 글이 건물의 기문으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글을 읽는 독자에게 본질적 자아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있다.

- 04 이 글의 제목인 '수오재기'는 "나"를 지키는 집에 대한 기록이라는 뜻이다. 이는 눈앞의 이익이나 쓸데없는 욕심, 지위나 감정에 마음을 빼앗겨 '나'를 잃어버리기 쉬우니, 이를 경계하여 본질적인 자아를 잘 지켜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채점 기준 | 배점 |
|---|--------|
| 참된 '나'(본질적인 자아)와 '지켜야 한다'는 말을 포함하여 정확한 내용을 쓴 경우 | 5점 |
| 참된 '나'(본질적인 자아)와 '지켜야 한다' 중 하나가 빠졌지만 전체적인 의미가 맥락에 맞는 경우 | 3점 |
| 문맥에 어긋나거나 맞춤법에 맞지 않은 경우 | - 0.5점 |

- 05 (가)의 글쓴이와 (나)의 화자는 모두 현실의 '나'의 모습을 성찰하고,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나'를 지향하는 삶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대상을 열거하는 방식은 (가)에만 나타날 뿐 (나)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② (가)와 (나)는 모두 본질적 자아를 갈구한다는 점에서 지향하는 바가 나타난다. 그러나 (가)에는 현상적 자아가

본질적 자아에게 묻는 장면이 나타나지만, (나)는 질문의 방식이 사용되지 않았다.

③ (가)와 (나) 모두 풍자의 방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또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본질적 자아를 추구하는 삶을 살려는 것이지,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④ (가)와 (나) 모두 자연과 인간사를 대비하고 있지 않으며, 자연을 추구하는 삶을 다루고 있지 않다.

06 (나)에서 ‘그 열렬한 고독 가운데’ ‘호올로 서면’ 반드시 ‘나’와 대면케 될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화자는 ‘열렬한 고독’을 통해 비로소 ‘나(본질적 자아)’를 대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화자가 멀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은 달아나기를 잘하고 한번 가면 돌아올 줄을 모르는 특징을 지닌 본질적 자아에게 꼭 지켜야만 하는 대상이다.

② ㉡은 글쓰기가 관직을 받아 조정에서 있던 것을 상징하는 소재로, 글쓰이는 처지가 바뀌어 귀양을 떠나서야 비로소 ‘나’를 다시 만났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본질적 자아인 ‘나’를 잃어버린 상황의 삶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③ ㉢은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화자 자신의 현재 모습을 의미한다.

⑤ ㉤은 ‘나의 생명’을 회복하지 못하면 후회 없이 죽음을 맞이하겠다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 것으로, 화자의 강한 생명 회복의 의지가 나타나 있다.

07 (나)의 3연에서 화자는 현실적 자아와 구분되는 본질적 자아를 ‘나’로 지칭하고 있는데 이것을 ‘나의 생명’이라고 부연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 행에서는 화자가 도달하고자 하는 생명의 본질적 모습을 ‘원시의 본연한 자태’라고 표현하고 있다.

작품 2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본문 154쪽

- 01 ⑤ 02 ② 03 ⑤ 04 ① 05 ③ 06 ④
07 ③ 08 예시 답안 ‘그’는 자신의 숙물성과 대비되는 임 씨의 정직함과 순수함 앞에서 심한 자괴감(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 09 ① 10 ④

01 이 글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만, 서술자가 이야기 속 인물인 ‘그’의 입장에서 사건에 대한 정황과 해석을 서술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그’의 내면 심리가 드러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은 이야기의 밖에 존재하는 3인칭의 서술자에 의해 사건이 전달된다. 다만 인물과 사건을 인식하는 주체는 ‘그’로, 서술자는 ‘그’의 시선을 통해 인식한 사건을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② 제시된 장면은 옥상 공사와 관련한 사건이 나타나 있을 뿐 상징적인 장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인물이 느끼는 심리적 갈등은 서술을 통해 나타나고 있을 뿐 장면을 통해 표현하고 있지 않다.

③ 옥상 공사를 마치고 난 후의 사건만이 드러나고 있을 뿐, 동시에 일어나는 두 개의 사건을 병치해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지 않다.

④ 인물들의 서로 다른 특성이 드러나고 있으나, 각기 다른 인물들에 대한 서술자의 논평이 나타나 있지 않다.

02 (가)에서 임 씨는 자신의 말은 바 일을 꼼꼼히 하는 성실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임 씨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모습일 뿐 이를 임 씨가 앞장서서 갖은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 임 씨가 노모의 덕담을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짚은 채’ 듣는 태도에 나타나 있다.

③, ④ 임 씨가 그만하라는 아내의 말에도 꼼꼼하게 일을 마무리하고 밤 여덟 시가 지나서야 일을 끝낸 것에서 알 수 있다.

⑤ (나)에서 ‘우리 사모님 오늘 너무 늦게까지 이거 고생이 많으십니다요, 참 죄송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알 수 있다.

03 옥상 공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걸리고 임 씨가 고생하는 모습을 본 ‘그’의 아내는 심적 부담으로 안절부절못하였다. ‘그’의 아내가 임 씨가 ‘세상에 공돈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라고 한 말은 [B]의 과정에서 한 말이다.

오답 풀이

① (나)의 ‘부러 만들어 시킨 일로’를 통해서 [A]의 옥상 방수 공사는 그와 아내가 일부러 시킨 일임을 알 수 있다.

②, ③ (나)에서 ‘그’는 ‘밤 여덟 시가 지나도록 잠자리 노릇에 시달’렸고, ‘심적 부담을 느끼기 시작한 그의 아내 역시 안절부절못했’다고 하였다.

④ ‘그’는 임 씨가 견적대로의 돈을 받기 민망하여 우정 지어내 보이는 열정으로 일을 한다고 여겼으나 임 씨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그의 손에는 특별한 데가 있다는 느낌을 받고, 그의 성실한 태도에 점차 우호적으로 변하게 된다.

04 (다)에서 ‘사장님요, 기분도 그렇지 않은데 제가 맥주 한잔 살게요. 가십시오.’라고 권한 사람은 ‘그’가 아닌 임 씨이다. 임 씨는 같은 토끼띠라는 ‘그’에게 친근감을 느껴 맥주 한잔 마시려 갈 것을 제안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가)에서 ‘그’는 아내의 호소하는 눈빛을 보고, 할 수 없이 끼어들어 임 씨에게 ‘계산을 다시 해’ 볼 것을 제안하고 있다.

③ (라)에서 ‘쉐타 공장 하던 놈한테 일 년 내 연탄을 대 줬더니 이놈이 연탄값 떼어먹고 야반도주했어요.’에서 임 씨가 스웨터 공장 사장에게 일 년 동안 대 준 연탄의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나)에서 임 씨는 ‘토끼띠이면서도 사장님이 왜 잘사는 가 했더니 역시 그렇거든요.’라고 말하며 ‘그’가 자신과 같은 토끼띠이지만 경제적으로 처지가 다르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다)에서 김 반장은 임 씨가 주문한 맥주를 내놓기 전에 외상값부터 갚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외상 독촉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약삭빠르고 계산적인 성격이 드러난다.

05 ㉠에서 아내가 칠만 원이라는 말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임 씨를 정직한 수리공으로 보지 않고 비싼 견적으로 ‘그’와 아내를 속이려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예상과 달리 애초 견적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청구하는 것에 놀란 것이다. 따라서 아내가 임 씨가 정직한 일꾼이라고 믿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임 씨의 행동을 보고 임 씨가 수리 비용을 애초 견적보다 더 비싸게 청구할까 봐 ‘그’와 아내는 긴장하고 있다.

② ㉡은 임 씨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공사비를 부풀릴 것이라 예상했던 것과 달리, 임 씨가 여러 이유로 공사비를 낮추자 ‘그’가 느끼는 당혹감을 드러내고 있다.

④ 자신보다 형편이 좋은 ‘그’에게 ‘서비스’라며 옥상 공사한 품삯을 따로 받지 않는 임 씨는 오히려 ㉢과 같은 충고를 ‘그’에게 건네고 있다. 이는 ‘그’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온 순박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

⑤ 임 씨는 가족들에게 곰국 한번 사 줄 수 없는 처지이지만, 임 씨의 돈을 떼어 먹은 스웨터 공장 사장은 ㉠처럼 더 부유해진 상황이다. 이는 정직하게 노동을 하며 어렵게 살고 있는 임 씨의 처지를 부각하는 효과를 지닌다.

06 ‘그’와 아내는 ㉣를 통해 임 씨가 자신들의 오해와 달리 정직한 인물임을 깨닫게 된다. ㉤는 자식들을 충분히 뒷바라지해 주지 못하는 데서 오는 임 씨의 한을 담고 있는 소재이다. 이는 임 씨의 가족에 대한 사랑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07 ‘연탄이나 갈아’ 달라고 하는 것은 임 씨의 소탈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으로, 하층민의 삶의 애환과는 거리가 멀다. 또한 이를 통해 정직한 노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긍정적 시선을 느낄 수는 있지만 연민의 시선을 느끼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

① ‘그’와 아내는 임 씨가 높은 금액을 청구할까 봐 걱정하고 있다. 이는 계산적인 중산층의 허위의식과 속물성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임 씨는 공사 비용을 새롭게 계산하면서 남는 것들의 돈을 빼 주고 있다. 이는 도시 변두리에서 정직한 노동으로 살아가는 하층민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④ 스웨터 공장 사장의 거짓말에 마음이 좋지 않다고 한 임 씨의 말을 통해 어렵게 살아가면서도 순박하고 착한 임 씨의 성품을 보여 주고 있다.

⑤ 정직하게 노동으로 일을 하는 도시 변두리 하층민의 돈을 떼어먹고 ‘야반도주’해 가리봉동에 더 크게 공장을 차린 스웨터 공장 사장은 탐욕스러운 현대인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08 ‘그’와 아내는 임 씨를 의심하고 경계하였지만, 임 씨는 정직한 뿐만 아니라 넉넉한 인심으로 ‘그’와 아내를 대하고 있다. 이를 본 ‘그’는 임 씨를 의심했던 자신의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의 정직하고 순수한 모습 앞에서 자괴감을 느껴 ‘입을 다물어 버린 것이다.’

| 채점 기준 | 배점 |
|--|--------|
| 대비되는 속성에 속물성과 정직성을 포함하고, 현재 ‘그’의 심리를 정확하게 쓴 경우 | 5점 |
| 임 씨의 성격이나 ‘그’의 심리 중 하나가 빠진 경우 | 3점 |
| 문맥에 어긋나거나 맞춤법에 맞지 않은 경우 | - 0.5점 |

09 ‘그’가 소유한 ‘집’은 “형 씨, 형 씨는 집이 있으니 걱정할 것 없소. 토끼띠면 어쩔 거여. 집이 있는데, 어디 집값이 내리겠소?”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그’가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임 씨로 하여금 자신보다 나은 처지에 있다고 생각하게 한다.

오답 풀이

② 임 씨는 자신의 돈을 떼어먹은 스웨터 공장 사장은 맨션아파트에 살고, 자신은 지하실 방에서 여섯 식구가 함께 살고 있음을 언급하며 공장 사장과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고 있다.

③ 임 씨의 연탄값을 떼어먹은 부도덕한 스웨터 공장 사장은 ‘맨션아파트’로 상징되는 부유하고 여유로운 삶을 누리고 있으며, 이에 대해 임 씨는 울분을 쏟아내고 있다.

④ 임 씨가 비 오는 날이면 떼인 연탄값을 받으러 가야 하는 ‘가리봉동’은 임 씨의 힘들고 고단한 삶을 보여 주고 있다.

⑤ 임 씨는 ‘보증금 백오십만 원에 월세 삼만 원짜리 지하실 방’으로 자신의 집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해 온 임 씨가 어렵게 사는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10 [A]에서는 ‘그’가 스웨터 공장 사장을 ‘적일 놈’이라고 하며 그 외모를 부정적 이미지로 상상하는 모습이 서술되어 있다. 이는 임 씨와 스웨터 공장 사장 간의 사연을 듣고 돈을 떼인 임 씨의 분노에 공감하는 ‘그’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B]에서 ‘그’는 임 씨에 대한 편견으로 의심하고 손해를 걱정하는 자신의 속물적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끼며 임 씨의 눈을 보지 못하고 있다.

작품 3 광화문, 겨울, 불꽃, 나무

본문 158쪽

01 ③ 02 ② 03 ③ 04 ① 05 ① 06 ⑤

01 이 시는 겨울 저물녘에 광화문 네거리에서 잎이 모두 떨어진 맨몸의 가로수들에 갇힌 꼬마전구들이 불을 밝히고 있는 시적 상황이 시상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화자는 이런 상황을 보며 자연의 질서가 인간의 문명에 의해 파괴되는 것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시의 시적 대상은 광화문의 겨울나무이다. 화자는 겨울나무를 보며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하고 있을 뿐 자신을 대상화한 것은 아니다.

② 이 시는 자연물인 광화문의 겨울나무를 보고 자연 질서를 교란하는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하고 있을 뿐, 자연물로부터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발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④ 이 시는 인간 중심적 가치관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비판적 시각으로 다룬 작품으로, 시적 대상에 대한 해학적 묘사는 드러나지 않는다.

⑤ 부정적 현실을 만드는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적 성찰은 나타나 있지만, 이를 억압의 주체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화자의 비판 의식만 나타날 뿐 저항 의지가 나타나 있지는 않다.

02 2연의 ‘어둠도 이제 병균 같은 것일까’에서 의문형 어미가 나타나지만 의문형 어미의 반복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1연의 ‘일제히 불을 켜다 나뭇가지에’에서는 도치법을 사용하여 밤이 되어도 어두워지지 않는 광화문 네거리의 상황을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다.

③ 광화문의 겨울나무들을 의인화하여 ‘맨몸으로 돌아가 있’는 모습, ‘불을’ 켜는 모습, ‘황급히 올라오’는 모습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④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등 실제 명칭을 사용하여 시적 상황에 대한 사실감을 높이고 있다.

⑤ 이 시는 ‘광화문 겨울나무 불꽃나무들’과 같이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 자연 질서를 교란하는 현대 문명에 대한 깊은 여운을 형성하고 있다.

03 바다에서 공을 세운 ‘해군 장군의 동상’이 내륙 한가운데서 있는 상황은 정상으로부터의 이탈로 빚어진 부자연스러운 상황을 환기한다. ‘낮을 켜 놓은 권력들’은 자신의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이기적인 인간들을 의미하므로 ‘해군 장군의 동상’이 이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겨울나무의 꼬마전구들이 ‘일제히 불을’ 켜는 행위로 인해 해가 졌는데도 어두워지지 않고 나무도 잠들지 못하고 있다.

② ‘해가 졌는데도 어두워지지 않는’ 상황은 ‘밤을 끄고 휘황하게 낮을 켜 놓은 권력들’에 의해 만들어진 광화문 네거리의 풍경이다.

- ④ ‘해가 졌는데도 어두워지지 않는’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인해 ‘엽록소를 버린 겨울나무들’이 ‘한밤중에 이상한 광합성을 하게 되는 것이다.
- ⑤ 이 시는 자연 질서를 교란하는 현대 문명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인식이 드러나 있다.

04 ‘어둠도 이젠 병균 같은 것일까’는 어둠을 몰아내려고 하는 인간에 대한 의구심을 표현한 것이다. 이 시에서 ‘권력들’은 자신의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 나무들에 꼬마전구를 달아 놓아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이기적인 인간을 의미한다. ‘어둠’은 겨울나무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긍정적 시간으로 ‘권력들’의 본원적 특성이 될 수 없다.

오답 풀이

- ② 광화문 네거리의 나무들로 대표되는 모든 존재에게 겨울은 봄을 준비하는 휴식과 안식의 시기이고, 어두운 밤은 안식을 취할 수 있는 휴식의 시간이다.
- ③ 화자는 ‘엽록소를 버’리고 ‘뿌리로 내려가 있던’ ‘겨울나무들’이 ‘한밤중에 이상한 광합성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잎을 떨구고 ‘맨몸으로 돌아가’ 있는 겨울나무가 겨울에 광합성을 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 ④ 이 시에서 화자는 휴식과 충전의 시간으로서의 겨울과 어둠(밤)을 인정하지 않고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현대 문명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는 겨울과 어둠의 휴식과 충전의 시간이었던 본원적 특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 ⑤ 화자는 수만 개의 꼬마전구로 인해 밤에도 어두워지지 않는 현실을 자연의 순리를 벗어나는 현대 문명의 문제로 여기며 비판적 시선으로 보고 있다.

05 ‘불꽃나무’는 현대 문명의 인위적인 화려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불현듯’, ‘손뼉을 칠 뻔’한 것은 꼬마전구가 달린 가로수의 인위적인 아름다움에 무심코 경탄할 뻔했던 화자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06 이 시는 인간과 자연의 잘못된 관계 맺음에 의해 인간의 환경 정복을 당연시하는 서구 근대의 사고방식을 비판하고 있는 생태주의 시이다. 자연 질서를 교란하는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적 성찰은 나타나 있지만 자연의 치유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으며, 자연의 치유가 문명의 치유로 이어진다는 내용도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이 시에 나타나는 공간인 ‘광화문 네거리’는 한밤중에도 가로수들이 일제히 환하게 불을 켜고 겨울에 잎이 없는 나무도 광합성을 하게 하는 공간이다. 그러므로 자연의 순리가 존재하는 공간이 아니라, 인간 중심주의적 공간, 문명화된 공간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② 겨울나무나 인간이 순리에 맞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휴식과 충전의 시간인 밤(어둠)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인간 중심의 현대 문명은 밤을 끄고 어둠을 몰아내고 있다.
- ③ 해군 장군의 동상이 내륙의 한가운데 서 있고, 문 닫은 세종문화회관이 두 눈 뜨고 있는 것은 비정상적이고 부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문명화된 공간의 부자연스러운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이 시의 화자는 겨울나무들이 꼬마전구들을 매달고 한밤중에 광합성을 하는 상황을 ‘이상한’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 ‘겨울이 교란당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화자는 인간 중심적인 관점에 의해 자연의 질서가 훼손된 것에 대한 비판적 자각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단원 평가 문제

본문 160쪽

| | | | | | |
|------|------|------|------|------|------|
| 01 ① | 02 ⑤ | 03 ③ | 04 ① | 05 ⑤ | 06 ① |
| 07 ④ | 08 ④ | 09 ⑤ | 10 ④ | 11 ③ | 12 ⑤ |

01 (가)는 글쓴이가 경험과 사색을 통해 깨달은 바를 이야기하고 있다. (나)는 가운과 서희의 대화와, 가운의 심리와 행동에 대한 서술자의 서술을 통해 가운이 재경의 선택을 이해하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오답 풀이

- ② (가)와 (나)는 모두 음성 상징어가 나타나 있지 않다.
- ③ (가)에서는 서로 대립하는 자연물들이 조화를 이루어 가는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기보다 천하 만물과 ‘나’의 대조적 특징을 통해 ‘나’를 지켜야 한다는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에는 ‘눈썹이 새까맣고 이가 하얀 미인’에서, (나)에는 ‘뿌옇다’에서 색채어가 쓰이지만 이를 통해 긴박한 분위기를 드러낸 것은 아니다.
- ⑤ (가)의 글쓴이는 과거를 돌아봄으로써 ‘나’를 잃어버린 채 살았던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나)에서는 인물이 자신의 삶을 돌아 보고 반성하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02 글쓴이는 ‘나’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 깨달음을 수오재의 기로 삼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수오재의 기문을 쓰는 것을 계기로 수오재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03 ‘친척과 조상의 무덤을 버리’는 행위는 글쓴이가 고향을 떠나 귀양지로 가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표현이다. 이는 본질적 자아를 잃어버린 글쓴이가 겪게 되는 현실적 고통으로, ‘나’를 찾기 위한 행동이라고 할 수 없다.

오답 풀이

- ① ‘이때에는 나에게 물었다.’라고 자문(自問)의 형식을 이용하여 내적 반성을 이끌어 내고 있다.
- ② [A]에서는 글쓴이가 과거 공부에 매진했던 어린 시절과 벼슬길에 나아가 관리로 살았던 이력을 설명한 후 처지가 바뀌어 귀양살이를 하게 되었음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④ ‘과거’, ‘조정’, ‘검은 사모관대’, ‘비단 도포’ 등은 벼슬살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벼슬살이에 정신이 팔렸던 것은 글쓴이가 ‘나’를 잃어버린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 ⑤ ‘큰길’은 벼슬을 얻고 출세한 삶을 살았던 과거의 공간을 의미하고, ‘대나무 숲’은 귀양 와서 지내고 있는 현재의 공간을 의미한다.

04 밭이나 집은 지고 달아날 자가 없고, 정원의 나무들은 뽑아갈 자가 없으며, 책이나 옷, 양식은 모두 없앨 수 없다고 하였다. 즉, 천하 만물은 모두 없애지 못하고, 모두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05 가윤은 재경이 정말 많은 것을 했다고 생각하며, 여러 번의 우주 미션을 성공하고 수많은 소녀들의 삶을 바꾼 우주 영웅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가윤이 재경의 다른 행적들을 인정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서희가 가윤에게 ‘엄마가 한 번 ~ 그냥 힘들다고’, ‘평소에도 잔뜩 듣던 이야기니까 그냥 적당히 들어 주면서 무시했지’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알 수 있다.
- ② 재경은 터널 우주 비행사가 되어 온몸을 사이보그처럼 만들었고, 이 육체를 이용하여 심해로 갔다.
- ③ ‘앞부분 줄거리’에 따르면 제1기 터널 우주 비행은 재경이 참여했던 계획으로, 발사 사고로 실패했음을 알 수 있다.
- ④ ‘이미 수도 없이 보았던 저쪽 우주와 별다를 바도 없었다.’라고 서술된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06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하는 상황과 처지로 인한 인물의 괴로움이 드러나고 있는 있으나, 날씨에 대한 묘사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 ②, ③ 주변 인물인 ‘그’와 아내가 견적을 두고 임 씨와 나누는 대화가 진행될수록 임 씨의 정직하고 선한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고, 임 씨와 ‘그’가 술을 마시며 하는 대화가 진행될수록 임 씨가 처한 상황이 구체화되고 있다.
- ④ 이 글은 ‘그’가 임 씨를 관찰하는 과정에서 ‘그’의 심리 변화를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추어 서술되고 있다. 이를 통해 ‘중산층의 소시민성에 대한 자각과 타자 이해를 통한 자기반성’이라는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이 글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만 서술자가 주로 ‘그’의 입장에서 임 씨를 관찰하며 ‘그’의 생각과 심리를 서술하고 있다.

07 ‘그’는 임 씨가 자신과 아내를 엉터리 견적으로 속일까 봐 몹시 마음을 쓰며 애를 태우는 소시민적인 모습을 보였고,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부끄럽게 여긴다. 따라서 몹시 마음을 쓰며 애를 태움을 의미하는 ‘노심초사’가 적절하다.

08 ㉔은 해 뜨는 날은 일당이 적은 고된 노동을 하고, 비 오는 날은 쉬지 못하고 떼인 돈을 받으러 가야 하는 임 씨의 고단한 현실에 대한 반어적 표현이다.

오답 풀이

- ① ㉑은 예상과는 다르게 시킨 일을 너무나 정성껏 해 주는 임 씨의 모습으로 인한 아내의 당혹감이 드러나고 있다.
- ② ㉒은 임 씨가 수리 비용을 계산하는 모습으로, 임 씨가 수리 비용을 더 비싸게 청구할까 봐 ‘그’와 아내는 긴장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 ③ ㉓은 임 씨에 대해 선입견을 갖고 있던 ‘그’가 예상했던 것과 달리 임 씨가 정직하게 적은 비용을 청구한 것에 대한 ‘그’의 부끄러움과 망연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⑤ ㉔은 “참고 살다 보면 나중에는…….”이라는 ‘그’의 위로에 대해 임 씨가 절망적인 심정을 드러내는 발언이다.

09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절망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그’가 아닌 임 씨이다.

오답 풀이

- ① ‘그’는 머릿속에서 공사비를 많이 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을 했던 자신의 물질 중심적이고 소시민적인 현대인으로서의 모습을 자조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 ② ‘조목조목 남는 것들을 설명’하는 임 씨에게서 정직하고 순박한 도시 빈민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 ③, ④ 스웨터 공장 사장은 돈을 떼어먹고 도망친 후 더 크게 공장을 세우고 이윤을 도모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임 씨에게 연탄값을 주지 않아 임 씨는 그에게서 계속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처지이다. 이는 스웨터 공장 사장과 같은 인물들의 비윤리적 행위로 인해 도시 빈민층의 삶이 더욱 피폐해지는 사회 문제를 그려 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10 (가)는 ‘광화문’, ‘겨울나무’, ‘불꽃나무’ 등을 반복하여 자연의 질서를 교란하는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하고 있다. (나)는 ‘꽃씨를 받으신다.’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절망과 죽음의 상황에서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희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가)는 광화문의 겨울나무들을 의인화하여 ‘맨몸으로 돌아가 있는’ 모습, ‘불을’ 켜는 모습, ‘황급히 올라오’는 모습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나)에는 의인화된 표현이 나타나 있지 않다.
- ② (가)와 (나)에는 모두 명령형 어미가 나타나지 않는다.
- ③ 시상의 극적 전환은 화자의 사고나 정서가 바뀌는 것을 말한다. (가)와 (나)에서는 시상의 극적 전환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⑤ (나)의 4연 ‘글쎄 할머니, / 그걸 어찌란 말씀이세요.’에서 할머니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가)는 비판적 어조가 드러날 뿐 특정한 청자가 나타나 있지 않다.

- 11 ㉠은 현대 문명 속에서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상실한 자연물로, 현대 문명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게 하는 대상이다. ㉡는 연약하지만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생명을 이어 가는 대상으로, 할머니가 이를 받는 행위는 전쟁으로 인한 불행한 현실 속에서 생명과 회복에 대한 희망과 의지를 싹틔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은 현대 문명으로 인해 생태계가 교란된 상황을 보여주는 대상이므로 현실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구체화하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는 불행한 현실에서 희망과 의지의 대상이므로 비정상적인 상황을 구체화하는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 ② 전쟁이 인간의 삶과 자연을 파괴한다는 점에서 ㉡는 이와 대비되는 생명의 고귀함을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은 현대 문명으로 인해 생태계가 교란된 피해의 대상으로 훼손되어 비정상적인 모습이 된 자연의 모습이다.
- ④ ㉠은 현대 문명으로 인해 교란된 자연의 모습을 상징하고, ㉡는 생명이 파괴된 부정적 현실과 대비되는 대상이다.
- ⑤ ㉠은 화자에게 현실의 문제를 깨닫게 하는 대상이지 화자가 자신과 괴리된 존재로 인식하는 대상은 아니다. ㉡는 할머니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대상이지 화자가 일체감을 느끼는 대상은 아니다.

- 12 (나)의 할머니는 전쟁의 참혹한 실상을 경험한 대상으로, 손주인 화자와 함께 방공호에 피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을 자신만 살아남은 것에 대한 죄책감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은 2연의 ‘누여우시다’와 더불어 전쟁의 폭력성에 대한 할머니의 분노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① ㉠은 해가 지면 어두워지는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현대 도시의 문명의 비정상적 상황을 환기하는 표현이다.
- ② ‘수만 개 꼬마전구들’로 인해 겨울나무들이 ‘이상한 광합성’을 하는 등 현대 문명으로 인한 생태계의 문제를 겨울이라는 계절의 교란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③ (나)의 2연과 4연에서 할머니가 ‘말이 수째 적어지’셨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전쟁을 경험하면서 받은 정신적인 상처로 인해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 ④ (나)의 3연에서 ‘진작 죽었더라면’, ‘다 보지 않았으면 만’이라고 한 것에서 할머니가 전쟁의 처참한 현실을 경험하고 한탄하는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



메모